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일 시 : 2022. 6. 28.(화) 14:00 ~ 17:30
-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강동진, 김문수, 김종현,
나창순, 목수현, 신안준, 이광표, 이현석,
이혜은(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등록문화재 「여수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 현상변경	(공 개)
2	국가등록문화재 「산청 단계마을 옛 담장」 현상변경	(공 개)
3	국가등록문화재 「산청 남사마을 옛 담장」 현상변경	(공 개)
4	국가등록문화재 「대조선독립협회회보」 현상변경	(공 개)
5	「유네스코회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6	「해관 보고문서(인천, 부산, 원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7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국가등록 문화재 명칭 변경	(공 개)

【검토사항】

8	「통영 하동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9	「하남 구산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0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주정기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1	「목포 고하도 방공호 및 막사건축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2	「흑산 사리공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3	「구 흑산성모중학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4	「이영춘 농촌위생 및 진료 기록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보고사항】

15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결과 보고	(공 개)
----	-----------------------	-------

1. 국가등록문화재 「여수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여수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 일부 구간을 철거 후 재축조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수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 일부 구간을 주택 신축을 위해 철거 후 다른 위치에 재축조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여수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07.11.30. 등록)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80번지 외
-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번지
 - 세부내용 : 담장 철거 및 일부구간 철거 후 재축조
 - 목적 : 주택 신축
 - 담장 철거 : 총길이 약 13.69m
 - 다른 위치 재축조 : 약 5.2m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내용은 주택신축을 위해 담장을 철거하고 지적선에 맞추어 일부 재축조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인의 대지면적이 112㎡(약34평)으로 협소하고 지적선이 담장 밖으로 측량되어 담장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대지면적이 더욱 줄어들어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 다만, 등록된 담장 길이가 850m에 이르고 담장의 특성상 다른 위치로 이전하면 지형에 따라 선형과 길이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개인이 축조하는 경우 신·구 재료가 섞이는 경우가 있는 등 기존 담장의 특성을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적 가치를 유지하는 이전보다는 철거로 판단하고자 함
- 철거로 가결될 경우 이에 따른 등록구역 제외 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마. 현지조사 의견('22.6.20.)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
위원 ○○○

- 대단히 협소한 대지에 주민의 주거 시설을 신축하려면 지적상의 대지경계선을 범위로 하여야 최소의 필요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건축이 가능케 하려면 등록된 담장을 철거하여야 할 것임
- 신청인은 새 건물 건축에 따른 대지 외곽의 변경에 따라 담장이축을 제안하고 있으나 문화재의 진정성 유지(담장이기에 더욱 중요한)에 배치되므로 굳이 이축을 전제로 한 현상변경보다는 필요에 따른 철거 후 등록구간 제외 조정함이 좋겠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변경되는 담장구간은 등록구역에서 제외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2. 국가등록문화재 「산청 단계마을 옛 담장」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산청 단계마을 옛 담장」의 일부를 철거(이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산청 단계마을 옛 담장」의 일부를 철거(이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산청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산청 단계마을 옛 담장」('06.6.19. 등록)
 - 소재지 :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53-9, 등(단계리)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564-6번지 일원
 - ※ 당해문화재
 - 신청내용
 - 1안 : 담장 일부 철거(L=2.8m)
 - 2안 : 담장 일부 철거(L=10.8m), 담장 선형변경 재설치(L=10.8m)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교차로에 위치한 담장으로 인해 운행 차량의 시야방해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사업계획 안에 따라 철거의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논의가 필요함
- 철거로 가결될 경우 이에 따른 등록구역 제외 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마.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2.6.16.) : 문화재위원 ○○○

- 단계마을 옛 담장 중 등록문화재 구간 해체, 이축 계획의 배경 및 근거자료(위험성, 사고사례, 교통량 조사분석 등)와 해체, 이축 후 예상효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자료 제시가 필요함

- 옛 담장의 해체, 이축 대신에 기존 상태에서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보행자난간 등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설치를 통해 교통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통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옛 담장의 일부 구간 해체, 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담장 중 10.8m 구간을 해체, 이축하는 현재 계획 대신에 기존 담장 중 사선 방향 담장 2.8m만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1안으로 추진(담장 일부 L=2.8m 철거)
 - 철거되는 담장구간은 등록구역에서 제외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3. 국가등록문화재 「산청 남사마을 옛 담장」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산청 남사마을 옛 담장」의 일부를 철거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관람객의 관람통로로 이용하기 위해 「산청 남사마을 옛 담장」의 일부를 철거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산청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산청 남사마을 옛 담장」('06.12.4. 등록)
 - 소재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대로 2919번길 13-5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340-7, 264-1, 285-2번지
※ 당해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 신청내용 : 담장 일부 철거(3개소 / L=2.13m, 1.8m, 1.8m)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철거 신청 대상 담장이 도지정문화재 지정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의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2.6.16.) : 문화재위원 ○○○

- 현재 남사마을에서 발생되고 있는 방문객 이동동선의 단절, 우회 등 문제점과 협문 신설의 필요성, 예상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 자료 제시가 필요함
- 이씨고가는 등록문화재 담장 구간에 협문을 신설하는 계획 이전에 기존 남쪽 도로 인도의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여 진입과 이동 동선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양정사 후면 담장과 최씨고가 진입로 담장에 각각 협문을 신설할 경우, 기존 담장 높이가 높아서 협문이 과대화되어 등록문화재 옛 담장 구간의 경관이 변형되고 특히 최씨고가 대문앞 진입공간의 경관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사양정사 후면 담장과 최씨고가 진입로 담장에 출입문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과대화된 협문 보다는 방문객 통과만을 위한 최소 규모, 단순 형식의 출입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신청안은 남사마을 옛 담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출석 10명 / 부결 6명, 보류 4명

4. 국가등록문화재 「대조선독립협회회보」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국가등록문화재 「대조선독립협회회보」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재 「대조선독립협회회보」(소유자:국유)의 보존처리 계획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점	14.5×20.8cm	1896.11. ~1897.8.	국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3) 신청내용 : 「대조선독립협회회보」 보존처리(상세내용 붙임 참조)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12.20.
- 사업대상 :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책 9호(창간호,4,6,7,8,10,13,16,17)
- 사업내용 : 안료 박락 방지, 클리닝, 열화부 및 결손부 메움, 표지 수리

(4) 추진경과

- ('12.10.17.)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16.7.15.) : 관리단체 지정(서울대학교)
- ('20.7.20.) : 정기조사 등급 C(주의관찰)
 - 내지는 양호하나, 표지는 일부 손상된 상태이므로 지속적 관찰 필요
- ('22.2.18.) : 2022년 국유문화재 위탁관리 지원 사업 대상 선정
 - ※ 국유문화재 위탁관리 협약(문화재청-서울대, '16.6.24.) 체결에 따라 당해 선정
- ('22.6.23.) : 대상유물 현지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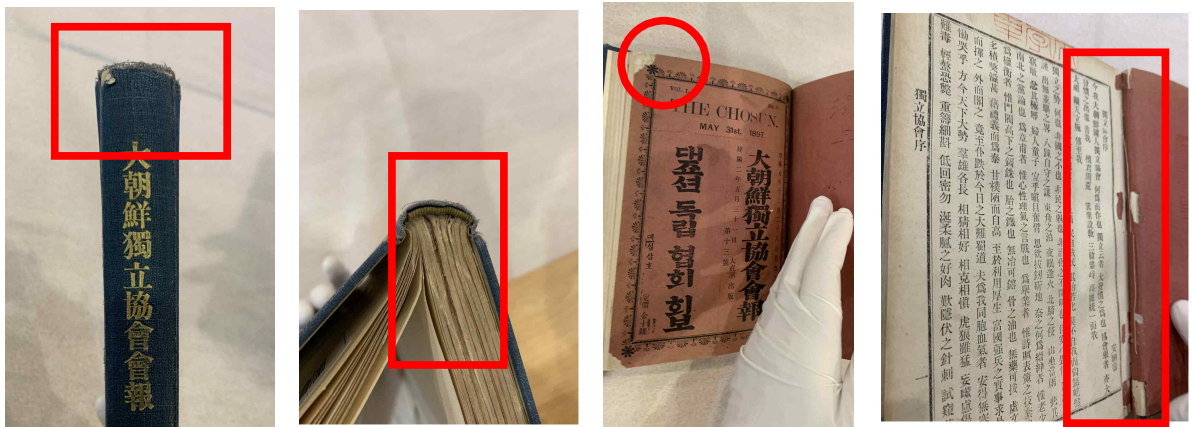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대조선독립협회회보’는 독립협회의 ‘회보’로서 1896년 11월에 창간된 국내 발행 최초의 잡지로 2022년 정기조사 결과 ‘C등급(주의관찰)’이나, 현지조사 결과 산성화, 결손, 오염 등이 확인되어 보존처리가 필요함. ①보존처리 전 상태조사 실시 ②마모된 표지 수리 ③내지 결손부 보강 및 오염물 제거 등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보존처리 시 원형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각 호(총9호)를 분철시에는 문화재 수량 조정이 필요함.
- * 본 신청건은 ‘22년 문화재청-서울대학교 간 국유문화재 위탁관리 지원 대상 사업

마. 현지조사 의견

○ ○ ○ ○ ○ ○ ○ ○ ○ ○ (’22.6.23.)

- 본 유물은 1800년대 말 생산된 신문용지로 재질 특성상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pH 측정 후 탈산 처리 반드시 필요함. 하드커버(남색 직물)로 양장된 상태로 가장자리가 헤져 있고, 장정된 실이 노출되어 있음. 적색 내지는 매우 얇아 가장자리 결손 및 미색 내지 부착되어 훼손이 심하여 보존처리가 필요함.
- 보존처리 전 소독 처리를 실시하고, 처리 완료 후 보관 상자에 넣기 전에는 GAS흡착시트를 삽입하여 산성물질 차단시키도록 함.
- 분철 및 제책시에는 자료조사(사례 조사 등)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원형을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9명, 제척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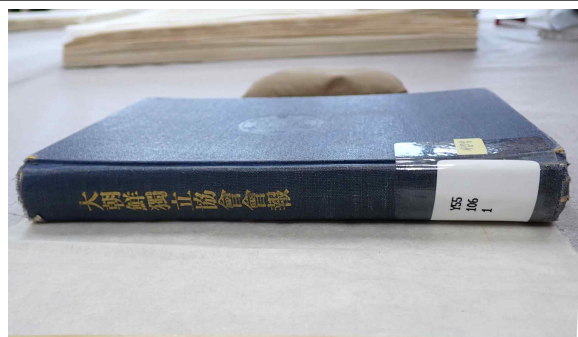
「대조선독립협회회보」 보존처리 계획서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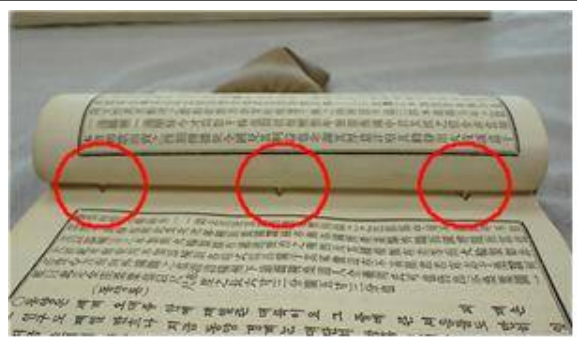
1. 사업명 : 2022년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국가등록문화재 보존처리 사업
2. 대상유물 :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책(1, 4, 6~8, 10, 13, 16~17호)
대조선독립협회회보는 1896년 11월 30일에 창간된 독립협회의 '회보'로서 국내에서 발행된 최초의 잡지이다. 근대문명과 과학지식이 폭넓게 소개되었고, 계몽적 성격이 두드러졌으며, 1897년 8월 폐간될때까지 매월 15일과 말일에 통권 제18호까지 발행되었다. 독립협회의 공식의견이 반영된 잡지로, 이후 발행된 잡지의 모델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독립운동사적, 언론사적 가치가 있다.
3. 사업내용
 - 유물 운반 및 문화재 이동보험
 - 상태조사(사전조사, 문헌 및 자료조사, 두께측정, 산성도 측정, 색도측정, 지질분석)
 - 보존처리(안료 박락 방지, 클리닝, 열화부 및 결손부 메움, 건조 및 표지 수리)
 - 보관상자 (포갑 또는 오동상자)
 - 결과보고서 작성

II 유물현황

1. 하드커버(남색 직물 마운팅)로 제본된 양장본으로 책등에 금장으로 제목이 쓰여 있다.
2. 총9개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뒤에 붉은색 표지가 확인된다.
3. 내지를 펼쳤을 때 3침 장정된 실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 주위로 장정구멍이 추가적으로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상태로 개장하면서 장정구멍을 새로 뚫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표지 직물은 민무늬이고 뒤표지 중심부에 압착방식으로 새긴 인장이 있다. 가장자리 마모로 직물 헤짐이 나타나고 내부판지가 노출되었다.
5. 자료의 관리를 위한 청구기호 및 책정보가 담긴 라벨링 스티커 등 부착물이 확인된다. (인장, 스탬프, 바코드 스티커, 테이프 라벨, 종이 부착물(첨지), 필기(연필, 수성사인펜))
6. 내지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붉은색 표지는 두께가 얇고 지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바스러짐·주름·긁힘·결손·찢김·미색 내지와 부분 고착 등이 확인된다.
7. 미색의 내지는 서구부분 지문 얼룩(손 기름), 갈색 반점(foxing), 충·균해(검정곰팡이, 생물 분비물), 맞닿는 두 장의 고착으로 인한 종이 겹 분리, 책 등 부분 긁힘 및 장정구멍 등이 확인된다.



마모된 모서리와 테이프로 부착된 라벨



3침 장정과 노출된 장정실

		
<p>붉은색 인장</p>	<p>배면 면지에 부착된 첨지</p>	<p>필기매체 사용(수성사인펜)</p>
		
<p>가장자리 결손 및 바스러짐</p>	<p>붉은색 내지의 이면부착 및 주름</p>	
		
<p>책등 부분 꺾임</p>	<p>검정곰팡이와 장정 구멍(3침 이외의 구멍)</p>	<p>이면 고착으로 분리된 종이 겹</p>

III 사업수행과정

1. 과업수행절차

공정	공사내용	비고
1차 자문회의		
사전조사	유물반출	
	사전조사 및 문헌·자료조사	
	상태조사	두께측정, pH측정, 색도측정, 지질분석
2차 자문회의		
클리닝	건식클리닝	
	박락방지	
	이물질 제거	

공정	공사내용	비고
보존처리	열화부 및 결손부 보강	
	탈산처리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 진행예정
표지수리	평판작업	
	압착작업(프레스)	
	책등 수리	
경수	1차 경수	
3차 자문회의		
마무리	상자제작(포갑 또는 오동상자)	
	기록카드 및 넘버링	
보고서 작성 및 납품		

2. 과업 내용

1) 보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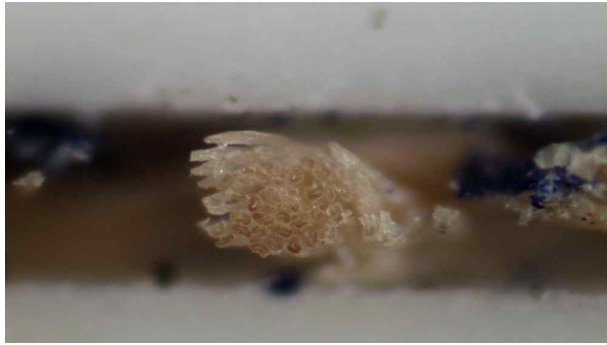
공정 과정	작업내용	중점사항
과학적 조사	▶ 대상자료 확인, 물성조사	재료, 재질, 크기, 형태 등 파악
자료(원형)조사	▶ 문헌 및 자료조사	문헌 및 타 기관 소장의 자료 조사
자문회의	▶ 보존처리 제작과정 점검 및 방향제시	
보존처리	▶ 분석 ▶ 건식클리닝 ▶ 부착물 제거 ▶ 결손부 메움 및 보강 ▶ 표지 및 책등수리 ▶ 보관상자제작	- 대상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맞은 보존처리 방향 선정을 위한 분석 실시. - 인쇄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클리닝 진행. -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료에 알맞은 보수재료 선정 후 보존처리 진행. (재료선정 및 보존처리방향은 수요기관 및 자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반영) - 현상유지원칙에 따른 보존처리 진행.

▶ 자료(원형) 조사

- 문헌 및 자료조사 : 문헌 및 타 기관 소장의 자료 상태를 조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존처리 계획(분책 및 재장정)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분석

- 식물분석 : 표지에 사용된 식물의 섬유소 식별을 위해 현미경(실체, 광학)을 사용하여 조직 형성과 섬유 측면과 단면을 관찰하는 미세조직 분석을 실시하고 특정시약에 대한 섬유의 고유 반응을 확인하는 용해성 분석을 실시하여 섬유를 감별한다.
- 안료분석 : 비파괴 분석이 가능한 p-XRF를 사용하여 인장과 책등 표제 표면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구성성분과 함량을 파악해 사용된 재료를 확인한다.
- 기타 유기물 분석 : 염료, 식물 코팅, 접착제(해체할 경우 책등부분에 사용된 접착제 외) 등 불분명한 유기물 재료 등의 재질 분석을 위하여 적외선 분광(FT-IR)분석을 실시한다.



식물분석- 섬유사 단면부 현미경관찰 (예시)



식물분석- 용해성 섬유관찰 (예시)

▶건식클리닝

자료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의 헤드에 망을 씌워 내지 및 표지의 박리로 인한 편의 일부가 청소기 안으로 흡입되지 않도록 클리닝을 한다. 책등, 책머리 등의 먼지를 제거한다.

섬세한 세척이 필요한 내지는 붓으로 표지의 겉과 안쪽의 먼지를 제거하고 잦은 사용으로 생긴 묵은 먼지는 가루 형태로 만든 폴리바이닐 소재의 지우개 혹은 건식세척 전용 스펀지를 사용한다.(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필기부분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

그리고 붓으로 제거되지 않는 곰팡이는 알콜솜을 사용하여 제거한 뒤 건조한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한 건식 클리닝 예



붓을 사용하여 먼지 제거 예



가루형태의 지우개를 사용한 예



알콜솜으로 곰팡이 클리닝 예

▶부착물 제거

표지 및 내지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지 및 기한표 등은 소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는다.

제거한 부착물은 시료봉투에 담아 보관상자에 넣어 대상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라벨지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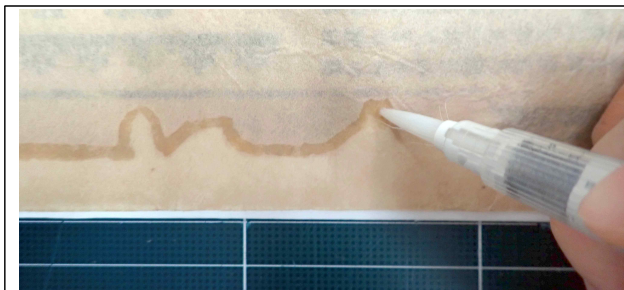


라벨지 및 기한표 제거

▶결손부 메움 및 보강

내지 가장자리의 결손부 메움 재료는 내구성이 높고 중성지인 보수용 한지를 사용할 예정이다. 재료의 선정은 상태조사 결과 물성적 특성 중 내지의 두께 등 유사한 종이로 발선이 없는 무발한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책을 해체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결손부 메움을 진행할 때 뒷장에 수분이 닿지 않도록 투명 필름을 받쳐준다. 그 다음 결실부분의 형태를 보수지에 스케치하여 섬유가 살아있도록 재단한다. 재단한 보수지는 단차에 유의하며 결실부분에 겹쳐 붙여준다.



결손부 트리밍



결손부 메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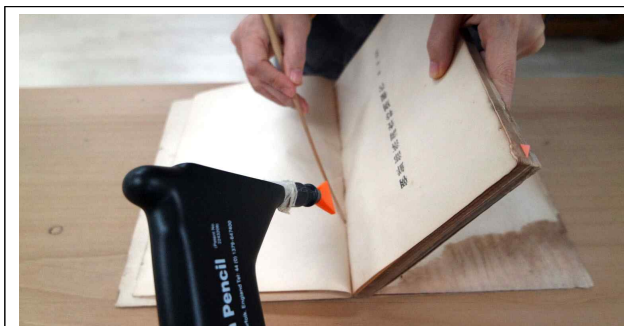


다양한 두께의 보강띠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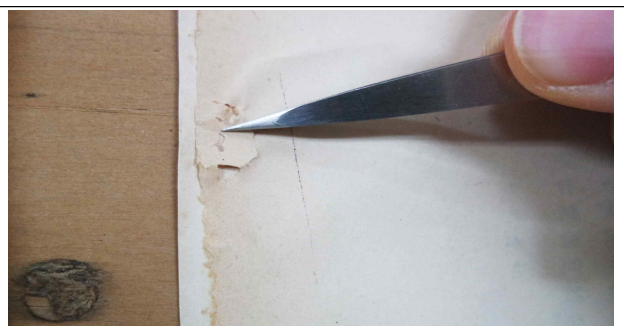


보강띠 부착

맞닿는 간지와 내지의 고착으로 분리된 편(片)은 보존용 펜슬을 사용하여 조각난 편을 내지에서 분리한 뒤 본래 위치로 부착한다.



보존용펜슬을 사용하여 경화된 내지 분리



분리된 편(片) 본래 위치로 부착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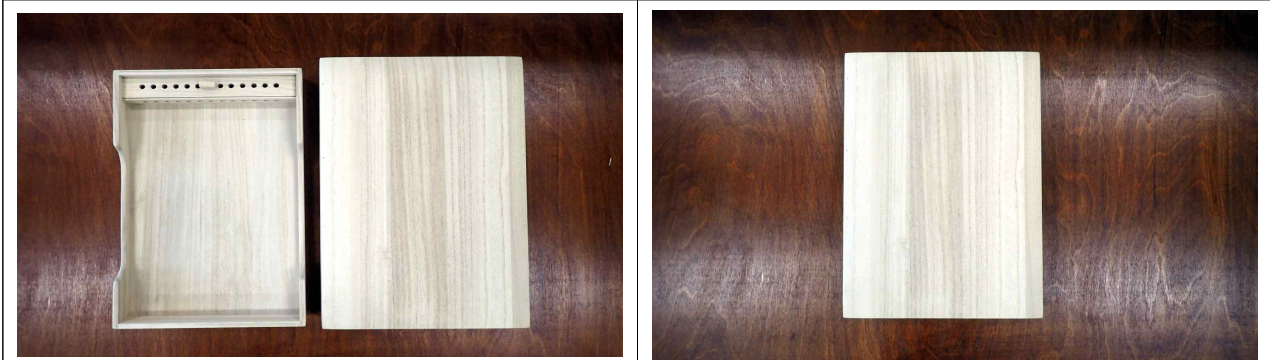
▶ 표지 및 책등 수리

책등을 감싸는 천 혹은 종이가 훼손된 경우 흐트러진 편을 정리한 뒤 제본용 천 또는 복원용 테이프, 한지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벌어진 면을 따라 붙여 보강한다.
 표지의 면지가 찢어지지 않고 느슨해진 경우 바늘 혹은 나무스틱 등 얇은 소도구를 사용하여 접착제를 표지 안쪽에 접착제를 칠하여 부착해준다.



▶ 보관상자제작

두께감이 있는 중성판지로 제작된 보존상자로 영구보존용 도서자료를 보관한다.
 보존상자 중 가장 내구성이 좋고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어 자료보존에 적합하다.



▶ 보고서 작성

대조선독립협회보 보존처리 전·후 상태에 대한 사진촬영, 재질 및 특성 등을 기록하고 처리 과정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한 보고서는 제본된 형태로 제작하여 디지털 파일과 함께 발주처에 제출한다.

IV 사업일정표

공정	작업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전조사	유물반출	■																					
	육안관찰		■	■																			
	처리 전 사진		■	■	■																		
	상태조사(분석)		■	■	■	■																	
자문회의	2차			■																			
클리닝	건식클리닝				■	■	■	■	■														
	박락방지				■	■	■	■	■														
	이물질 제거							■	■	■	■	■											
보존처리	열화부 보강							■	■	■	■	■	■										
	결손부 보강							■	■	■	■	■	■										
건조	평판작업									■	■	■	■	■	■								
	압착작업(프레스)									■	■	■	■	■	■								
	외곽선 정리														■	■	■	■					
검수	1차														■	■	■	■					
자문회의	3차																			■			
마무리	상자제작									■	■	■	■	■	■	■	■	■	■	■			
	보고서작성																			■	■	■	■
납품																							■

v 자문회의

▶ 개요

1. 일시 : 2022.6.15. 14:00
2. 장소 : (주)엔가드(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71번지)
3. 자문위원
 - ○○○○○○ ○○○○
 - ○○○○○○○○○○ ○○○○
 - ○○○○○○ ○○○○
4. 자문내용 : 대조선독립협회회 현상변경 심의를 위한 보존처리 계획 검토

▶ 자문결과

대조선독립협회회보의 보존처리 계획수립은 지류문화재 보존처리 원칙과 과정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존처리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유물의 현 양장제본은 과거 도서관에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원형이 변형된 상태이므로 전면 해체하여 보존처리 한다.

2. 지질분석은 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붉은 표지, 내지)에서 소량의 섬유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3. 보수재료는 보존처리계획 수립 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선정하며 기술자문회의와 소장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4. 섬유질의 이탈 및 인쇄매체 특성을 반영하여 번짐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습식클리닝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5. 보관방법은 소장처의 주장 및 보존환경 확인 후 보존처리 중 기술자문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유네스코회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유네스코회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2.4.26.)를 거쳐 등록 예고한 「유네스코회관」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유네스코회관
 - 소재지 : 서울 중구 명동길 26
 - 소유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67년 * 건축물 대장상 준공년도 및 사용승인일 기준
 -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주, 지상 13층, 지하 1층, 건축면적 1,152.23㎡ 연면적 13,367.1㎡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08.7.25.)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 → 문화재청)
 - ('09.11.3.)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09.12.3.)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부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불부합(50년 미경과)
 - ('21.4.2.)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 → 문화재청)
 - ('21.11.16.)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2.2.22.) 제2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보류'
 - 근·현대 건축·시설(건축가 작품) 재평가 결과 등 유사 사례 비교 검토 후 재논의
 - ('22.4.18.) 근현대 건축 시설물(건축가 작품) 가치 재평가 회의 개최
 - ('22.4.26.)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등록검토 '원안가결'
- (5) 등록예고 : '22.5.11. ~ 6.9. (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유네스코회관은 대한민국의 교육, 과학, 문화활동의 산실로 각종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근대기 한국사회의 국제 활동의 거점으로서 역사적 가치와 이와 유사한 고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등록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2.4.26.)를 거친 등록예고 기간('22.5.11~6.9.) 중 이견이 없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문화재위원 ○○○('21.11.16.)

- (상징적 가치) 유네스코회관은 독립신생국가였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전개를 위한 매개체이자 기회를 제공한 곳으로, 유네스코 정신의 발현 장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알리는 통로로 사용된(중인) 건축물임
- (건축기술적 가치) 유네스코회관은 1950년~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현대건축기법을 적용한 초기 건축물이며, 당시 설계안과 도면들이 확보되어 있음
 - 당시로는 매우 희소했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온통기초 포함)를 선택하여 내부공간의 유연성, 즉 업무, 상업, 문화의 기능이 포괄하는 복합건축물로 탄생됨. 또한 미학적인 디테일이 뛰어난 노출콘크리트 면 처리,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 등은 당시엔 보기 드문 건축기술로 평가됨
- (미래유산적 가치) 유네스코회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에 탄생된 복합 문화시설로서,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유네스코 정신을 실현하는 구심체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유네스코회관은 인근의 명동성당 가톨릭회관과 함께 1960년대의 건축기법과 건축재료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유네스코회관은 서울 도심문화의 산실인 명동 경관 및 기억의 구심체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유네스코회관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 ○○○('21.11.16.)

- 근대기 한국건축은 1960년대 경제성장기에 이르러 다양한 용도를 지닌 대규모 건축물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외국 건축기술의 유입과 함께 기술적 발전을 이룩하는 건축공법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유네스코 회관에는 이와 같은 근대기 한국 업무시설이 갖는 특성들이 현존하고 있음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근·현대기 조성된 대형 건축물의 경우 문화재지정 혹은 등록과정에 있어 기존과 동일한 가치평가 방법과 범위 지정보다는 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시기 비교대상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지정 및 등록범위, 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21.11.16.)

- 유네스코 회관이 가지는 건축적 특성, 장소로서의 가치, 문화적 맥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유네스코 회관은 고층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기존 등록문화재와 비교하였을 때 규모나 구법의 측면에서 그 성격이 상이하고, 그 물리적 가치를 판별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될 만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인 복원, 보존,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한 적을 것으로 추정됨
- 유네스코 회관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면, 고층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는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이는 추후 고층건축물 또는 현대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함에 있어 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등록문화재 지정에 앞서 비슷한 시기, 비슷한 구법이 사용된 다른 건물들에 대한 기초연구(전수조사 및 목록화, 유형분류, 구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등)를 수행하여, 유사 사례들이 가지는 가치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회관은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거대규모의 건축물로 외관의 복원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건축물의 어떤 부분에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선택적인 유지보수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9명, 제척 1명

<붙임1>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유네스코회관
2. 용 도 : (현) 사무실, 관람집회시설, 점포, 근생시설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
4. 소유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 시설물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13,367.1㎡
6. 조사자 의견('21.11.16.)

<문화재위원 ○○○>

1) 개요

-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14일 제5차 유네스코총회(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제5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승인된 것은 독립 신생국가로서 매우 대단한 일이었음.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엔의 주요 전문기구의 회원국이 되어 국제무대에서 활동이 가능해졌음. 연이어 발생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유네스코의 다양한 지원 가운데 대한민국의 재건이 가능할 수 있었음
- 1954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창립총회에서 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논의됨
- 위원회는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1959년 6월 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의 배기형의 커튼월 공법을 도입한 계획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함(구조사 사내 경쟁을 통해 윤도근의 안을 바탕으로 출품)
- 1966년 12월 20일에 공사를 완공한 유네스코회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이며, 금융, 상업, 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가진 대형건축물로서 대한민국 근대건축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유네스코회관은 1960년대부터 명동성당과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전 명동성모병원) 등과 함께 명동의 근대적인 가로경관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



유네스코회관 현상설계 당선작(투시도)
©목천김정식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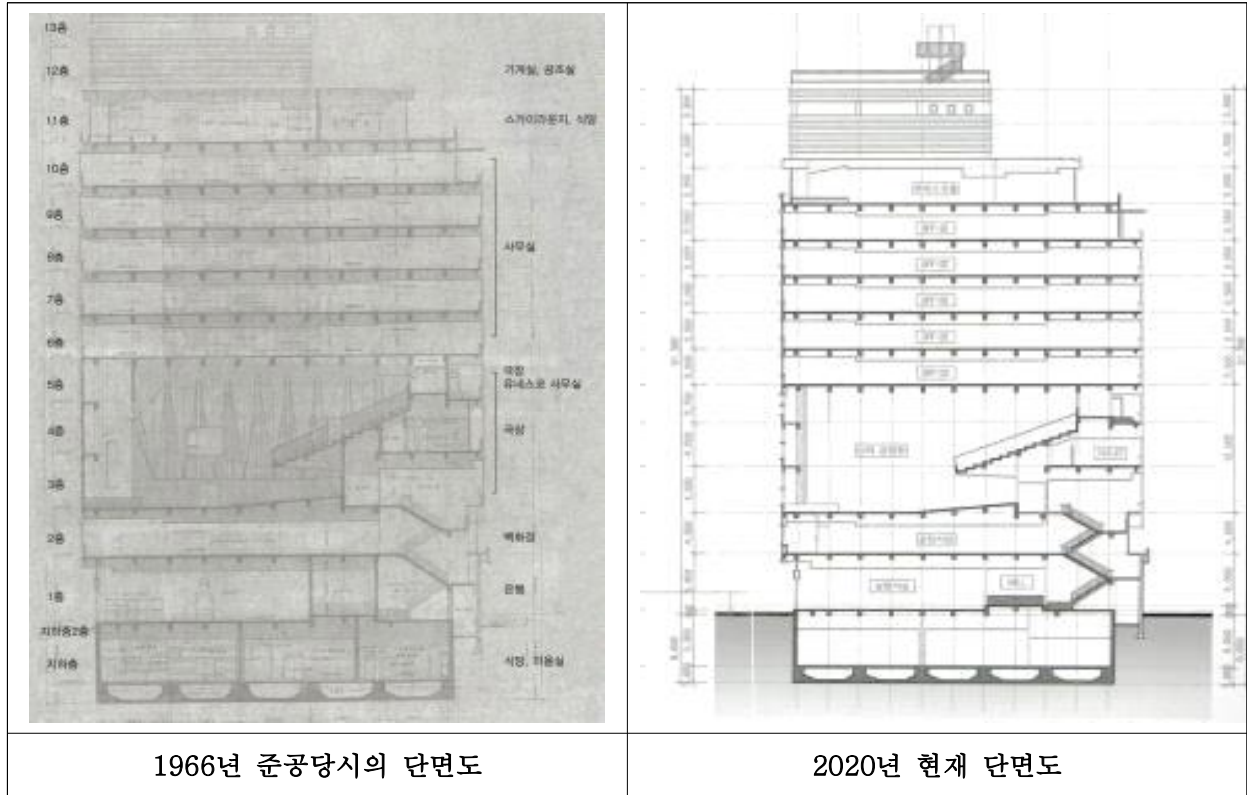


현재의 유네스코회관
©yd-donga

2) 건축 등 양식 및 주요 특징 (각종 기존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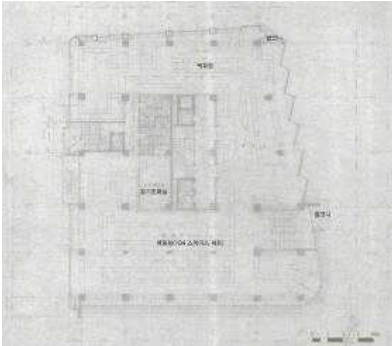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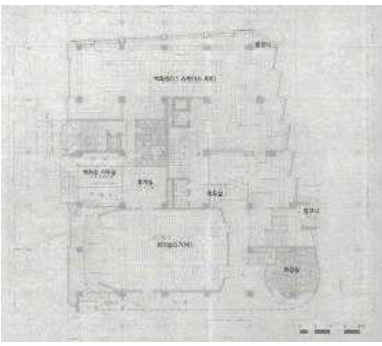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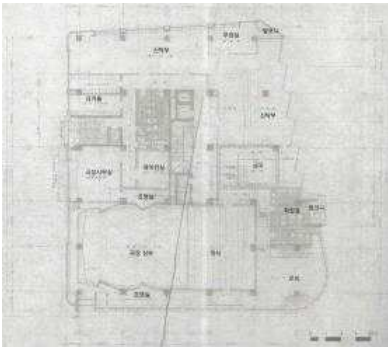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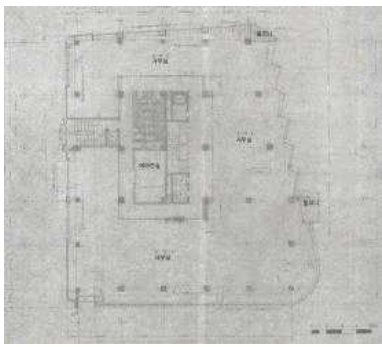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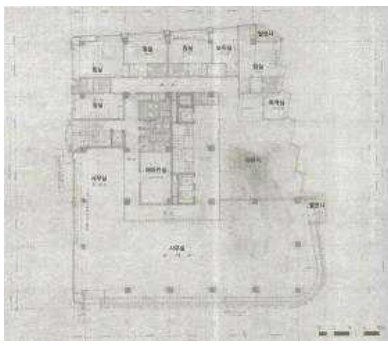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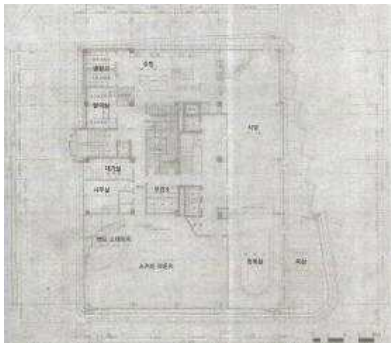

○ 유네스코회관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지하 1층, 지상 10층(11층은 스카이라운지 및 식당) / 연면적 약 9,240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이며, 온통기초 위에 독립기둥을 5,800mmx7,200mm(기본 모듈) 간격으로 배치
 - 중심부에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 2대, 화장실)를 설치하여 기본골격 구성
- 외장 : 커튼월 공법



○ 특이점 : 평면 구성

- 1959년 당선작과 1966년 준공당시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층 평면 및 기능 구성의 변화임. 원래 좁은 골목길에 면한 서측 진입을 주출입으로 하고, 옥외공지를 두어 보다 여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1966년 준공과 함께 1층에는 (한일)은행의 외국부와 영업실이 배치되었고, 이에 서측 출입구는 은행 출입구로 사용됨. 따라서 명동길에 접한 북측 출입구가 주출입구로 변경되었고, 서측부의 옥외공지계획 또한 취소됨
- 1966년 준공 당시, 지상 3층부터 5층를 통합한 (국제)회의실이 배치되었고, 현재에도 (난타)공연장으로 사용 중에 있음
- 1959년 현상설계 당선작에 옥상정원이 기획되었던 바, 2000년대 들어 옥상정원을 실현하여 현재에 이룸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0층	11층	지하층

		
<p>1층</p>	<p>2층</p>	<p>3층</p>
		
<p>4층</p>	<p>5층</p>	<p>6층</p>
		
<p>10층</p>	<p>11층</p>	<p>지하층</p>

○ 특이점 : 입면 구성

- 명동의 중심가로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다소 육중한 랜드마크적인 건물 규모와 입면 구성이 채택된 것으로 사료됨
- 외벽에 다양한 재료(화강석, 유리, 알루미늄, 철, 콘크리트 등) 도입을 기본으로, 재료 분리와 요철 등을 통한 수직 분절 기법을 도입하는 등 주변 환경에 비해 특이한 가로 분위기를 형성함
- 특히, 1960년대 당시 매우 생소했던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을 북측 전면에 적용하고, 남대문로에서 명동길로 연결되는 조망성을 고려하여 북측에서 서측으로 만곡되는 입면 구성을 도입함. 서측에는 노출콘크리트와 유리블록을 적용시켜 투명성과 불투명성의 대조미와 점, 선, 면 패턴의 조화미가 뛰어난 입면 구성을 취함



북.서측 입면의 구성



입면 구성 및 실내에 도입된 건축 요소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77년 유네스코 11층 회의실 장치공사((주)공간연구소)를 시작으로 1983년 4층~11층 방재시설 개수공사(㈜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1992년 3층~5층 회의실 용도변경(종합건축사사무소 다에건축), 1990년대 회관 외장마감 변경 대수선공사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1999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명동 이전공사(㈜풍진아이디), 2000년 2층 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 센터) 조성(㈜건축사사무소 堂建築), 2001년 11층 재건축 신축공사(종합건축사사무소 築), 2001년 유네스코회관 정밀 안전진단, 2008년 유네스코회관 대수선 공사(종합건축사사무소 都圖) 외에 두 차례의 보일러 교체 및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부분 수리공사가 시행됨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이전과 (국제)회의장의 기능 변화 등에 따라 몇 차례 층별 및 용도 변경(부분) 등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1966년 준공 당시의 체계가 보존되어 온 것으로 평가됨. 다만 1994년에 서측면 외부마감이 수성페인트에서 스톤 코트로 변경된 이력이 있으며, 북측면에 표현되었던 ‘ㄷ’자 캔틸레버 프레임(cast stone)의 일부가 2010년대에 훼손된 것이 원형과의 차이로 파악됨
- 2000년대 들어 시행된 옥상생태공원 조성은 유네스코회관의 원래 설계 개념을 구현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2002년 옥상부의 재축 공사가 시행됨. 현재 옥상부의 방수와 관련된 누수 현상이 부분적으로 확인됨



옥상생태공원 전경 .서측 입면의 구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과 주변 환경

- 1966년 준공 당시의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보존되어 있고, 수리 이력에 대한 기록도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있어 추후 보존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파악됨



1966년 준공 당시 서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네스코회관은 현재 명동의 보행환경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명동길을 중심으로 명동예술극장과 대각선으로 마주하고 있으며, 명동성당과 가톨릭회관(구 명동성모병원) 등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집결지에 자리하고 있음

- 또한 1990년대 이전에 조성된 미래유산적인 가치를 가진 건축물들이 20여 곳에 현존하고 있어, 지구차원에서의 보존 환경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문화재적 관점에서의 유네스코회관의 활용은 현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파악됨
 - 1) 유네스코관련 문화 활동의 중심체로서의 활용
 - 현재 유네스코회관 내의 국제적인 문화관련 기관(시설)은 다음과 같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주한헝가리문화원, 한예중명동캠퍼스, 난타공연장 등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7년 2월에 입주하여 1974년부터 건물을 관리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5층, 6층, 8층, 9층, 11층의 일부와 10, 11층의 전체 공간을 사용 중에 있음
 - 7층과 8층에는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유네스코협회연맹, 주한헝가리문화원, 한예중 명동캠퍼스 등이 입주하여 있으며, 위원회는 국제문화활동의 주체들의 입주를 보다 늘려갈 계획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문화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됨
 - 2) 다양한 시민참여의 공간 활용
 - 유네스코회관에서 시민들은 옥상정원과 11층 각종 부대시설(유네스코홀, 유네스코 라운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외 추후 근현대 지역사와 관련된 명동의 핵심체로서의 활용적 잠재력도 큰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1960년대 준공된 커튼월 공법이 적용된 건물로는 명동성당 가톨릭회관(1961년),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별관(1962년) 등이 있으며, 1970년대에는 삼일빌딩이 있음
- 이러한 건축물들과 함께, 유네스코회관은 1960년대 명동의 경관 및 우리나라 현대 건축의 새로운 길을 연 건축물로 판단됨

7) 등록 가치에 대한 의견

- 상징적 가치
 - 유네스코회관은 독립신생국가였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전개를 위한 매개체이자 기회를 제공한 곳으로, 유네스코 정신의 발현 장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알리는 통로로 사용된(중인) 건축물임
- 건축기술적 가치
 - 유네스코회관은 1950년~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현대건축기법을 적용한 초기 건축물이며, 당시 설계안과 도면들이 확보되어 있음
 - 당시로는 매우 희소했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온통기초 포함)를 선택하여 내부공간의 유연성, 즉 업무, 상업, 문화의 기능이 포괄하는 복합건축물로 탄생됨. 또한 미학적인 디테일이 뛰어난 노출콘크리트 면 처리,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 등은 당시엔 보기 드문 건축기술로 평가됨
- 미래유산적 가치
 - 유네스코회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에 탄생된 복합문화시설로서,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유네스코 정신을 실현하는 구심체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유네스코회관은 인근의 명동성당 가톨릭회관과 함께 1960년대의 건축기법과 건축재료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유네스코회관은 서울 도심문화의 산실인 명동 경관 및 기억의 구심체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유네스코회관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 ○○○>

1) 개요

- 1959년 6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배기형(1917-1979)의 계획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함.
- 1959년 4월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약 9,240㎡ 규모로 공사에 착공하여 1962년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1964년까지 중단됨.
- 1965년 부동산관리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용자받아(한일은행 건물관리 겸 운영권) 설계변경을 거쳐 1966년 4월 공사를 재개하여 12월 20일 준공함.
- 준공 당시 지하1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하에는 식당과 기계실, 지상 1층과 2층은 은행과 점포, 3층과 4층은 극장과 사무실, 5층은 사무실, 6층은 사무실과 호텔, 7층부터 10층까지 호텔, 11층은 연회장, 12층은 기계실, 13층은 물 탱크실을 수용함.

2)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현황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1345.8 m ²	
건축규모	지하 1층/지상 1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1,152.23m ²	
연면적	13,367.1m ²	

3) 건축물 연혁표

연도	내용
1959. 4. 11.	유네스코회관 기공식 개최
1959. 6. 3.7.	유네스코회관 설계도 현상모집(최종 당선작: 구조사/배기형)
1962. 7. 24.	상량식 개최
1967. 2. 17.	준공기념식 개최
1967. 7. 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회관 소유권 취득(등기)
1974. 1.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회관 관리 시작
1978. 12. 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회관 토지 매입 및 소유권 취득
1997. 12. 27.	유네스코회관 11층 화재 및 전소
2008. 5.	중구청에 유네스코회관 대수선(지하1층~지상1층 주계단 위치 변경) 공사 신고
2008. 7. 2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유네스코회관의 등록문화재 등록심의 -심의결과: 일부 개축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외부 모두 건축 당시의 원형이 잘 남아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 있음.
2008. 7. 25.	서울특별시, 문화재청에 유네스코회관의 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요청
2009. 12. 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심의결과: 50년 미경과로 문화재 등록부결
2014. 12. 31.	서울특별시, 유네스코회관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
2012. 3. 25.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등록 심의

4)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내용 참고)

① 계획 및 설계자

- 본 건물의 설계는 1959년 6월 실시된 현상설계공모에서 건축기술연구소 배기형 (1917-1979) 계획안이 당선되었으며. 이후 기본설계에 건축가 윤도근이 참여하였으며, 실시설계에는 장종률, 김현석, 김창서, 구조설계를 함성권이 진행하는 등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에 관여한 기술인의 확인이 가능함.

② 구조 및 내부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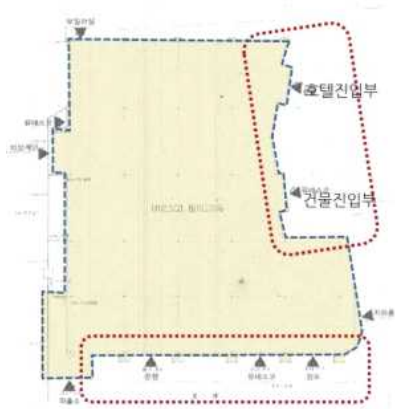
- 근대기 전형적인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 구조**: 온통기초 위에 독립기둥 형식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근대기 업무시설 건축물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기본 모듈-5,800mmx7,200mm 1,000mm~1,700mm, 캔틸레버 구조를 통한 공간 확보 등.: 자유로운 입면구성)
- **실별 기능에 따른 외부 진입동선 분리**: 지하식당 외부계단을 통해 외부연결, 중앙의 주출입구, 극장 및 백화점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은행으로 진입되는 출입구로 분리.
- **대회의실의 공간 구성**: 지상 3, 4, 5층을 대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극장식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3층과 중 2층에 객석을 배치하였으며, 주변으로 회의실과 관련된 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효율적인 임대 사무공간과 휴게공간의 구성**: 지상 6층-9층 임대 사무공간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7층을 사용하였으며, 10층 사무실과 라운지, 11층 스카이라운지, 연회실, 식당이 위치하여 옥상 외부공간과 연결함.

③ 내·외부 마감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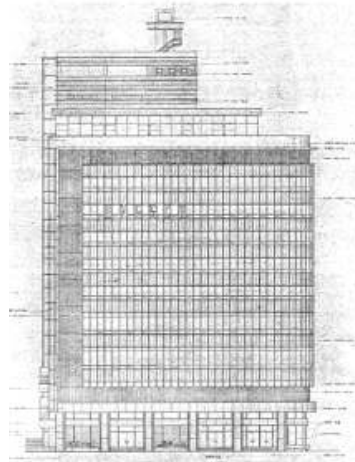
- 각 실별 바닥의 아스타일, 화강석 및 현장 테라조(인조석 물갈기) 마감, 실 기능에 따른 음향판, 대리석, 무늬 코트, 천정은 텍스마감재와 무늬코트 내부마감 등 근대기 다양한 건축마감 재료의 시공 및 사용상태 확인이 가능함.
- 외부 벽체는 플라스터 위 페인트이며, 북측면 알루미늄 커튼월의 멀리언(mulion) 부재 및 이중유리(Pair Glass)의 원형 확인이 가능함.

④ 형태 및 외부입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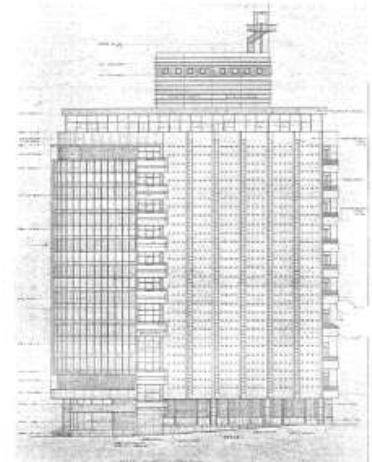
- 유네스코 회관의 육중한 볼륨을 화강석, 유리, 알루미늄, 철, 콘크리트 등 다양한 외벽 재료사용과 재료분리 및 요철을 통해 수직적 형태를 구성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근대기 디자인 수법을 확인 할 수 있음. 또한 북측 전면에 사용한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에는 굽은 멀리언을 사용하는 등 첨단 제작기법이 적용되어 근대기 건축기술을 확인할 수 있음.



(1) 1962~1968년 설계 초안 배치도
1962년 설계초기 진출입 계획



1966년 준공당시 북측입면



1966년 준공당시 서측입면

5)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붙임자료 3.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 참고)

- (유네스코 회관의 형태 및 외부입면) 건축물의 형태는 1966년 준공 당시와 같이 보존되고 있으나, 서측면 외부마감은 1994년 스톤 코트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일부 캔틸레버 프레임(cast stone)이 훼손되었음.
- (유네스코 회관의 내부와 공간) 60여년의 사용기간 동안 내부공간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1967년 2월에 입주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한 1974년부터는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5층, 6층, 8층, 9층, 11층의 일부와 10, 11층의 전체 공간을 사용하고 있음.
- 주요 수리공사 이력
 - 1977년 11층 회의실 공사
 - 1983년 4층~11층 방재시설 개수공사
 - 1994년 유네스코회관 서측 외장마감 변경 대수선 공사
 - 1999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층, 10층 이전 공사
 - 2000년 2층 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센터) 신축공사
 - 2001년 11층 재건축 공사
 - 2001년 회관 정밀 안전진단
 - 2008년 지하1층~지상1층 계단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
 - 2012~2013년 보일러 교체공사
 - 2017년 9, 10층 사무공간 재구획, 후문 진입로 보수공사
 - 2017년 유네스코회관 자산관리실사
 - 2018년 냉동기 교체공사, 회관 전기설비 보수공사, 난방배관 교체공사, 내부 공용공간 도장 등 정비공사, 간판 교체공사

6)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① 문화재 활용계획

○ 공간 관리와 활용계획

- (유네스코회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회복) 상업공간으로 임대하는 공간을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비율로 조정하고 유네스코 활동과 연관되는 단체나 활동을 담는 공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현재 유네스코협회연맹, 2019년 주한헝가리문화원,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입주)
- (건물 구조 안전 및 환경 성능 개선) 구조 안전 진단 후 구조 성능을 향상하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여 전체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중임.
- (건물 외부공간 및 외관 정비) 명동파출소와 인접한 회관 동쪽 공간을 조정 예정으로 향후 벽면 및 실외기 등을 정비하고, 벽면을 활용하여 유네스코의 활동을 홍보하고 공공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임.

○ 명동 장소 만들기 계획

- 명동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명동 지역 여러 관리 주체들 간의 포럼(가칭 명동포럼)을 운영하는 등 논의의 장 마련 예정임.

② 유지 관리 및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

- 임시로 보수하였던 훼손된 벽면을 원 벽면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면적 보수가 필요하며, 구조정밀진단 시 비구조물 진단 병행하여 커튼월의 부재를 점검하고 필요시 건립 당시의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수·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전기실 및 기관실 개선, 건물 외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중 창호 설치,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기 사용하던 설비기기(원형)를 보존하며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준공 당시의 회관 청사진 도면 및 시방서 등을 기록물로 등록하는 건축관련 서류를 영구 보존하고 연구 및 전시에 활용하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건물 보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7)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문화재보존 여건) 1967년 2월에 입주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1974년부터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하여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문화재주변 환경) 명동성당(1898), 명동예술극장(1936), 메트로호텔(1960), 카톨릭회관(1962), 쌍용빌딩(1962) 등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기 도심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변 환경은 양호함.

8)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①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 (등록문화재 934건 중 업무시설 등록문화재 81건)

- 기 등록된 등록문화재 중 업무시설은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을 비롯하여 등록문화재 934건 중 81건이며,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건립된 문화재임. 해방이후 건립된 업무시설로는 경기도청사 구관, 구) 수원시청사를 비롯한 16건으로 추정되나 은행, 공공기관의 업무시설을 제외하고 해방이후 민간에 의해 건립된 업무시설로 등록된 사례는 없음.

②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수원시청사: 한국전쟁 이후 건립된 관공서 업무시설로 서양의 기능주의 건축에 영향을 받아 정면을 강조한 입면구성과 장식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음.(2층, 연면적 662㎡규모)
- 경기도청사 구관: 1963년 경기도청 수원이전 결정으로 설계 및 시공을 거쳐 1967년 6월에 준공됨. 동 시기 전국적으로 관공서 청사건축 붐이 있었으며 경기도청사 구관은 그 전형(典型)적인 예로 설계자는 김희춘, 나상진임.
 - (1960년대 모더니즘 디자인 특성) 옥상의 외벽 및 파라펫 처리 등 브루탈리즘 건축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을 강조한 전형적인 업무시설의 입면구성을 갖고 있음.
 - ‘ㄱ’자형 건물 배치로 인한 중정, 2층 각 사무실의 베란다 겸 외부복도 설치기법은 근대기 업무시설 디자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노출 콘크리트와 테라코타로 외벽을 장식한 디테일은 당시 건축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대표적인 외부재료임.

9)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유산의 완전성(Integrity, 유산의 가치 입증 여부) 확보

- (근대기 한국사회의 국제적 활동과 역사적 가치) 유네스코 정신 구현의 증거로 유네스코회관은 건립 이후 대한민국 국제 활동의 발원지로 유관단체 및 활동을 적극 지원 수용해 왔으며, 근대기 한국의 교육 및 과학 문화 활동의 산실로 각종 국제회의 및 관련 세미나 등 학술활동 및 문화공연 등 문화적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음.

- (물리적 재질이 갖는 특징의 상태): 콘크리트 구조체의 안전성과 외부 Curtain wall, 건물형태 및 조형 요소는 본 유산이 갖는 물질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음.
- (문화경관, 근대도시의 관계성과 기능) 명동성당(1898), 명동예술극장(1936), 메트로호텔(1960), 카톨릭회관(1962), 쌍용빌딩(1962) 등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적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주변 개발 또는 방치로 인한 영향)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문화적 명동지역 살리기를 통해 명동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하기 위한 관리 주체들 간의 포럼(가칭 명동포럼) 운영계획을 갖고 있음.
-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증명하는 적정 규모) 본 건물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관련 도면 및 시방서와 공사과정에 대한 각종 기록 등이 온전히 남아있어 본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유산임.

○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및 기법 등 가치보유 여부) 유지

- (형태와 디자인(Form and Design)) 유네스코 회관에는 20세기 중반 한국 근대건축의 성장기 나타나는 기술적, 조형적 특성이 잘 남아 있으며, 외부형태 디자인 기법과 회관 전면에 적용된 외부 Curtain wall 등의 조형적 기술적 가치가 높음.
- (재료와 물질(Materials and Substance)) 1960년대 철근콘크리트 구조(라멘조)기술을 사용한 고층 업무시설로 당시 한국건축의 시공기술과 다양하게 사용된 건축재료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음.
- (용도와 기능(Use and Function)) 주 출입구 및 로비 공간, 3-5층 문화시설의 공간과 구조 및 나선계단, 준공시 설치되었던 기계실의 보일러 등은 동 시기 건축의 기술적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용도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증거임.



강당구조



강당 돌음계단



옥상정원



강당내부



기계실 보일러

※ 종합의견

- ① 근대기 한국건축은 1960년대 경제성장기에 이르러 다양한 용도를 지닌 대규모 건축물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외국 건축기술의 유입과 함께 기술적 발전을 이룩하는 건축공법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유네스코 회관에는 이와 같은 근대기 한국 업무시설이 갖는 특성들이 현존하고 있음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② 근, 현대기 조성된 대형 건축물의 경우 문화재지정 혹은 등록과정에 있어 기존과 동일한 가치평가 방법과 범위 지정보다는 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시기 비교대상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지정 및 등록범위, 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준공당시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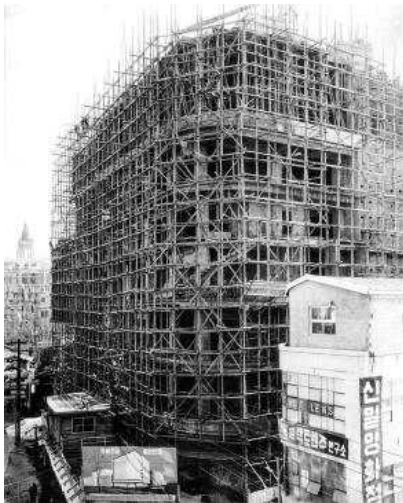
건축전경



커튼월



건축구조



공사중 기록



건축허가서



건축시방서

※ 보존가치와 부분에 대한 의견

- ① 해방이후 한국 근대건축의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1959년 설계되고 1966년 준공된 건축물로 업무, 상업, 문화 등 복합기능이 담긴 유네스코 회관의 내부공간 구성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술을 통한 내부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한 결과로 물질적 기술적 특성을 보여주는 공간과 장소임. (이를 탁월하게 입증하고 있는 공간, 장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존부분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 ② 유네스코 회관에 사용된 노출콘크리트의 면처리,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 등은 당시 보기 드물게 적용되었던 근대기 건축기술로 근대기 한국건축 기술과 업무시설이 갖는 조형적 특성을 갖는 외부 입면부.
- ③ 유네스코 회관은 가톨릭회관의 설계자인 김정수와 함께 196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의 작품인 동시에, 근대기 한국건축의 설계기법 및 구법, 재료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인 관련도면 및 시방서, 공사 관련자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① 등록대상과 범위 문제

- 유네스코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13층, 건축면적 1,152.23㎡/ 연면적 13,367.1㎡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근대기 업무시설로 기 등록된 등록문화재와 비교할 때 평균적 규모를 초월하는 대형유산이다. 또한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증명하고 향후 문화재로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범위와 적정 규모를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 최근 근현대 건축·시설(건축가 작품) 재평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이들 유산 중에는 유네스코 회관과 유사한 대형 업무시설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이들 근대기 대형 업무시설 유산의 등록 및 문화재로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임.
- 그러므로 유네스코회관의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특성을 참고하고 이를 입증하고 있는 공간, 장소에 대한 조사 후 해당 범위를 설정하고 유산 내 별도의 보존구역(장소, 공간, 구조, 디자인 등)을 지정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전문위원 김정현>

1) 개요

- 유네스코 회관은 1959년 현상모집 당선작으로 설계되어 1966년 완공된 건축물로 당시의 실험적 시도와 조형성을 간직하고 있음. 건립 이후 국제회의 및 세미나, 교육, 대중문화 활동을 수용하는 장소로 기능하였음
- 2010년 유네스코 회관 앞 도로의 명칭이 ‘유네스코길’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에는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것에서 본 건물의 랜드마크로서의 지위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음
- 1991년 유엔에 가입하기 전까지 유네스코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의 위상을 가짐. 유네스코가 다루고 있는 과학, 교육, 문화 분야의 사업은 대중적인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한국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원조를 받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네스코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호의적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0층 이상으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고층 건축물이었음. 준공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알루미늄 커튼월’ 건물로 평가받았음. 국내 건축가가 설계하고, 국내 자본으로 지어진 고층 건축물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 철근 콘크리트조에 커튼월이라는 현대건축물의 가장 전형적인 구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업무시설 뿐 아니라, 대형 회의장, 로비 등을 갖추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회관의 출입구와 로비가 있었던 1층 공간이 은행과 상업공간으로 임대되면서 변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유네스코 회관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복합상업시설의 인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사무실, 상업시설, 공연장 임대로 인한 내부 공간 변형 뿐 아니라 증개축 등 노후화에 따라 몇 차례 대수선이 이루어졌음.

- 1997년 12월 11층 화재로 기둥과 지붕이 손상되기도 함.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마감재 및 세부 구조 변형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 내부공간의 변형에 비해 건물 외부는 잘 유지되고 있어 유네스코 회관의 랜드마크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 등글러진 형태와 알루미늄 커튼월, 서측면의 분할된 콘크리트 매스 등 원래의 조형과 마감재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업무, 교육, 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의해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건축물의 설계도면, 청사진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점은 향후 건축물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며, 자료 자체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대건축물로서 다양한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리노베이션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변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임대시설 중 상업시설의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입주를 늘리는 것과 주변의 역사 자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운영을 두 가지 활용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있음. 저층부 상업시설 입주 시에도 전체 건축물의 계획도와 상충되지 않는 입면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원 계획안을 참고하여 입구나 로비 부분의 계획의도를 되살리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시민학교’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함. 국립극장, 명동성당 등 인근의 근대 건축물 및 명동 거리의 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활용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아직까지 이 시기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으나, 서울미래자산으로 선정된 사례들이 있음. 해방이후 건립된 ‘1세대’ 고층 건축물들과 함께 검토되어야 함. 1960년대 중반이후 업무시설, 은행, 호텔 등이 고층으로 건설되기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H형빔(wide flange)을 사용한 철골구조가 도입되기 이전의 건축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사용되었음
- 유네스코 회관이 위치한 명동 일대는 서울의 중심가로서 60년대 중반 고층의 은행본점 사옥이 집중적으로 들어섰던 장소임. 개관 당시 1층은 국제은행으로 계획되었으며, 대규모 회의장, 숙박시설(호텔)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복합시설’로 보아야하고, 주로 업무시설로 사용되었던 비슷한 시기 다른 고층건물과 차별성을 가짐
- 1960년대 은행본점 빌딩으로는 상업은행 본점(1965 준공, 지하 2층, 지상 12층), 조흥은행 본점(1966 준공, 지하 1층, 지상 15층)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공법이나 재료 면에서는 등록문화재인 한국전력 본관(구 경성전기주식회사, 1928) 뒤편의 별관(1962~1964, 정인국 설계, 9층)이 알루미늄 새시 커튼월과 유리블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회관과 비교할만한 사례임.
- 동일시기 철근 콘크리트 조, 커튼월 공법 등이 처음 도입되었고, 당시 공법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가치 검토가 필요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유네스코 회관이 가지는 건축적 특성, 장소로서의 가치, 문화적 맥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유네스코 회관은 고층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기존 등록문화재와 비교하였을 때 규모나 구법의 측면에서 그 성격이 상이하고, 그 물리적 가치를 판별하는데 있어 근거가 될 만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인 복원, 보존,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한 적을 것으로 추정됨
- 유네스코 회관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면, 고층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는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이는 추후 고층건축물 또는 현대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함에 있어 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등록문화재 지정에 앞서 비슷한 시기, 비슷한 구법이 사용된 다른 건물들에 대한 기초연구(전수조사 및 목록화, 유형분류, 구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등)를 수행하여, 유사 사례들이 가지는 가치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회관은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거대규모의 건축물로 외관의 복원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건축물의 어떤 부분에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선택적인 유지보수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커튼월 공법,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사용된 건축물의 보존원칙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로 미국 내무성(The Secretary of the Interior)에서 배포하고 있는 기준(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historic properties)이 있음. 이 문서는 역사적 건축물을 다루는 네 가지 태도(preservation, restoration, rehabilitation, reconstruction)를 제시하고, 각각의 태도에 상응하는 유지보수기준을 요소별(조적조, 목조, 금속, 지붕, 창문, 현관, 커튼월, 구조시스템, 설비시스템, 실내마감, 대지)로 제시하고 있음. 추천하는 방식(recommended)과 추천하지 않는 방식(not recommended)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만함. 이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본 의견서에 첨부하였음
- 유네스코 회관은 현대 건축물의 ‘빌딩시스템’이 도입되는 시기에 준공된 건축물로, 기계설비의 측면에서도 시대성을 간직하고 있음. 특히 기계실에는 준공당시 설치된 비상발전기가 남아 있는데, 해당 기계, 설비가 노후화 되었을 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붙임2>

유네스코 회관 조사보고서('09.11.3.)

1. 명 칭 : 유네스코 회관

2. 용 도 : 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등

3.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50-14

4. 소유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현소유자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50-14

5. 건축물 개요

- 설계자 : ○○○○ ○ 시 공 자 : 풍전산업(豊田産業)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 준 공 일 : 1967년(1959착공)
- 대지면적 : 1,345.8㎡
- 건축면적 : 1,152.23㎡
- 연 면 적 : 13,367.1㎡
- 층수, 높이 : 지하1층, 지상13층(물탱크실 포함/높이 51.38m)

6. 조사자 의견

가. 건축양식 및 주요특징

- 건축양식 : 1960년대에 건립한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물로서 메트로 호텔, 구 명동성모병원 등과 함께 커튼월공법으로 지은 중요한 건축물임
- 주요특징
 - 중앙코어 형식, 중앙 공급 냉난방설비 등은 당초 호텔로 계획하였다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업무시설로 바뀐 흔적 등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변화가 잘 남아 있음
 - 옥상의 물탱크실, 기계실 등 부속시설도 건립당시 원형에 가깝게 잘 간직하고 있음

나. 연혁 및 수리기록

- 연 혁
 - 1959.4 : 유네스코회관 기공식
 - 1962.7 : 유네스코 회관 상량식 거행
 - 1967.2 : 유네스코 회관 준공
 - 1974년 : 한일은행으로부터 유네스코 회관 관리권 인수
 - 2003년 : 회관 옥상에 생태공원 조성 “작은누리”
- 수리기록
 - 10여년 전 외벽에 샌드스톤 뿔칠
 - 1997.12월 화재로 인해 11층 전소되어 복구
 - 내부는 입주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리

7.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오래된 창호로 인한 열손실 때문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함.

8.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

가.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벽의 콘크리트 마감부분에 일부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노화 현상은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 및 마감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임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상태대로 보존하면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임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특정부분)
 - 전체 외관형태 유지와 외벽(알루미늄 커튼월 부분 및 측면 콘크리트조 벽면)
 -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설비와 창호

나. 등록(지정) 등 가치 의견

- 구 명동성모병원 이후 본격적으로 알루미늄 커튼월로 시공된 최초의 건물로 기술사적인 의미가 높으며, 명동지역을 상징하는 몇 안 되는 근현대 역사적 건축물로서 상징성과 근대주의(모더니즘)건축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 다만 준공 후 43년밖에 지나지 않아 등록기준 연한인 50년에 미달하고 당장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없으므로 등록시기에 대한 형평성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문화재전문위원 ○○○>

가.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벽의 콘크리트 마감부분에 일부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노화 현상은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 및 마감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임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상태대로 보존하면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임

나. 등록(지정) 등 가치 의견

- 시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커튼월의 기술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 커튼월이 지니는 기술사적 의의, 건축주의 외장 리모델링 계획 등을 고려하면 문화재 등록을 통하여 보존함이 타당하지만, 상기 건축물이 지니는 의의에 못지 않게 유사한 시기에 건축된 의미 있는 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하여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선의 대안은 건축주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사회적 소명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국의 Lever House(New York, 별첨자료 참고)처럼 커튼월의 의장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디테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
 - 외부 의장적 특성(커튼 월, 서향차폐 디자인, 옥상부 디자인 등)을 유지 보존할 것
 - 건축주가 추진 중인 리모델링 과정에서, 커튼월, 서향 입면, 옥상부 외부 디자인 등 의장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의 기술적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커튼월 전경

옥상부 근대적 디자인과 노후된 외관

○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미국의 Lever House(New York)는 유네스코 회관과 같이 미국 최초의 커튼월 (1948, Pietro Belluschi's Equitable Building in Portland, Oregon) 건축물은 아니지만, New York이라는 지역이 지니는 장소성이나 상징성 그리고 고층건물 계획사에서 공개공지 제공 등의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하여 1983년 New York City의 Landmark Preservation Commission(LPC)에 의해 뉴욕시 랜드마크로 지정되고 이후 수복적 재생과정에서 커튼월의 원형적 모습을 보전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사례임.

<문화재전문위원 ○○○>

가.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벽의 콘크리트 마감부분에 일부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노화 현상은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 및 마감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임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상태대로 보존하면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임

나. 등록(지정) 등 가치 의견

- 유네스코 회관은 건축가 배기형에 의한 우리나라 초기의 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진 한국현대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커튼월로 이루어진 건물은 김정수의 명동 성모병원이지만 이는 수공업으로 알미늄을 접어서 시공한 것이고 유네스코회관에서 비로서 제품이 생산되어 커튼월 공법이 본격화 되었다고 하겠다.

- 이와 함께 지어진 지 4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더라도 명동에서 유네스코 활동의 본부로서 수려한 외관으로 간직하고 있다. 즉 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진 초기 건축으로서 뿐만 아니라 창호 및 커튼 월의 세부 디자인이 훌륭해 주변의 다른 건물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준공한지 43년이 되어 등록문화재의 등록요건이 50년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시급하게 등록시키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

- 11월 3일 조사시 유네스코 회관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특별히 창호 커튼월을 수리하거나 바꿀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등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다만 지붕의 파라펫 부분의 일부 탈락 현상이 있어 이에 대한 보호 및 보수가 필요하다.

6. 「해관 보고문서(인천, 부산, 원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관 보고문서(인천, 부산, 원산)」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2.4.26.)를 거쳐 등록 예고한 「해관 보고문서(인천, 부산, 원산)」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해관 보고문서 (인천, 부산, 원산)	1건 22점	인천해관 14점	33.5×21.8cm 등	1884~1898년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부산해관 4점	33.1×21.5cm 등	1893~1897년	
		원산해관 4점	33.2×20.9cm 등	1887~1893년	

(2)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1.3.~11월.) : 근현대문화유산 외교·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해관지』 A등급 분류
- * 근현대문화유산 위생·보건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온역장정을 통한 콜레라 유입차단에 대한 검역내용이 수록된 제22권을 “A”등급으로 분류
- ('22.3.8/3.21.)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2.4.26.) :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조건부 가결’
- 명칭은 「해관 보고문서(인천, 부산, 원산)」로 추진

(4) 등록예고 : '22.5.11.~ 6.9.(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유물은 1880년대~1890년대 조선 각 개항장의 관세 업무 기관인 인천·부산·원산해관에서 중앙의 총해관에 보고된 문서로, 관세, 해관 행정, 항만 축조, 조계지 측량, 검역 체계, 통상·건축·토목·의료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탁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료이므로, 등록 예고한 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문화재위원 ○○○('22.3.8.)

- 검토 건은 중앙의 총해관과 각 개항장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군으로서 19세기 말 조선의 관세행정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며 거의 유일한 자료임.
- 당시 해관 행정 및 통상 관련 상황을 비롯하여 개항장 현황, 항구 건설 및 조계지 측량 및 필지 분할, 해관청사 및 해관 관련 직원 주택 등 건축 현황, 개항장 내 외국인 인구 분포 및 구체적인 인원에 대한 정보, 수출입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리스트, 검역 및 콜레라 등 감염병에 대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어 통상·경제 뿐 아니라 도시·토목·건축 분야와 사회·생활·의료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어, 등록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 ○○○('22.3.21.)

- 검토 건은 19세기 말 조선의 관세행정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개항장의 외국인 세무사와 중앙 총해관 간의 왕복문서군으로 현재 전래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라는 의미를 지니며, 첨부문서의 형태로 세무사와 감리 간의 왕복문서까지 수록되어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음. 거기에 내용도 관세행정 관련 사항이 대중을 이루는 가운데 콜레라 등 검역 문제나 건축 등과 같은 다방면의 정보 또한 풍성하게 담고 있어서 이 시기 해관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역사상을 생생히 보여주는 자료임.
- 본 건은 문화재 등록의 가치인 자료의 희소성, 대표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자료의 보존 상황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시급하게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문화재전문위원 ○○○('22.3.8.)

- 검토 건은 1894년 갑오개혁 이전 한국에서 근대적 제도가 수용되고 정착되는 과정의 여러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 사료임. 한국에 근대 문명이 개항장을 통해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본 건은 그 수용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 사료임.

- 해외에서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있을 때 해관이 검역을 담당함에 따라 본 건을 통해 한국에서 검역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콜레라 방역을 위한 온역장정의 내용이 포함되는 등 의료사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사료로, 등록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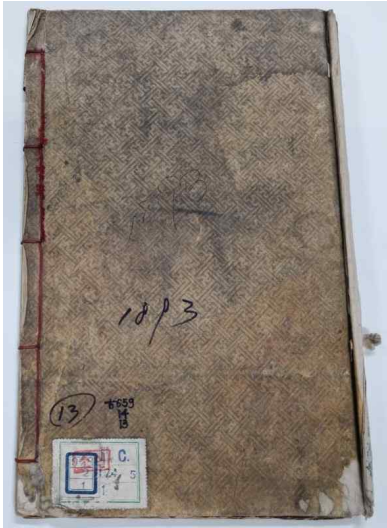
○ 문화재전문위원 ○○○('22.3.8.)

- 검토 건은 개항 이후에 설립된 대표적인 근대 기관의 하나인 해관(海關)의 구체적인 업무, 외교·통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임.
- 본 건이 지닌 근대 자료의 중요성에 비하여 자료의 보존 및 관리는 미급한 상황임. 해당 자료는 제작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문서 작성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 문서 작성과 수신에 상황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문화재 등록의 가치인 자료의 희소성, 대표성, 소장 경위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시급하게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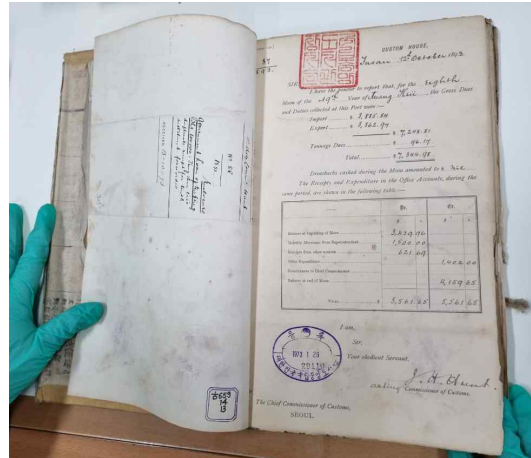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1-2> 『해관지』 부산해관 부분 이미지



<제13권>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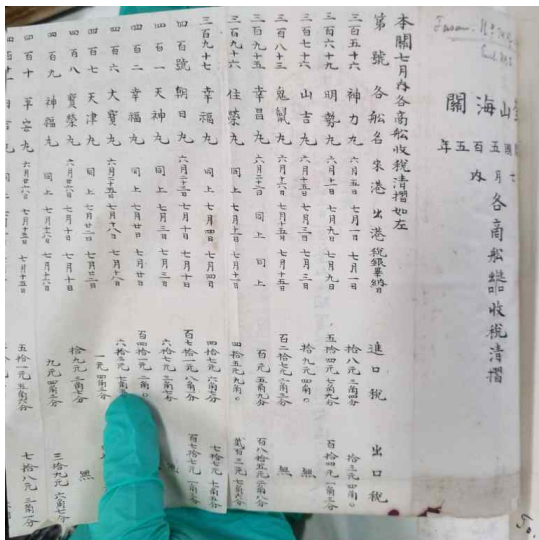
<제13권> 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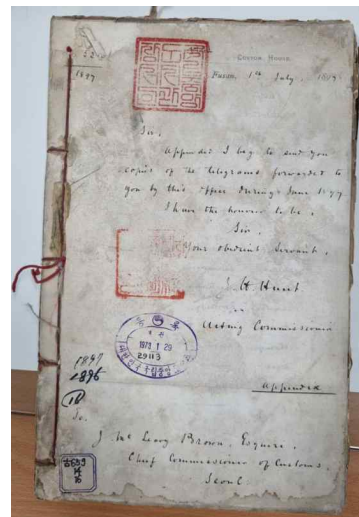
<제14권> 표지



<제15권> 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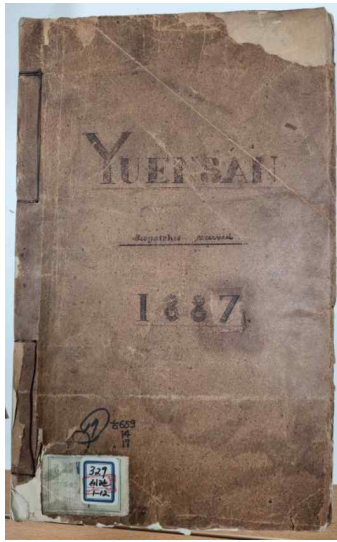


<제15권> 각 상선 수세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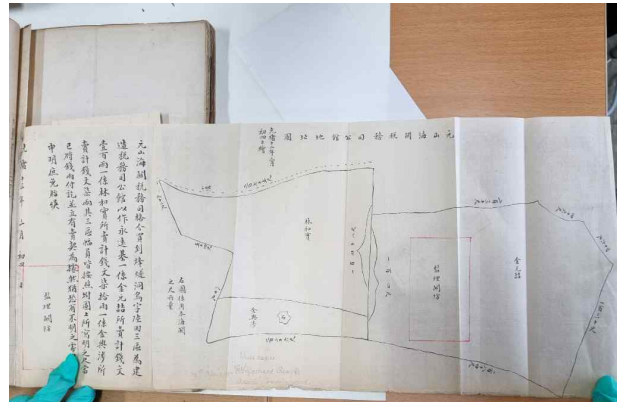


<제16권>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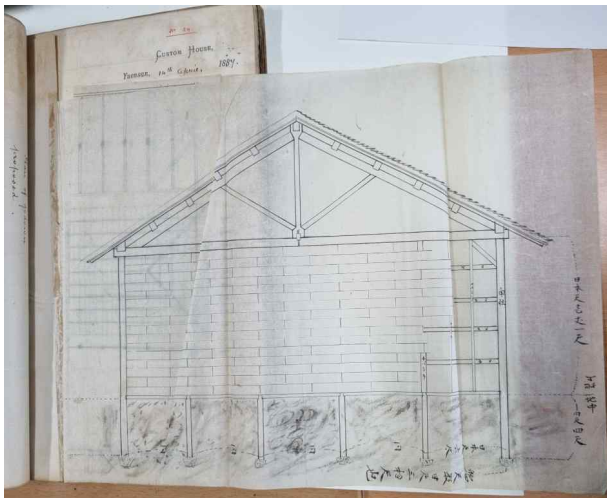
<붙임1-3> 『해관지』 원산해관 부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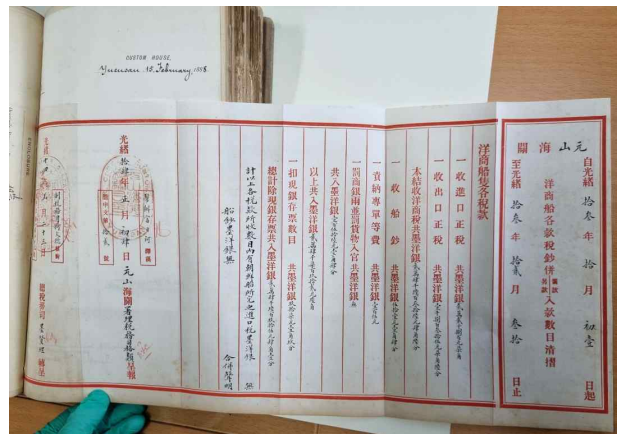
<제17권>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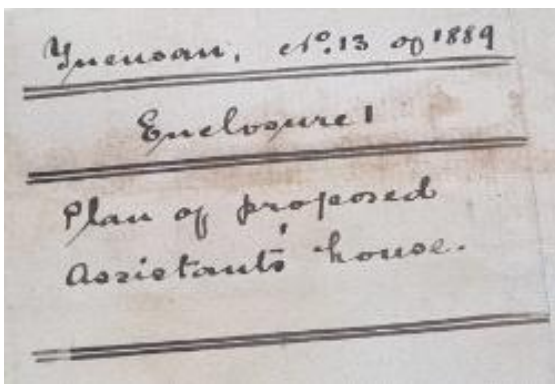
<제17권> 원산해관 세무사 공관 지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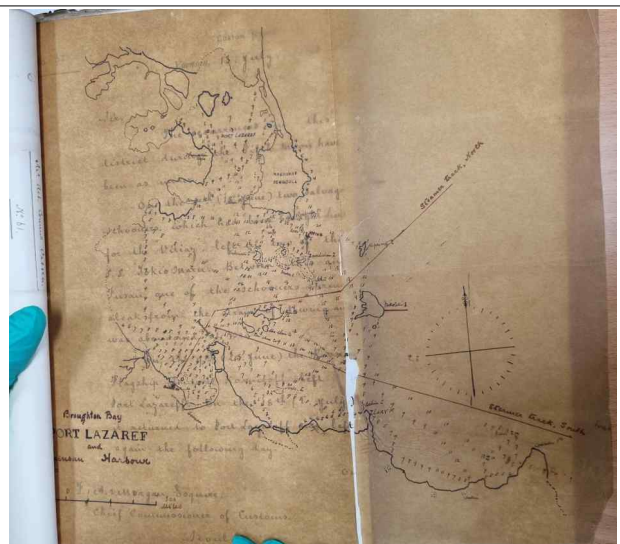
<제17권> 원산해관 청사 단면도



<제18권> 원산해관 결산보고서



<제19권> 각 문서 1건 마다 연월일과 문건 제목이 적혀 있음



<제20권> 원산항(RAZAREF) 지도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해관지(海關誌)>(古貴659-14)
2. 소 유 자 : 국립중앙도서관
3.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4. 수 량 : 1권 22점(인천해관 14권, 부산해관 4권, 원산해관 4권)
5. 규 격 : 21 × 33.5cm 내외
6. 제작연대 : 1884~1898년
7. 재 질 : 양지(洋紙), 양장본(洋裝本)
8. 조사자 의견('22.3.8./3.21.)

<문화재위원 ○○○>

1) 개요

- 해관(海關; the Maritime Customs)은 세관(稅關; the Customs)의 중국식 표현으로 1883년 6월 16일 인천 해관, 6월 17일 원산 해관, 7월 3일 부산해관 순으로 창설되었으며, 1907년 「세관관제(稅關官制)」가 공포되면서 '세관'으로 개칭되었음.
- 해관을 창설하고 관세 사무를 총괄한 조선해관의 총세무사는 필렌도르프(P. G. von Möllendorff)였으며, 각 개항장의 해관 총책임은 외국인 세무사가 담당하였는데, 초대세무사로는 각각 영국인 스트리플링(A. B. Stripling), 원산은 영국인 라이트(T.W.Wright), 부산은 영국인 라바트(W.N.Lovatt)을 임명하였으며, 그 관리·감독을 위해 조선정부에서는 조선인 감리(監理)를 임명해 파견하였음.
- 각 해관의 외국인 세무사는 중앙의 총해관과 총해관의 대표자인 총세무사의 지휘를 받았으며, 감리의 경우 조선 정부의 외교기구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대한제국기 이후로는 외부(外部)의 통제를 받았음.
- <해관지(海關誌)>는 주로 중앙의 총해관과 각 개항장 외국인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 중 특히 각 개항장 세무사들의 업무 보고 공문들을 합철한 문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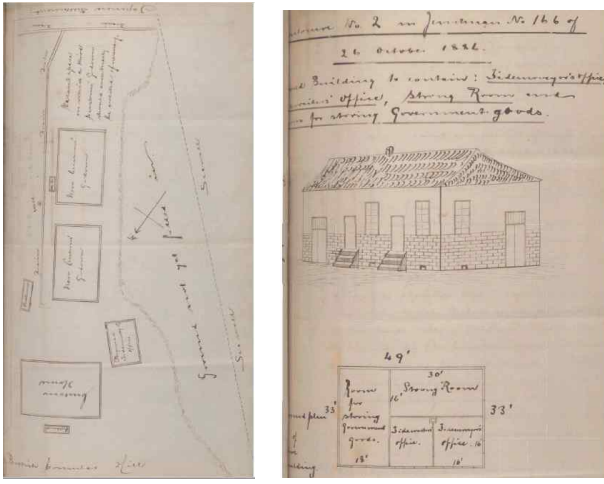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인천해관 보고문서

- 1883년 6월 16일 창설된 인천해관의 업무 보고 공문서들로, 1884년 4월 1일부터 1898년 3월 31일까지의 문서모음임. 1884년 4월 이전 및 1885년 1월 1일~ 1886년 6월 30일, 1894년 9월 25일 ~ 1895년 1월 1일, 1896년 5월 30일~1897년 3월 31일, 1897년 7월 1일 ~ 1898년 1월 3일 사이의 문서들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중 1883년과 1884년의 문서 일부, 1885년 1월~9월의 문서는 서울본부세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천해관문서, 1885 Despatches from Chemulpo>에 수록되어 있음.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해관지는 시간순서로 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간 순으로 정리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번	권차(전체 22권 중)	서명	수록연대
1	2권	JENCHUAN	1884. 4. 1 ~ 1884. 7. 30
2	21권	CHEMULPO	1884. 8. 2 ~ 1884. 12. 31
3	22권	CHEMULPO	1886. 7. 1 ~ 1886. 12. 31
4	3권	JENCHUAN	1887. 1. 7 ~ 1887. 6. 26
5	1권	JENCHUAN	1887. 7. 5 ~ 1888. 1. 12
6	4권	JENCHUAN	1889. 1. 3 ~ 1889. 6. 28
7	5권	JENCHUAN	1890. 7. 1 ~ 1890. 12. 31
8	6권	JENCHUAN	1892. 1. 2 ~ 1892. 3. 30
9	7권	JENCHUAN	1892. 4. 1 ~ 1892. 6. 24
10	8권	JENCHUAN	1893. 7. 6 ~ 1893. 9. 25
11	9권	JENCHUAN	1895. 1. 2 ~ 1895. 3. 30
12	10권	JENCHUAN	1896. 4. 1 ~ 1896. 5. 29
13	11권	JENCHUAN	1897. 4. 1 ~ 1897. 6. 30
14	12권	JENCHUAN	1898. 1. 4 ~ 1898. 3. 31

 <p style="text-align: center;"><22권> 1886년</p>	<p>1885년 화재 이후 건설한 두 번째 해관 청사의 도면으로, 첫 번째 해관 청사보다 남측 해안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음. 해관 청사 앞 해안 매립 공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부지 내 우물과 배수로 등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음. 새 해관청사 2동과 조수 관측관 사무실, 세관원 숙소 및 화장실 등 부속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두 번째 해관청사에 대해 처음으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진 자료임.</p>
 <p style="text-align: center;"><제1권> : 1887</p>	<p>항로표시(Navigation Marks): 조수 표지(Tidal Beacon)과 관측섬((Observation Island)를 제안하는 문서와 그에 첨부된 스케치로, 독일인 기술자 J.F.Hilmacher가 작성한 내용임</p>

- 인천해관 보고문서는 인천의 중국식 한자 발음인 JENCHUAN 혹은 CHEMULPO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며,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었음. 그 내용은 대부분 세무사가 상관인 총세무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나 총세무사의 지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중간에 한문으로 된 문서들, 주로 감리가 보낸 문서가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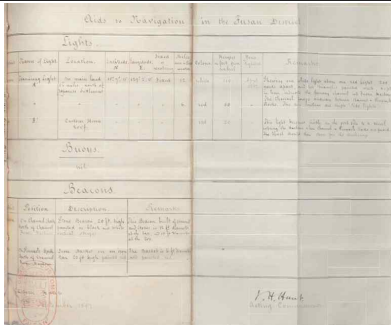
- 인천해관 설치 1년 후인 초창기부터 약 15년 후까지의 문서들로 해관의 분기별 수·출입이나 출입 선박, 그리고 관세 및 벌금 등의 징수 내용 보고를 비롯하여 해관청사를 비롯한 인천항 부두 축조, 항로 표지 뿐 아니라 인천항 조계(租界) 관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1885년 화재로 소실된 첫 번째 해관청사를 대신하여 신축된 두 번째 해관청사의 배치도 및 평입면도, 그리고 1884년 ~ 1889년 사이의 방조제 건설 계획, 항로표지와 관측섬, 정박섬 등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등 개항 초기 인천항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도면 및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인천항 조계(租界) 내 외국인 인구 분포 및 조계별 태풍 피해, 중국 조계, 각국 조계를 비롯한 제물포 조계 측량 지도가 첨부되어 있으며, 해관 소속의 토목 기술자인 러시아인 V.S.베코프스키와 독일인 J.F.Hilmacher 등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항구 축조 및 조계 측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외국인 기술자들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음.
- 선포 및 결산보고서 등의 원본 양식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인천항정박선박 규칙, 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한 운역장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부산해관 보고문서:

- 1883년 7월 3일 창설된 부산해관의 업무 보고 공문들로, 창설 10년 후인 1893년 10월 12일부터 1897년 12월 31일까지의 문서 모음으로 1894년 문서는 누락되었음, 인천·원산해관 보고문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세무사가 상관인 총세무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번	권차(전체 22권 중)	서명	수록연대
1	13권	FUSAN	1893. 10. 12 ~ 1893. 12. 27
2	14권	FUSAN	1895. 1. 2 ~ 1895. 6. 27
3	15권	FUSAN	1896. 7. 1 ~ 1896. 12. 10
4	16권	FUSAN	1897. 7. 1 ~ 1897. 12. 31

- 인천·원산해관보고문서와는 달리 창설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보고 문서들이므로 항구나 세관, 조계 등 토목·건축 관련 내용은 없으며, 정례화된 보고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함. 대부분 부산해관의 분기별 수·출입 현황을 위시하여 선박 출입 상황, 그리고 관세 및 벌금 등의 징수 내용 보고를 비롯하여 직원의 근태 및 급여 관련 건 등에 관한 건들이며 특이사항으로는 등대 및 항로표지(Beacon)의 상세사항이 기록된 리스트 및 절영도의 일본석탄창고 관련 내용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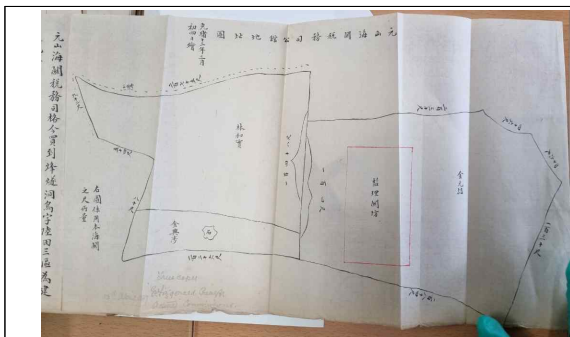
 <p style="text-align: center;"><제14권> 1897년</p>	<p>초량등대 A,B와 부W산항 해협 북쪽 및 남쪽에 위치한 항로표지(Beacon)의 상세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등대는 설치 위치 및 위도, 경도, 고정/회전 여부, 청명일 가지거리, 색상, 해발고도, 등대점화연도 등이 나와 있으며, 항로표지는 위치 및 명세, 재료와 형태, 크기 등에 대해 나와 있음.</p>
---	--

다) 원산해관 보고문서:

- 1883년 6월 17일 창설된 원산해관의 업무 보고 공문들로, 1887년 2월 1일부터 1889년 12월 28일까지와 1893년 7월 6일부터 1893년 12월 31일까지의 문서 모음임, 원산은 중국식 발음표기로 추정되는 YUENSAN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일부 지도에서는 러시아식 표기인 RAZAREF로 표기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인천해관 보고문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세무사가 상관인 총세무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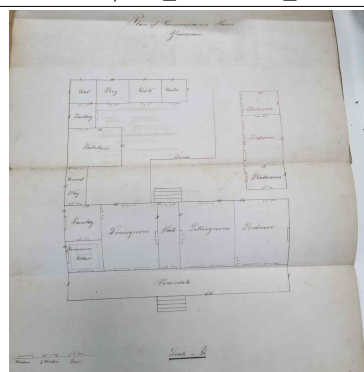
연번	권차(전체 22권 중)	서명	수록연대
1	17권	YUENSAN	1887. 1. 1 - 1887. 12. 19
2	18권	YUENSAN	1888. 1. 6 - 1888. 12. 4
3	19권	YUENSAN	1889. 1. 2 - 1889. 12. 28
4	20권	YUENSAN	1893. 7. 6 - 1893. 12. 31

- 인천해관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개항 초에 해당하는 보고문서로 원산항 부두 및 해관청사, 원산해관 세무사 사택 및 조수 주택 등의 도면 등이 다수 첨부되어 있음. 서양인 기술자들에 의해 작성된 인천해관 도면들에 비교해 보았을 때, 원산해관 도면들은 척(尺)을 단위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자로 작성된 경우가 많아 중국인 혹은 일본인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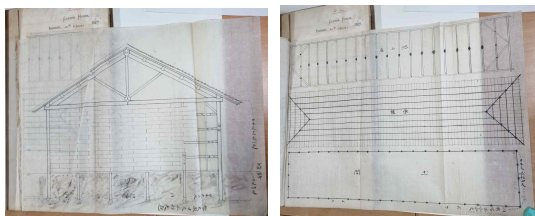
<제17권> 1887년

1887년 3월 4일에 제작한 원산해관 세무사 공관지 부지 배치도로, 조선인 소유 세 개의 필지를 매입하여 공관을 설치할 예정임을 알 수 있음. 각 필지의 측량값은 척(尺)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모든 내용은 한자로 작성되어 이 도면을 작성한 이는 일본인이거나 중국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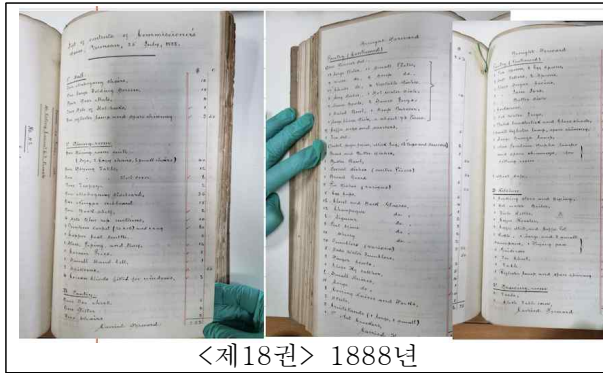
<제17권> 1887년

1884년 작성된 원산 해관장 사택 평면도로 평면도에서는 실별 배치 및 크기, 창호 위치 등을 알 수 있음. 해관장 사택은 ㄷ자형의 주택과 일자형 부속채로 나누어짐.



<제17권> 1887년

1884년 작성된 해관청사 단면도와 평면도로 단면도에서는 기초와 벽체, 지붕 구조 및 벽체 재료 등을 알 수 있음. 평면은 장방형의 단순한 구조로, 1층과 지붕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음. 한자로 작성되어 있으며, 단위는 척을 사용하였음



세관장 사택의 물품 리스트로, 실별 가구 등 품목별 리스트와 가격이 표시되어 있음.

<제18권> 1888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제1권, 제2권, 제3권은 금속 재질의 묶음에서 직물 소재의 실로 다시 장정되었으며, 1890-1900년대 조선 내의 외국 영사관(領事館)에서 사용되었던 전용 용지를 사용하여 용지의 질은 나쁘지 않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며 바스러지거나 하며 노후화가 진행 중임. 또한 페이지의 일부가 탈색이 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있으며 표지의 경우도 훼손된 경우가 다수 있어 보존 처리가 시급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므로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나, 현재 해관지의 보존처리상태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해관지는 개항 이후 통상 관련 뿐 아니라 항구와 조계지 건설, 외국인 기술자에 의한 건축 및 외국인 현황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임. 특히 1880년대~1890년대의 통상 관련 및 개항장 건설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통계와 도면 자료 등을 통해 볼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해관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PDF로 제공 중이라 접근은 어렵지 않으나, 제본 부분이 제대로 스캔되지 않은 점, 중간에 접혀 있는 이미지 등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며, 필기체로 흘려 쓰여 있어 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 장기적으로는 탈초작업 및 디지털화하여 연구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해관지 중 부산해관 보고문서는 현재 관세청에서 DESPACHES FROM FUSAN CUSTOMS 1893-1897이라는 제목으로 탈초 후 번역하여 원본 이미지와 함께 책으로 발간하였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인천해관문서(서울세관 관세박물관)’는 1885년 문서가 대부분이며, 1883년과 1884년 문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본 해관지 중 인천해관보고문서에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당시 관세 행정은 ① 중앙의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 총해관 간 왕복 문서군 / ② 중앙의 통서와 각 개항장 감리 간의 왕복 문서군 / ③ 중앙의 총해관과 각 개항장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군 / ④ 각 개항장의 감리 ↔ 세무사 간 왕복 문서군의 4가지 문서를 통해 그 전모를 파악가능함. 본 해관지가 ③ 중앙의 총해관과 각 개항장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군이라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해안(海案)』(奎17730·17731)·『총관내신(總關來申)』(奎17829)·『총관거함

(總關去函)』(奎17832)·『총관공문(總關公文)』(奎17830)·『총해관왕복안(總海關往復案)』(奎17831) 등은 ① 중앙의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 총해관 간 왕복 문서군에 속하며, 『팔도사도삼항구일기(八道四都三港口日記)』(奎18083)·『삼항구관초(三港口關草)』(奎18082)·『부산항관초(釜山港關草)』(奎17256·18077)·『인천항관초(仁川港關草)』(奎18075)·『원산항관초(元山港關草)』(奎18076)은 ② 중앙의 통서와 각 개항장 감리 간의 왕복 문서군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부산항에 대한 기록인 『해관왕복조회존안(海關往復照會存案)』(奎18114)·『해감(海械)』(奎18113) 및 인천항의 『세사문고(稅司文攷)』(奎古883)은 ④ 각 개항장의 감리 ↔ 세무사 간 왕복 문서군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①, ②의 경우 문서의 종류와 그 분량이 방대한 데 반해 ③의 경우 본 해관지와 ‘인천해관문서(서울세관 관세박물관)’만이 전해 지고 있으며, ④의 경우에도 대상 시기가 극히 제한적인 문서임. 따라서 ‘해관안 문서군(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본 해관지와 상호보완적인 문서라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해관지는 중앙의 총해관과 각 개항장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군으로서 19세기 말 조선의 관세행정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며 거의 유일한 자료임.
- 당시 해관 행정 및 통상 관련 상황을 비롯하여 개항장 현황, 항구 건설 및 조계지 측량 및 필지 분할, 해관청사 및 해관 관련 직원 주택 등 건축 현황, 개항장 내 외국인 인구 분포 및 구체적인 인원에 대한 정보, 수출입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리스트, 검역 및 콜레라 등 감염병에 대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어 통상·경제 뿐 아니라 도시·토목·건축 분야와 사회·생활·의료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 전체 문서는 등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복한 문서 원본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문서를 접은 부분이나 수신, 발신을 써둔 부분 등이 비교적 일정하게 남아 있음. 첩부된 문서 역시 등사본이 아닌 원본인 경우가 많으며, 선포나 결산보고서 등의 원본 서식 역시 있어 사료적 가치 역시 높음
- 이에 해관지의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관지(海關誌)』는 중앙의 총해관과 각 개항장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군 중 주로 각 개항장의 세무사가 총해관에 보고문서가 대부분이므로 『해관 보고 문서』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본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문서이기 때문에 『해관 보고 문서: 인천, 부산, 원산』라는 하나의 문화재 명칭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인천, 부산, 원산의 각 항구 상황과 문서의 시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지역 명칭을 붙여 『인천해관 보고 문서』, 『부산해관 보고 문서』, 『원산해관 보고 문서』로 개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 개요

- 해관(海關; the Maritime Customs)은 현대에 관세 징수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기구인 세관(稅關; the Customs)의 중국식 표현으로, 그 어원은 중국 청대(清代)로 소급되며, 19세기 중국의 근대 해관은 실제적인 관세 징수 실무를 서양인 세무사(稅務司; the Commissioner)에게 맡기고, 그의 관리·감독을 위해 중국인 해관 감독(監督; the Superintendent)을 둔 것이 특징임.
- 개항기 조선에 해관이 설치된 것은 1883년의 일로, 부산·인천·원산의 3개 항구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당시는 청에 의해 조선이 내정간섭을 받는 시기였으며, 따라서 이를 주도한 것은 청에서 내정간섭의 지휘를 위해 조선에 파견한 뮐렌도르프(P.G.Möllendorf; 穆隣德)였음. 그 결과 시스템 또한 상기와 같은 청국의 체도를 본뜨게 되어, 3개 항구 해관의 총책임자인 세무사로 서양인들이 임명되었으며, 그 관리·감독을 위해 조선인 감리(監理)를 임명해 파견하였는데, 감리의 근무 관서는 감리서(監理署; the Superintendent Office)로 호칭됨.
- 3개 항구의 외국인 세무사는 중앙의 총해관과 그 대표자인 총세무사(總稅務司; Inspector General)의 지휘를 받았는데, 본 자료는 총해관에 대한 3개 항구 소재 해관(인천해관, 부산해관, 원산해관)의 책임자인 외국인 세무사들의 업무 보고 공문을 합철한 문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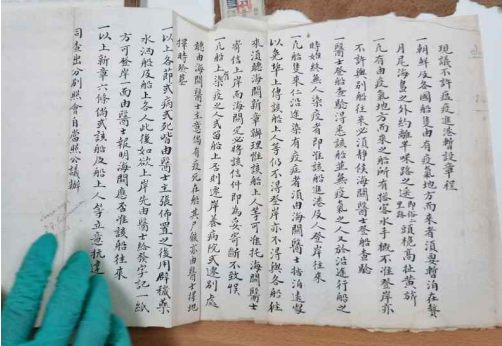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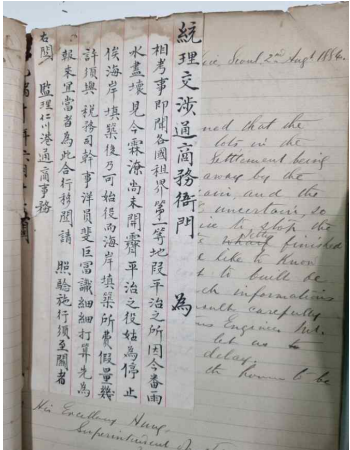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인천해관 보고문서: 1884년(고종 21)~1898년(광무 2)간의 시기가 대상이며, 본 자료군의 전체 분량인 22권 중 가장 많은 비중인 14권을 차지하고 있음. 대상 시기 전체가 망라된 것은 아니며, 관리번호 또한 시간 순서로 부여된 것이 아님. 보다 상세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번	권차(전체 22권 중)	서명	수록연대
1	2권	JENCHUAN	1884. 4. 1 ~ 1884. 7. 30
2	21권	CHEMULPO	1884. 8. 2 ~ 1884. 12. 31
3	22권	CHEMULPO	1886. 7. 1 ~ 1886. 12. 31
4	3권	JENCHUAN	1887. 1. 7 ~ 1887. 6. 26
5	1권	JENCHUAN	1887. 7. 5 ~ 1888. 1. 12
6	4권	JENCHUAN	1889. 1. 3 ~ 1889. 6. 28
7	5권	JENCHUAN	1890. 7. 1 ~ 1890. 12. 31
8	6권	JENCHUAN	1892. 1. 2 ~ 1892. 3. 30
9	7권	JENCHUAN	1892. 4. 1 ~ 1892. 6. 24
10	8권	JENCHUAN	1893. 7. 6 ~ 1893. 9. 25
11	9권	JENCHUAN	1895. 1. 2 ~ 1895. 3. 30
12	10권	JENCHUAN	1896. 4. 1 ~ 1896. 5. 29
13	11권	JENCHUAN	1897. 4. 1 ~ 1897. 6. 30
14	12권	JENCHUAN	1898. 1. 4 ~ 1898. 3. 31

- 서명이 'JENCHUAN'과 'CHEMULPO'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대부분은 'JENCHUAN'으로 기재되어 있음. 'JENCHUAN'은 '인천(仁川)'의 당시 중국어 한자음 발음으로서(현대 발음으로는 réncuān), 이는 당시 청국에 의한 내정간섭의 상황 하에서 조선 해관을 청국 해관의 하위 기구로 종속시키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됨.

- 즉 초대 총세무사 필렌도르프(P.G.Möllendorf; 穆隣德)의 후임으로 1885년에 조선의 총세무사로 부임한 메릴(H.F.Merrill; 墨賢理)은 청국 해관의 총세무사인 영국인 하트(Sir R.Hart; 赫德)의 지시에 따라 조선해관을 청국해관에 예속시키려 하였으며, 실제로 당시 조선 3개 개항장의 무역 통계수치를 기재하여 매년 발표된 『조선통상삼관무역책(朝鮮通商三關貿易冊)』은 중국 해관 통계 보고서의 부록으로 발간되었음.
- 문서 대부분은 영어로 표기하여 작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세무사가 상관인 총세무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며, 반대로 총세무사에 의한 지시 내용 또한 간간이 포함되어 있음. 표기 양식은 필사와 전용(專用) 용지의 두가지 방식이 혼용됨.
- 그 내용은 해관의 분기별 수·출입이나 출입 선박, 그리고 관세 및 벌금 등의 징수 내용 보고를 비롯하여 직원의 근태 및 급여 관련 건이나 해관 자체 및 여타 시설들의 건립 계획서 및 그 도안, 그리고 외국인 거주구역인 조계(租界)와 관련하여 그 상세한 지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기재됨.
- 종종 한문으로 된 문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①해당 해관의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 감리가 보낸 문서로서, 총세무사에게 보고서 참고자료로 첨부한 것이 대부분으로, 아니면 간혹 ②조선 중앙정부에서 외교 업무를 관할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감리에게 내려보낸 지시사항이 첨부되어 있기도 함. 또한 ③콜레라 예방 검역 지침인 <현의불허온역진항잠설장정(現議不許溫疫進港暫設章程)>을 비롯한 관세행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규정들이 역시 참고자료로 수록된 경우도 있으며, 드물게는 ④해관의 부지 등과 관련된 토지소유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제출한 명문(明文) 등의 청원서가 첨부되어 있기도 함. 또한 인천 주재 일본 영사관에서 보낸 일본어 문서 역시 간간이 참고자료로 부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출진: 22권></p>	<p style="text-align: center;"><現議不許溫疫進港暫設章程 (현의불허온역진항잠설장정)>: 콜레라 예방 검역 지침</p>
 <p style="text-align: center;"><출진: 21권></p>	<p style="text-align: center;">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인천감리에게 하달한 문서</p>

나) 부산해관 보고문서: 1893년(고종 30)~1897년(광무 1)간의 시기가 대상이며, 본 자료군의 전체 분량인 22권 중 4권(13~16권)을 차지하고 있음. 대상 시기 중 일부 빠진 시간이 있으며, 관리번호는 시간 순서로 부여되었음. 보다 상세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번	권차(전체 22권 중)	서명	수록연대
1	13권	FUSAN	1893. 10. 12 ~ 1893. 12. 27
2	14권	FUSAN	1895. 1. 2 ~ 1895. 6. 27
3	15권	FUSAN	1896. 7. 1 ~ 1896. 12. 10
4	16권	FUSAN	1897. 7. 1 ~ 1897. 12. 31

- 서명이 'FUSAN'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서 언급한 인천의 경우처럼 중국어 발음 표기를 채택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음. 현대 중국어의 '부산(釜山)' 발음은 'fǔshān'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당시와 현대의 중국어 발음이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을뿐더러, 대체로 우리말로 발음할 때 'Busan' 혹은 'Pusan'으로 표기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각종 조계 지도나 협정 등에도 'Fusan'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들의 명명 또한 당시 조선해관의 외국인 세무사·총세무사들이 했을 것이므로 과연 당대 실제로 조선인의 발음대로 표기한 것인지는 의문임.
- 문서 대부분이 영어로 표기하여 작성되어 있는 점, 표기 양식이 필사와 전용 용지의 두가지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점은 인천해관과 마찬가지로, 기타 한문본 문서의 경우 역시 상술한 인천해관의 경우와 대동소이함. 내용 또한 대체로 인천해관과 유사하게 부산해관의 분기별 수·출입 현황을 위시하여 선박 출입 상황, 그리고 관세 및 벌금 등의 징수 내용 보고를 비롯하여 직원의 근태 및 급여 관련 건 등에 관한 건들이 기록되어 있음. 그런데 본 부산해관 관련 문서는 부두 축조 및 조계지 건설이 완료된 이후의 시점인 1893~1897년에 해당하는 기록이므로, 나머지 두 해관과 비교해볼 때 건축이나 조계 관련 도면은 별로 없으나, 다만 등대 시설의 건립 계획서 및 도안 내용이 확인됨.

다) 원산해관 보고문서: 1887년(고종 24)~1893년(고종 30)간의 시기가 대상이며, 본 자료군의 전체 분량인 22권 중 4권(17~20권)을 차지하고 있음. 대상 시기 중 일부 빠진 시간이 있으며, 관리번호는 시간 순서로 부여되었음. 보다 상세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번	권차(전체 22권 중)	서명	수록연대
1	17권	YUENSAN	1887. 1. 1 - 1887. 12. 19
2	18권	YUENSAN	1888. 1. 6 - 1888. 12. 4
3	19권	YUENSAN	1889. 1. 2 - 1889. 12. 28
4	20권	YUENSAN	1893. 7. 6 - 1893. 12. 31

- 서명이 'Yuensan'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인천의 경우와 유사하게 당대의 중국어 발음 표기를 채택한 것으로 추정됨(현대 중국어로는 yuánshān). 다만 앞의 'Fusan'과 유사하게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각종 조계 지도나 협정 등에 'Yuensan'로 표기된 경우가 더러 있으나, 이 역시 당시 조선해관의 외국인 세무사·총세무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명명이므로 당대 실제 조선인의 발음과 같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전체적인 내용이나 체제는 대체로 상술한 인천해관·부산해관과 거의 유사하나, 다만 다른 항구들의 문서군에서도 발견되는 해관 건물의 건축 도면이나 부지 지도 등의 자료가 본 원산항 문서에서는 더 자주 발견되고 그 도면의 내용도 보다 상세함. 이는 당시 원산항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상대적으로 부산과 인천에 비해 원산의 경우 무역량도 적고 조선 측의 입장에서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니, 실제로 1883년 3개 항구에 해관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를 처음 임명할 당시 부산과 인천은 별도의 관리를 임명했으나, 원산은 ‘사무가 간단하다’는 이유로 당시 덕원부사(德源府使)에게 겸직을 시킨 바 있음. 따라서 해관 청사의 건립을 비롯한 초기 투자 또한 여타 두 항구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설이 열악했을 것이므로 이러한 건물 건립과 관련된 도면 등이 첨부된 공문서의 왕복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관련 문서가 더 많이 수록된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래 금속 재질의 묶음 방식을 현 소장 도서관 측에서 제1·2·3권의 경우 현재 직물 소재의 실로 바꾸어서 재장정함.
- 원래의 종이 재질은 상당히 좋은 편이나,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바스러지기 시작한 곳들이 적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낙장의 우려 또한 존재함. 특히 12권의 경우 낙장은 아니지만 페이지의 일부가 탈색이 되거나 훼손이 됨.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하여 추가적인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내 최고의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 중이므로 결코 보존관리 여건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재 해당 도서관의 보존 처리 인력이 극히 부족하여 본 자료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관련 인력의 충원을 통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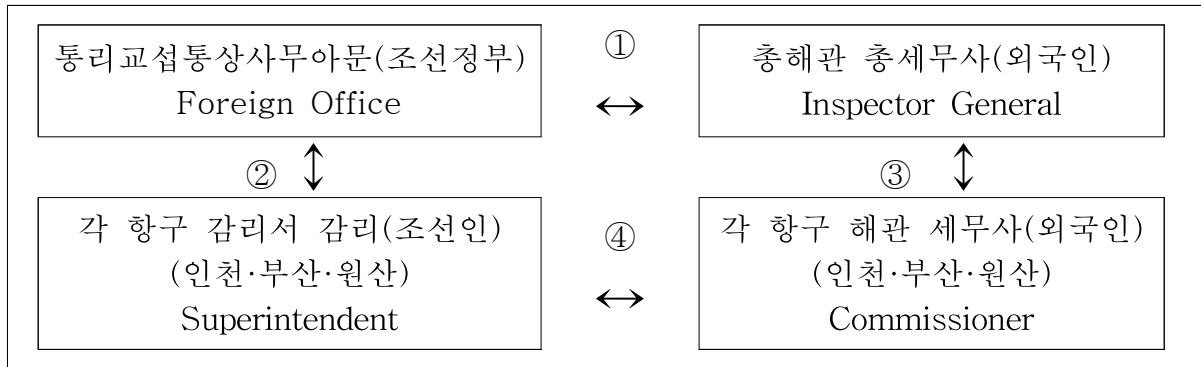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이미지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의 이용이 편리하나, 중간중간 제대로 스캔이 되지 못하고 일부분의 이미지가 누락된 것이 발견됨. 특히 원래 제본시 금속 재질로 묶여 있던 부분들의 이미지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체크 및 수정이 요망됨.
- 장기적으로는 탈초 작업이 필요함. 영어 문서의 표기 중 필기체로 흘려써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함.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을 탈초하여 정서한 뒤 일차적으로는 책으로, 가능하다면 디지털 데이터로 서비스할 수 있다면 연구 활용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동종 건과 비교 - ‘인천해관문서(서울세관 관세박물관/서울시 유형문화재)’: 본 자료와 같은 성격(지방 해관 세무사 → 총세무사 보고 문서 합철본)의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본 자료 중 인천해관 부분에서 누락된 시간대(1883·1884·1885년 일부)의 것으로 추정됨

- 유사 건과 비교 - ‘해관안 문서군(서울대 규장각)’: 상호 보완적인 자료임.
- 3개 항구의 외국인 세무사는 중앙의 총해관과 그 대표자인 외국인 총세무사의 지휘를 받았으며, 감리의 경우 조선 중앙정부의 외교기구인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대한제국기 이후로는 외부(外部)의 통제를 받았음. 따라서 이 시기 해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세행정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① 중앙의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 총해관(총세무사) 간 왕복 문서군 / ② 중앙의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과 각 개항장 감리서 감리 간의 왕복 문서군 / ③ 중앙 총해관의 총세무사와 각 개항장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군 / ④ 각 개항장 감리서의 감리 ↔ 세무사 간 왕복 문서군의 4가지가 갖추어져야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



- 상기의 4가지 자료 중 ①의 경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해안(海案)』(奎17730·17731)·『총관내신(總關來申)』(奎17829)·『총관거함(總關去函)』(奎17832)·『총관공문(總關公文)』(奎17830)·『총해관왕복안(總海關往復案)』(奎17831) 등 상당량이 전해지고 있으며, ②의 경우는 『팔도사도삼항구일기(八道四都三港口日記)』(奎18083)·『삼항구관초(三港口關草)』(奎18082)·『부산항관초(釜山港關草)』(奎17256·18077)·『인천항관초(仁川港關草)』(奎18075)·『원산항관초(元山港關草)』(奎18076)를 비롯하여 대한제국기에는 ‘~항안(港案)’ 형태의 서명으로 오히려 ①보다 훨씬 많은 방대한 분량이 전래되고 있음(해관안 문서군).
- 나머지 ③과 ④가 약한 고리로서, ③의 경우 본 자료를 제외한다면 세관본부에서 펴낸 『1885 Despatches from Chemulpo』(2007) 외에는 전해지는 것이 없으며, ④ 또한 서울대 규장각에 부산항에 대한 기록인 『해관왕복조회존안(海關往復照會存案)』(奎18114)·『해감(海槓)』(奎18113) 및 인천항의 『세사문고(稅司文攷)』(奎古883)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그 대상 시기가 극히 제한적임(부산항은 1888~1890년, 인천항은 1886~1889년 해당 기록만 수록). 따라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해관안 문서군과 본 자료는 19세기 조선의 관세행정 전모를 파악함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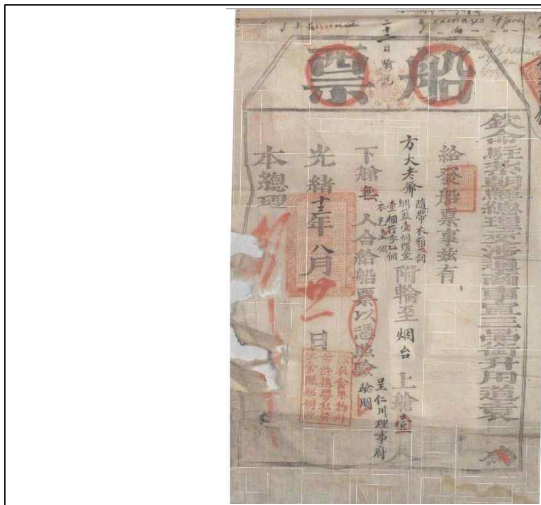
- 본 자료군은 19세기 말 조선의 관세행정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개항장의 외국인 세무사와 중앙 총해관 간의 왕복문서군으로 현재 전래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라는 의미를 지니며, 첨부문서의 형태로 세무사와 감리 간의 왕복문서까지 수록되어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음. 거기에 내용도 관세행정 관련 사항이 대중을 이루는 가운데 콜레라 등 검역 문제나 건축 등과 같은 다방면의 정보 또한 풍성하게 담고 있어서 이 시기 해관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역사상을 생생히 보여주는 자료임.

- 또한 ‘자료의 원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본 자료군은 주목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중간중간 첨부된 한문 문서들은 세무사가 총세무사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서 해당 개항장의 조선인 감리로부터 받은 공문 원본을 첨부한 것임. 그런데 해관 관련 서울대학교 소장 자료의 경우 대부분 공문 원본이 아니라 그것을 등사한 것에 불과한데, 본 자료군의 문서는 실제 당시에 왕복한 문서 원본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상 분명한 차이가 있음.

	<p>* 좌: 『부산항관초』(奎17256)에 수록된 1887년 5~6월분 부산감리의 통서 제출 보고서 중 일부. 날짜별로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 데서 원본 문서를 등사했음을 알 수 있음.</p>
	<p>인천해관 세무사 하스(J.Haas; 夏士)에게 인천감리 홍순학(洪淳學)이 보낸 공문(본 문서군 21권 수록). 문서에 사용된 종이의 색이나 서식상 실체로 보낸 공문 원본임을 알 수 있음</p>

- 아울러 선표(船票)나 결산보고서[청첩(淸摺)] 등 당시 사용된 각종 증명서나 공문 등의 원본 서식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본 자료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 이들의 원본 문서는 현재 한국에서는 본 자료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움.

	<p>수출입 세금 결산보고서(淸摺): 해관의 세무사가 일정 기간을 주기로 감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로, 해당 항구의 수·출입세 및 톤세(噸稅), 그리고 선초(船鈔) 등 각종 세금 항목에 대한 해당 기간의 결산 내용이 기재됨. 역시 이 문서를 보내거나 받았다는 내용은 해관이나 감리서 관련 자료에 무수히 등장하나, 그 기재 양식을 포함한 실물은 오직 본 자료군에서만 확인 가능함.</p>
<p align="center"><출전: 제17권></p>	



<출전: 제1권>

선표(船票): 선박의 통항 허가증으로, 선박이 해관에 진입하여 통항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시하는 증명서. 좌측 이미지의 경우 청국에서 조선에 파견된 위안스카이(袁世凱) 명의로 발행되었음. 선표의 발급 사실에 대한 기록은 당시 자료에 무수히 등장하나, 그 기재 양식을 포함한 실물이 확인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음.

- 상기 사유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본 자료는 문화재 등록의 가치인 자료의 희소성, 대표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자료의 보존 상황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시급하게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관지(海關誌)』라는 명칭이 마치 해관에서 작성한 일지 내지는 일기라는 인상을 주나, 실제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자료는 해관의 세무사들이 중앙에 보고한 보고서 공문 모음집임.
- 따라서 자료의 성격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서명을 바꿀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부산과 인천, 원산의 3개 항구 문서들이 뒤섞여 있는 것 또한 3개 항구의 상황이 분명히 달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 이에 따라 ①인천해관 보고문서 / ②부산해관 보고문서 / ③원산해관 보고문서의 3개로 분리하여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해관은 각 항구에 설치된 정부기관으로 관세를 담당하였음. 해관지는 인천, 부산, 원산의 각 해관에서 생산한 보고서로 해관의 주요 업무, 예를 들면, 관세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해관은 조선정부의 무역항 검역도 담당했음. 해관이 검역을 주도하는 방식은 중국에서 기원한 것임.
- 1885년 10월에 청국 총세무사 하트(Sir R. Hart)가 파견한 그의 직속 부하 미국인 메릴이 강해관(江海關, Shanghai Customs) 이등방관후반(Second Assistant: B)이라는 청국 현직 해관원의 신분으로 조선에 와서 조선해관 제2대 총세무사를 겸직하게 되면서 검역 체제 구축이 이루어짐.
- 메릴시기의 조선해관은 청국의 해관 중 최초로 검역이 이루어진 하문관과 청국에서 해관검역의 모델이 된 강해관에서 운영진으로 일한 총세무사 개인의 경력과 조선해관의 직제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강해관과의 관계 강화로 강해관의 검역방식을 참고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고, 체제개혁을 통해 해관조직과 통서·감리서의 연대 강화로 외교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음.

- 1886년 여름, 일본에서 유입된 콜레라에 의한 첫 감염자가 6월 1일 무렵에 부산에서 확인된 이후 콜레라는 인천과 원산으로 확산되었음.
- 인천해관의 서리세무사 쇠니케는 1886년 7월에 ‘조선 인천의 콜레라 유입 방지를 위한 임시 장정(Jenchuan Corea Provisional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the Importation of Cholera)’ 초안을 해관 공식 언어인 영문으로 작성함. 내용은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해관의사가 직접 선박에 탑승하여 검사하는 승선검역의 내용과 선내 콜레라 환자에 대한 처치, 선원·승객에 대한 소독, 선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었음.
- 1886년 7월 영국, 독일, 청국, 일본 등 4개 국가의 대표와 협상한 결과를 토대로 ‘조선 인천의 콜레라 유입 방지를 위한 임시 장정’이 마련됨.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근대 국제법 관례에 적합한 방식으로 만들어짐.
- 1887년 6월 총세무사 메릴은 조선의 전체 무역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선 무역항의 감염병 유입에 관한 임시 장정(Temporary Regul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Infectious Diseases at the Korean Treaty Ports)’ 초안을 마련하였음. 7월 ‘조선 무역항의 감염병 유입에 관한 임시 장정’이 조선해관에서 시행되었음. 이로써 조선해관은 모든 무역항에서 감염병의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광서(光緒)라는 중국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인천을 JENCHUAN으로 발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음.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문서이므로 독립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한문으로 인쇄가 된 세금문서가 광서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 세관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일 수 있음.
- 1880년대 초반에는 수기로 내용이 정리되었지만, 관세의 기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I have the honour to report that, for the”로 시작하는 문구 등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구를 인쇄된 문서를 사용하고 있음.
- 관세의 입출금 양식이 인쇄된 문서도 사용하고 있음. List of Employes as per pay list라고 인쇄된 종이에 세관에 고용된 인사의 이름, 급여 등이 적혀 있음.

가) 인천해관

- 영문 공문서가 주종을 이루며, 필기체로 써져 있어 해독에 곤란함이 있음. 하지만 난잡한 필기체는 아닌 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타이핑은 가능한 수준임. 중간중간 한문 문서, 일본어 문서도 섞여 있음.
- 공문서이므로 각 문서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생산 연월일이 적혀 있어 순서를 알 수 있음.
-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무역 관련 문서가 주종임. 수입의 경우 선박세 등을 받았음. 선박의 국적, 입출국일, 도착지 정보가 적혀 있음. 선박에 선적한 물품에 대한 목록을 적은 문서도 있음.
- 2권의 경우 문서 위 왼쪽에 색연필로 날짜, 번호 등이 적혀 있음.
- 3권의 경우 중간에 월미도 그림이 있음. 인천을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인 범죄에 대한 재판기록을 수록하고 있음.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쓰인 인천항 정박에 대한 규칙이 있음.
- 4권의 경우 조계 구역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된 문서가 있음.

- 5권의 경우 1890년 나가사키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지 그 전과를 막기 위한 논의가 온역장정으로 정리되어 기록됨. 소독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있음. 콜레라의 확산 상황이 기록됨.
- 21권의 경우 문서 첫 장 원편에 색연필로 날짜 등을 기입하고 있음. 항구 근처 기지에 있는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한문문서 있음.
- 22권의 경우 문서 첫 장 오른편에 문서 번호가 색연필로 적혀 있음. 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의 내용이 한문문서에 적혀 있음. 연안에서 진주를 채취하고 싶어하는 미국인의 요구가 적힌 한문문서 있음. 인천항정박선박규칙에 대한 한문문서 있음.
- 22권의 현의불허온역진항잠설장정은 8개조로 되어 있는데, 전염지로부터 오는 선박의 의무적인 검역 실시, 검역대상 선박의 승무원과 승객에 대한 의사의 검사, 검사 후 전염자가 없는 경우 선박의 항구 진입 허용, 전염 선박의 격리, 전염 환자의 피병원 격리와 사망자 처리, 환자와 사망자에 대한 소독, 검역 불응 선박 또는 선주, 승객 등의 처리를 규정함.
- 22권의 현의불허온역진항잠설장정 각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선 및 각국의 선척(船隻) 중 온역(瘟疫)의 기운이 있는 지방에서 들어오는 자는 월미도 2리 밖에 잠시 정박토론 하고 선두(船頭)에 황기(黃旗)를 매달게 함. 온역의 기운이 있는 지방에서 진항(進航)해오는 선박의 수수(水手)와 승객은 임의로 등안(登岸)할 수 없으며 먼저 해관의 의사가 등선(登船)하여 이를 사험(查驗)함. 의사의 사험을 거쳐 역기(疫氣)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등안을 허락함. 선척 내에 역증(疫症)이 있을 경우 해관의사가 지정하는 원처(遠處)에 이동하여 부상(埠上)의 전염을 피하도록 하고 해당 선박에 승선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당분간 등안 및 각선(各船)과 왕래를 불허함. 선상에 염역지인(染疫之人)이 있을 경우 병원에 이송하여 요양케 할 수 있으며 혹은 별처(別處)에 이송할 수 있음. 병사자의 경우 의사가 지정하는 곳을 택하여 장례를 치르게 함. 이상의 병자 및 사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 선상의 각인이 상안(上岸)하고자 할 경우 의사가 발급하는 자기(字記)를 휴대하여 해관에서 그동안의 가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음. 해관의 정류 명령을 받고도 선주 또는 승객이 해관의사의 판법(辦法)에 불복하는 경우 인천 혹은 한성에 주차(駐節)하는 해국관원에게 고명(告明)토록 함. 사판(查辦)할 때 선주 및 승객은 그 판리(辦理)에 위배됨이 없이 따라야 함. 이상 7조에 대하여 만약 각 선박 및 선상인이 의견을 달리하면 세무사는 조회(照會)를 실시하여 스스로 처리해야 함.

나) 부산해관

- 영문 공문서가 주종을 이루며, 필기체로 써져 있어 해독에 곤란함이 있음. 하지만 난잡한 필기체는 아닌 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타이핑은 가능한 수준임. 중간중간 한문 문서, 일본어 문서도 섞여 있음.
- 공문서이므로 각 문서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생산 연월일이 적혀 있어 순서를 알 수 있음.
-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무역 관련 문서가 주종임. 수입의 경우 선박세 등을 받았음. 선박의 국적, 입출국일, 도착지 정보가 적혀 있음. 선박에 선적한 물품에 대한 목록을 적은 문서도 있음.
- 15권의 경우 부산을 출입하는 상선에서 받은 세금과 선박명, 출입항 날짜를 적은 긴 명단이 있음.

다) 원산해관

- 영문 공문서가 주종을 이루며, 필기체로 쓰여 있어 해독에 곤란함이 있음. 하지만 난잡한 필기체는 아닌 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타이핑은 가능한 수준임. 중간중간 한문 문서, 일본어 문서도 섞여 있음.
- 공문서이므로 각 문서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생산 연월일이 적혀 있어 순서를 알 수 있음.
-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무역 관련 문서가 주종임. 수입의 경우 선박세 등을 받았음. 선박의 국적, 입출국일, 도착지 정보가 적혀 있음. 선박에 선적한 물품에 대한 목록을 적은 문서도 있음.
- 17권의 경우 원산해관세무사공관 지도도(地址圖)가 있음. 원산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 구체적으로 관리 여부를 구분한 후 성별, 자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원산항선박정박가규칙이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수록되어 있음.
- 18권의 경우 부과된 관세에 대한 이견을 표시하는 일본어 문서가 있음. Commissioner의 가옥을 꾸밀 가구와 사용할 주방도구에 대한 내용. 한국 소의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생기므로 수출을 금하는 내용의 한문 문서가 있음.
- 19권의 경우 원산세무사공관 건립과 관련된 한문 문서 있음.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자국 선박 활동을 정리한 일본어 문서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2권의 경우 낙장은 아니지만 페이지의 일부가 탈색이 되거나 훼손이 됨. 보존 처리가 필요함.

4)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웹뷰어를 통하여 원문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자들이 해당 도서를 이용하여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다만, 처음 스캔을 받을 당시 도서의 제본 부분이 스캔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만약 제본의 가치가 높아 제본을 해체해도 무방하다면, 그때 새롭게 이미지를 촬영하여 영구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등록가치의견

- 해관지는 1894년 갑오개혁 이전 한국에서 근대적 제도가 수용되고 정착되는 과정의 여러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 사료임. 한국에 근대 문명이 개항장을 통해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해관지는 그 수용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 사료임. 해외에서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있을 때 해관이 검역을 담당함에 따라 해관지를 통해 한국에서 검역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콜레라 방역을 위한 온역장정의 내용이 포함되는 등 의료사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사료임.
- 등록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함.

6)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현재 이 자료에 붙여진 해관지라는 명칭은 학술적 검증을 거쳐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음. 하지만 이미 해관지라는 명칭으로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변경을 할 경우 혼란도 예상됨. 명칭을 새로 정할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제명이 <해관지(海關誌)>인 22점 공문서(公文書)가 존재함.
- <해관지>는 인천해관, 부산해관, 원산해관에서, 관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책임 세무사(稅務司)가 해관을 총괄하던 서울(한양)의 총해관(總海關)에 있는 총세무사(總稅務司)에게 해관의 주요 업무와 상황 등을 정기적(定期的)으로 보고했던 공문서임.
- ‘인천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는 고종(高宗) 21년(1884)부터 광무(光武) 2년(1898)까지 인천해관에서 작성하여, 서울의 해관 총세무사(總稅務士)에게 보고한 문서를 낱짜별로 모아 합철해 놓은 것으로, 전체 14권이 존재.
- ‘부산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는 고종(高宗) 30년(1893)부터 광무(光武) 1년(1897)까지 부산해관에서 작성하여, 서울의 해관 총세무사(總稅務士)에게 보고한 문서를 낱짜별로 모아 합철해 놓은 것으로, 전체 4권이 존재.
- ‘원산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는 고종(高宗) 30년(1893)부터 광무(光武) 1년(1897)까지 원산해관에서 작성하여, 서울의 해관 총세무사(總稅務士)에게 보고한 문서를 낱짜별로 모아 합철해 놓은 것으로, 전체 4권이 존재.

2) 주요 내용 및 특징

2-1) 인천해관의 <해관지>

- (1) 구 성: 전체 14권. 앞표지, 일지(日誌), 뒤표지로 구성(권에 따라 삽화, 도면, 지도가 존재함.)
- (2) 서지사항: 본문은 영문과 한문(漢文)으로 작성됨. 각 권은 대부분 21×33.5cm 내외의 규격화된 형태로 합철되어 있음. 인천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 14권의 간략한 서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번	청구기호	권차	구분	자료명	생산년대	언어
1	古貴659-14	2권	인천 해관	JENCHUAN	1884.04.01-1884.07.30	영문, 한문
2	古貴659-14	21권	인천 해관	CHEMULPO	1884.08.02-1884.12.31	영문, 한문
3	古貴659-14	22권	인천 해관	CHEMULPO	1886.07.01-1886.12.31	영문, 한문
4	古貴659-14	3권	인천 해관	JENCHUAN	1887.01.07-1887.06.26	영문, 한문
5	古貴659-14	1권	인천 해관	JENCHUAN	1887.07.05-1888.01.12	영문, 한문
6	古貴659-14	4권	인천 해관	JENCHUAN	1889.01.03-1889.06.28	영문, 한문
7	古貴659-14	5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0.07.01-1890.12.31	영문, 한문
8	古貴659-14	6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2.01.02-1892.03.30	영문, 한문
9	古貴659-14	7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2.04.01-1892.06.24	영문, 한문
10	古貴659-14	8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3.07.06-1893.09.25	영문, 한문
11	古貴659-14	9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5.01.02-1895.03.30	영문, 한문
12	古貴659-14	10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6.04.01-1896.05.29	영문, 한문
13	古貴659-14	11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7.04.01-1897.06.30	영문, 한문
14	古貴659-14	12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8.01.04-1898.03.31	영문, 한문

(3) 서지적인 특징

- ① 표지가 “JENCHUAN, CHEMULPO”로 쓰여진 것으로 구분됨. (참고로 ‘JENCHUAN’은 중국 청(淸)나라에서 사용했던 명칭을 따라서 쓴 것임.)
- ② 보고서 양식은 ‘His corean majesty’s customs service’라고 찍힌 전용(專用) 용지를 사용했음. (참고로 이 용지는 1890-1900년대 조선 내의 외국 영사관(領事館)에서 사용되었던 용지와 동일함. 이 용지는 현재 영국 캠프리지 대학 애스톤(Aston) 컬렉션에서 볼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전용 용지 대신에,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종이에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적은 문서 형태로 작성되기도 함.
- ③ 본문은 공문서(公文書)라는 특성상 비교적 규격화된 형식을 보이고 있음. 매 면, 왼쪽 상단 부분에 해당 공문서의 번호 NO를 기입, 오른쪽 상단에는 작성된 연월일을 기입함. 각각의 공문서 번호, 작성된 일지(日誌)를 통해서 ‘인천 해관 보고문서’의 정확한 제작 시기 및 산출시기를 확정할 수 있음. 인천 해관 보관 문서는 1884년 4월 1일부터 1898년 3월 31일에 작성된 것임. (단, 해당 시기의 작성된 것 중에서 일부만 남아 있는 것임.)
- ④ 본문은 대부분 영어로 표기하여 작성. 다만, 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상황, 분기별 징수/유보 보고/무역 보고서 등은 영문과 한문, 두 가지 형태로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음.
- ⑤ 본문은 ㉠ 인천해관의 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상황, ㉡ 인천해관의 분기별 징수/유보 보고 상황, ㉢ 무역 보고서 및 송장(送狀), ㉣ 입출입 선박의 상황/세금의 징수 내용 보고, ㉤ 직원의 업무 활동/근태 상황 보고, ㉥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요청 건, ㉦ 지역의 조사 보고, ㉧ 시설의 건립 계획서 및 도안, ㉨ 인천에 설치된 조계지(租界地)와 관련된 지도 및 자세한 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음.
- ⑥ 일제강점기에는 인천 해관 보고문서가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관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것은 표지에 조선총독부 도서 청구번호가 적혀있고, 조선총독부 도서관 장서인을 통해서 확인됨.
- ⑦ 기타, 인천 해관 보고문서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인천 세관의 주요 도면, 조계지와 관련된 지도 등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료(史料)로 평가할 수 있음.

2-2) 부산해관의 <해관지>

- (1) 구 성: 전체 4권. 앞표지, 일지(日誌), 뒤표지로 구성(권에 따라 삽화, 도면, 지도가 존재함.)
- (2) 서지사항: 본문은 영문과 한문(漢文)으로 작성됨. 각 권은 대부분 21×33.5cm 내외의 규격화된 형태로 합철되어 있음. 부산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 4권의 간략한 서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번	청구기호	권차	구분	자료명	생산년대	언어
1	古貴659-14	13권	부산 해관	FUSAN	1893.10.12-1893.12.27	영문, 한문
2	古貴659-14	14권	부산 해관	FUSAN	1895.01.02-1895.06.27	영문, 한문
3	古貴659-14	15권	부산 해관	FUSAN	1896.07.01-1896.12.10	영문, 한문
4	古貴659-14	16권	부산 해관	FUSAN	1897.07.01-1897.12.31	영문, 한문

(3) 서지적인 특징

- ① 표지에 “FUSAN”으로 쓰여져 있음.
- ② 보고서 양식은 ‘Custom House Fusan’이라고 찍혀진 전용 용지를 사용했음. (참고로 이 용지는 1890-1900년대 조선 내의 외국 영사관(領事館)에서 사용되었던 용지와 동일함. 이 용지는 현재 영국 캠프리지 대학 애스턴(Aston) 컬렉션에서 볼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전용 용지 대신에,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종이에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적은 문서 형태로 작성되기도 함.
- ③ 본문은 공문서라는 특성상 비교적 규격화된 형식을 보이고 있음. 매 면, 왼쪽 부분에 공문서의 번호 NO를 기입, 오른쪽 상단에는 작성된 연월일을 기입해 놓았음. 공문서 번호, 작성된 일지를 통해서 ‘부산 해관 보고문서’의 정확한 산출시기를 판별할 수 있음. 부산 해관 보고문서는 1893년 10월 12일부터 1897년 12월 31일에 작성된 것임. (단, 해당 시기의 작성된 것 중에서 일부만 남아 있는 것임.)
- ④ 본문은 대부분 영어로 표기하여 작성. 단, 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상황, 분기별 징수/유보 보고/무역 보고서 등은 영문과 한문, 두 가지 형태로 작성되어 있음.
- ⑤ 본문은 ㉠ 부산 해관의 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상황, ㉡ 부산 해관의 분기별 징수/유보 보고 상황, ㉢ 무역 보고서(송장), ㉣ 출입 선박의 상황/세금의 징수 보고 상황, ㉤ 직원의 업무 활동/근태 상황 보고, ㉥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요청 건, ㉦ 지역의 조사 보고, ㉧ 등대 시설의 건립 계획서 및 도안 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음.
- ⑥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관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지에 조선총독부 도서 청구번호가 적혀있고, 조선총독부 도서관 장서인을 통해서 확인됨.
- ⑦ 기타, 부산 해관 보고문서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부산 세관의 등대 시설 건립과 관련된 내용, 소고기 수입에 관한 내용, 홍삼의 수출과 관련된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료(史料)로 평가할 수 있음.

2-3) 원산해관의 <해관지>

- (1) 구 성: 전체 4권. 앞표지, 일지(日誌), 뒤표지로 구성(권에 따라 삽화, 도면, 지도가 존재함.)
- (2) 서지사항: 본문은 영문과 한문(漢文)으로 내용을 기입. 각 권은 대부분 21×33.5cm 내외의 규격화된 형태로 합철되어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현재 원산해관에서 작성된 보고문서 4권을 소장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간략한 서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번	청구기호	권차	구분	자료명	생산년대	언어
1	古貴659-14	17권	원산 해관	YUENSAN	1887.01.01-1887.12.19	영문, 한문
2	古貴659-14	18권	원산 해관	YUENSAN	1888.01.06-1888.12.04	영문, 한문
3	古貴659-14	19권	원산 해관	YUENSAN	1889.01.02-1889.12.28	영문, 한문
4	古貴659-14	20권	원산 해관	YUENSAN	1893.07.06-1893.12.31	영문, 한문

(3) 서지적(書誌的) 특징

- ① 표지에 “YUENSAN”으로 쓰여져 있음.
- ② 보고서 양식은 손으로 작성한 ‘Custom House’, 전용 용지로 ‘His corean majesty’s customs service’, ‘Custom House’라고 되어 있는 용지에 필요 내용을 작성했던 것을 볼 수 있음. (참고로 이 용지는 1890-1900년대 조선 내의 외국 영사관(領事館)에서 사용되었던 용지와 동일함.) 아울러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종이에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적은 문서 형태로 작성되기도 함.
- ③ 본문은 공문서라는 특성상 비교적 규격화된 형식을 보이고 있음. 매 면, 왼쪽 부분에 공문서의 번호 NO를 기입, 오른쪽 상단에는 작성된 연월일을 기입해 놓았음. 공문서 번호, 작성된 일지를 통해서 ‘원산 해관 보고문서’의 정확한 산출시기를 판별할 수 있음. 원산 해관 보고문서는 1887년 1월 1일부터 1893년 12월 31일에 작성된 것임. (단, 해당 시기의 작성된 것 중에서 일부만 남아 있는 것임.)
- ④ 본문은 대부분 영어로 표기하여 작성. 단, 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상황, 분기별 징수/유보 보고/무역 보고서 등은 영문과 한문, 두 가지 형태로 작성되어 있음.
- ⑤ 본문은 ㉠ 원산 해관의 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상황, ㉡ 원산 해관의 분기별 징수/유보 보고 상황, ㉢ 무역 보고서(송장), ㉣ 출입 선박의 상황/세금의 징수 보고 상황, ㉤ 직원의 업무 활동/근태 상황 보고, ㉥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요청 건, ㉦ 원산 해안 지역의 조사 보고, ㉧ 원산 해관 세무사 공간도 및 항만 시설도, ㉨ 선박 방매(放賣) 증명서 등이 기술되어 있음.
- ⑥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관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지에 조선총독부 도서 청구번호가 적혀있고, 조선총독부 도서관 장서인을 통해서 확인됨.
- ⑦ 기타, 원산 해관 보고문서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원산 세관의 세무사 공간 시설 건립과 관련된 내용, 원산 해역의 지도 및 해역의 주요 내용, 원산항만의 시설도 등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료(史料)로 평가할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근대 시기에 산출된 자료의 특성상 보존 처리가 시급한 상황. 국립중앙도서관 측에서는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화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예산 상의 문제로 현재 현재 1권에서 3권까지만 보존처리가 완료된 상황.
- 따라서 나머지 책들의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황. 특히 원산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의 경우, 책의 표지 및 내지의 훼손이 심하여 이에 대한 보존처리가 필요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근대 시기에 산출된 근대문헌 자료의 최대 소장처 중의 하나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근대문헌의 보존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해관지> 전체에 대한 보존 관리 및 정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조선에 ‘해관’이 설립된 뒤로 조선 정부에서는 각 지역 해관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감리서(監理署)를 설립. 이렇게 생긴 중앙 기관과 이의 부속 기관, 총해관과 지역의 각 해관에서는 기관의 업무와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공문서가 생성됨.

- 그동안 해관이나 관련 기관에 대한 연구는 각 기관에서 만들어진 여러 공문서에 의거하여, 한국사, 도시사(都市史), 경제사, 관세사(關稅史)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조선해관의 설립과 운영의 문제, 조선해관에서의 관세 징수 상황, 고빙(雇聘) 서양인 해관원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해관과 연계된 감리서(監理署)의 연구, 각 지역별 해관의 운영 상황 등이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 · 검토

- <해관지>와 동일한 것으로 서울세관 관세박물관에 <인천해관문서>가 있음.
- 서울세관 관세박물관 소장본은 원래 인천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 중에서 1883, 1884, 1885년 일부 자료의 취합본으로 추정됨. 현재 이 자료는 서울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관지>도 그 위상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7) 등록가치의견

- <해관지>는 개항 이후에 설립된 대표적인 근대 기관의 하나인 해관(海關)의 구체적인 업무, 외교·통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임.
- <해관지>는 각 해관의 개설과 함께 동시에 작성되어 원래 방대한 수량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그 일부인 22권만 남아 있음. (기타 기관 및 개인 소장본 제외.)
- 그동안 ‘해관’에 대한 연구는 개항 이후에 설립된 근대 기구로서의 면모, 조선 해관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법령, 인사조직, 관세의 징수실태와 운용, 해관 업무), 조선 해관에 채용된 고빙 서양인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이 연구를 통해서 개항 및 근대 계몽기의 역사, 문화적 상황에 대한 재구(再構)가 가능해짐.
- 그러나 <해관지>가 지닌 근대 자료의 중요성에 비하여 자료의 보존 및 관리는 미흡한 상황. 해당 자료는 제작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문서 작성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 문서 작성과 수신(受信)의 상황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문화재 등록의 가치인 자료의 희소성, 대표성, 소장 경위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시급하게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관지>라는 명칭으로 일반인들과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시정이 요구됨. 이 명칭은 당시 해관에서 명명한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자료를 보존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붙인 것임. 이로 인해서 <해관지>를 해관에서 작성된 일지(日誌)로 착각하기가 쉬운 상황. 따라서 자료의 성격과 실상에 맞는 정확한 명칭 부여가 필요함.
-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 이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관지> 및 유관 자료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7. 「동학농민군 편지」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장 「동학농민군 편지」의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명칭 변경 검토('22.4.26.)를 거쳐 변경 예고한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에 대하여 명칭 변경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2)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대상문화재	작성자	변경(안)	변경요청 사유
동학농민군 편지 (‘21.7.1. 등록)	유광화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만명이 참여하였으나 현재 3,694명만 확인되어 관련 유물이 희소함 - 참여한 자의 이름을 문화재명에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참여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음
동학농민군 편지(2022) (‘22.2.10. 등록)	한달문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3) 추진경과

- ('22.3.11.) : 문화재 명칭변경 신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문화재청)
- ('22.4.4.) : 문화재 명칭변경 서면 검토 실시
- ('22.4.26.) :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원안가결’

(4) 등록예고 : '22.5.11.~6.9.(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인물명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 상황을 반영하는 등 유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등록 예고한 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명칭변경에 대한 종합의견(서면검토)

○ 문화재위원 ○○○

- 해당 유물은 2021년 7월 1일 유광화 편지의 문화재 등록시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를 ‘동학농민군 편지’라는 명칭으로 하고 이후에 한달문 편지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2022년 2월 10일 한달문 편지의 문화재 등록시 이를 준용한 바 있음
- 그러나 문화재 등록번호 제도 폐지('21.11.19)로 유광화 편지와 한달문 편지는 각각 동학농민군 편지와 동학농민군 편지(2022)로 명칭을 부여하게 되어 해당 문화재 명칭이 각 유물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향후 문화재 검색 등에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문화재 등록 명칭인 ‘동학농민군 편지’를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유사한 의견은 등록 조사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있음
- 문화재 명칭에 인물명을 사용한 예는 현재 다수 확인되는 상황이며, 문화재 등록번호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문화재 명칭은 국민의 문화재 접근과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적·잠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동일 명칭 식별을 위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등록 연도 표기를 병기하고 있는 방안은 문화재의 제작시기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향후 명칭 부여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됨

○ 문화재전문위원 ○○○

-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유광화의 한문 편지는 동학농민군의 전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당시 역사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편지라고 할 수 있음.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한달문의 한글 편지는 나주감옥에 수감중 어머니에게 구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유일한 옥중서신으로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음
- 각 편지의 등록명칭인 ‘동학농민군편지’, ‘동학농민군편지(2021)’라는 명칭은 문화재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음. 편지의 특징은 작성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작성자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함. 편지 형식의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 그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명칭에 작성자의 이름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음. 현재의 ‘동학농민군 편지’라는 명칭에는 작성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작성자의 이름을 넣은 명칭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 현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편지 중 다음의 사례가 있음
 - 김지섭 의사 편지 :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김지섭 의사의 편지도, 작성자의 이름을 넣어서 문화재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음
 -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봉투 및 의거자금 송금증서 :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이봉창 의사의 편지와 봉투에도, 작성자의 이름을 넣어서 문화재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8. 「통영 하동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통영 하동집」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9.10.2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8.4.)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통영시장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통영 하동집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4길 33-5(명정동 249-4)
 - 소유자 : ○○○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14년
 - 구조 및 규모 : 전통한옥(목조, 기와), 1층, 건축면적(연면적) 76.4㎡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10.29.)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통영시 → 문화재청)
 - ('20.8.4.)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축당시는 4채였으나 현재 사랑채 1동만 남아있으며 남아있는 건물도 변형이 심하고 변형과정에 대한 고증자료 부족과 변형이력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의 등록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8.4.)

- 신축 당시의 4채중 1채만 남아있고, 현존 건물도 전통 목구조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축적 측면에서 건축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음.
- 공간구조와 바닥 및 창호 등 변형이 심하고, 변형과정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임. 건축적 가치에 비해, 신청 건물이 갖고 있는 지역사적, 사회사적 의미는 크지만 종합적으로 국가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정도의 가치로 높지는 않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8.4.)

- 통영 하동집의 경우 근대기 한옥이 갖는 공간구성 및 유산의 완전성과 가치 입증 여부가 어려운 상태이며, 현존하고 있는 사랑채의 경우 2015년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유산의 진정성 및 재질 및 기법 등 가치보유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낮은 것으로 사료 됨.

○ 문화재전문위원 ○○○('20.8.4.)

- 통영 하동집은 현재 사랑채만이 현존하고 있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붕 구조 이하의 부분이 대부분 변형되어 국가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10명 / 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통영 하동집 (구) 통영 하동집
2. 용 도 : (현)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원) 주거시설(한옥)
3.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4길 33-5
4. 소유자 : ○○○
5. 시설물 개요
 - 구조 : 목조
 - 제작년도 : 1914년(상량문)
 - 수량 및 면적 : 1동, 면적 76.4㎡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20.8.4)

<문화재위원 ○○○>

1) 개요

- 1914년에 건축되었으며, 신축 당시는 마당을 가운데 두고 4채 '口'자형 배치를 이룬 주택이었으나, 1990년대초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사랑채(현존 건물)을 제외한 3개 동이 철거되었다.
- 해방전에는 판소리 공연과 서양 클래식 연주가 행해진 바 있어 통영의 문화예술의 정체성과 인연이 깊은 집이며, 건국준비위원회 회의실로도 사용된 바 있다. 시인 백석의 연인으로 알려진 '란', 통영 출신 박경리 소설 '김약국의 딸들' 배경지의 배경이기도 하다.
- 통영의 3대 부자로 통했던 하동집은 근대기 통영의 산업, 항일운동, 문화예술 분야 등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의미 깊은 공간이며, 한옥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전통 목구조의 특징을 잘 갖고 있는 주택이나, 신축후 10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증개축이 이루어져 신축 당시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 현재 모습으로 신축 당시의 모습을 추정하면, 전면 중앙의 3칸에 양 끝에 반칸씩 위치하며, 측면은 1칸 반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을 바라보고 우측에는 방과 창고가 증축되었다.
- 전면의 반칸은 실내화 되어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내화된 반칸 역시 증개축 과정에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나, 신축 당시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내부의 목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나, 보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설치된 기둥이 설치되었다.
- 주택의 우측 단부에 방과 창고가 증축되었으며, 전면의 반칸은 실내화되었다.
- 실내 바닥이 외부와 높이 차이가 작는데 이 역시 사용과정에서 증개축행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좌측 전면에는 화장실이 위치해 있는데, 이는 증개축과정에서 추가되어 원 모습에서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축 당시의 창호는 현재 없다.
-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노후화에 따른 하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신청 건물이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며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변이 주택지로 개발압력이 없어 보존관리 및 환경은 양호한 편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게스트하우스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재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되면서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현재의 용도를 유지하겠다는 소유자의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소유주와 통영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근대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 건물물은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개발 압력을 받는 곳이 어니어서 멸실의 위험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비교 대상으로 적절한 대상이 없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신청건물은 신축 당시의 4채중 1채만 남아있고, 현존 건물도 전통 목구조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축적 측면에서 건축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다.
- 공간구조와 바닥 및 창호 등 변형이 심하고, 변형과정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건축적 가치에 비해, 신청 건물이 갖고 있는 지역사적, 사회사적 의미는 크지만 종합적으로 국가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정도의 가치로 높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1914년 통영 3대 부자인 하동집은 명정동 249번지 1,177㎡(추정) 대지에 본채, 아래채, 위채, 사랑채 등 4동의 건물이 口자형 배치로 구성된 근대기 한옥(사랑채 대들보 상량문을 통해 1914년 갑인년(甲寅年) 건축 사실 확인: 건립 당시의 토지 대장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나 제출서류 미비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함)으로 이후 박성옥(1914년), 박희영(1933년), 박형규(1971년)에 의해 관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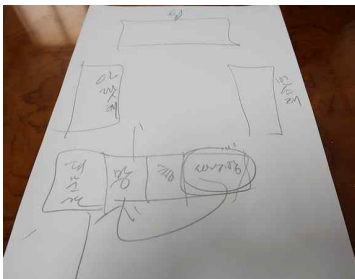
- 1992년 주변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아래채, 위채, 본채 등 기존 건물과 후원의 일부가 철거되어 현재 사랑채만 남아 있음.
- 2015. 06 사랑채 마루와 방 등 내부와 외부를 현대식 디자인과 재료를 사용하여 수리하고 현재 숙박시설(한옥스테이 ‘잇음’)로 운영하고 있음(한옥 골조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기둥, 대들보, 지붕).

2) 토지(임야)대장 현황

- 249번지(원필지) 분할 내역 [일제강점기 및 1970년 이전 서류 확인이 필요함-서류 미제출]
 - 1971. 5. 18. : 249번지가 249-1(317㎡), -2(317㎡), -3(325㎡), -4(218㎡)로 분할 (원필지 확인필요)
 - 1979. 12. 13. : 249-4번지가 -4번지, -5번지로 분할
 - 1983. 12. 17. : 249-3번지가 -3번지, -6번지로 분할
 - 1984. 5. 11. : 249-6번지가 -6번지, -7번지로 분할
 - 1991. 5. 4. : 249-1번지가 -1번지, -8번지로 분할
249-2번지가 -2번지, -9번지로 분할
 - 1992. 2. 20. : 249-2번지가 -2번지, -10번지로 분할
 - 1992. 9. 30. : 249-8, -9번지 지목변경(대지→도로)
249-8, -9번지가 253번지와 합병되어 말소
 - 2011. 7. 20. : 249-2번지와 -10번지 합병

3)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내용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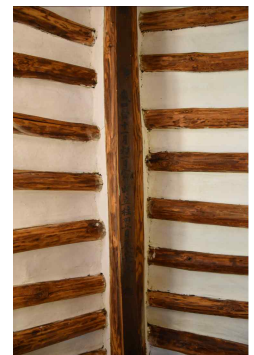
- 평면 : 건립당시 하동집은 ㄱ자 형태(사진 참고) 배치로 본채, 위채, 아래채, 사랑채 4채의 건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사랑채만 남아 있음. 사랑채는 2015년 내, 외부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방과 거실(툃마루)과 부엌, 화장실을 설치하여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음.
- 구조, 벽체 : 한식 목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루와 외벽은 새로운 재료로 개 보 수되었음.
 - 지붕 : 한옥 목구조 기와지붕으로 팔작지붕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의장 및 장식 : 외부 창호와 내부 장식은 현대식으로 개조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 목재는 재사용하고 있음.



통영 하동집 개략도



통영 하동집 철거전 전경



사랑채 상량문



통영 하동집 관련 기록사진

개보수 공사후 사랑채 내부

4)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형태 및 외부입면: 1992년 주변의 도로 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물들(본채, 아래채, 위채)이 철거되어 근대기 한옥 주거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재 남아 있는 사랑채 경우도 2015년 내, 외부 공사로 가옥 형태 및 입면 원형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임.
- 내부와 공간: 본채, 아래채, 위채 등 관련 건물들의 철거되어 원형확인이 힘들며 현존하는 사랑채도 내, 외부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원형확인이 힘든 상태임.
- 주요 수리공사 이력
 - 1992년 주변의 도로개설로 본채, 아래채, 위채 등 기존 건물과 후원 일부가 철거됨.(사랑채 현존)
 - 2015년 사랑채를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 외부 공사(기본 골조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기둥, 대들보, 지붕)를 실시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① 통영문화 스토리텔링과 하동집
 - 통영 3대 부자 ‘명정동 하동집’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 시인 백석이 사모한 여인 ‘란’/ 충렬사 및 호주선교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 ② 통영 문화 활동의 근거지 하동집
 - 통영 하동집은 시인 백석의 연인으로 알려진 ‘란’, 통영 출신 박경리의 소설 ‘김약국의 딸들’ 배경지, 통영청년단 회관 및 통영현악 4중주단 등 통영의 문화, 예술과 연관이 있는 건물로 이후 박성옥/ 박성호/ 박성숙 3명의 삼형제가 재산을 물려받아 관리하였음.
 - 박성숙은 통영청년단 회관 건립 기금 모금, 브라스밴드 단원 등으로 활약한 문화운동가이며 박성숙의 딸이 백석의 연인으로 알려진 ‘란’ 박경련
 - 박성호의 아들 박기영(일명 수천당의원)은 광복 이후 윤이상, 최상한, 탁혁수와 함께 통영현악 4중주단으로 활동하며 통영의 음악, 예술 발전에 기여함.
 - 박성옥의 아들 박희영은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제고보를 졸업하고 영어에 유창하였으며, 하동집 사랑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등 문화예술과 교분을 형성한 장소이며 광복 이후 건국준비위원회 회의장소가 되기도 함.
 - 통영 출신 소설가 박경리는 하동집과 이웃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김약국의 딸들’을 집필.

6)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문화재보존 여건) 중요무형문화재 64호로 지정된 두석장, 통영 경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통영 서호동 장공장 등의 근대유산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영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지와 인접하고 있어 보존 및 활용도가 높음 편임.

7) 동일 유형 기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① 동일 유형 기등록 문화재

- 기등록된 등록문화재 중 근대기 주거유산의 경우 청주 문화동 일·양 절충식 가옥을 비롯하여 61건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의 등록문화재는 일제강점기 건립되었으며, 통영지역의 근대기 주거 유산으로 등록된 가옥은 통영 김상옥 생가를 비롯하여 5건으로 추정됨.

②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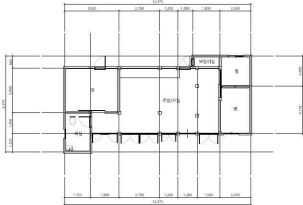
-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영주 영주동 근대기 주거와 통영 하동집을 비교하면 건물들이 (본채, 아래채, 위채) 소실되어 주거건축이 갖는 배치 원형과 공간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존하는 사랑채의 경우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원형이 훼손된 상태임.

8)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유산의 완전성(Integrity, 유산의 가치 입증 여부) 확보
 - 통영 하동집의 원형은 명정동 249번지 1,177㎡(추정: 확인필요) 대지에 본채, 아래채, 위채, 사랑채 등 4동의 건물이 口자형으로 구성된 근대기 한옥으로 추정되나 (사랑채 대들보 상량문을 통해 1914년 갑인년(甲寅年) 건축 사실 확인) 1992년 주변도로 개설에 따라 사랑채 건물만 현존하고 있어 근대기 주거유산이 갖는 완전성을 상실함.
 - (물리적 재질이 갖는 특징) 현존하는 사랑채는 한식 목구조의 기본 골조(기둥, 대들보, 지붕)를 유지하고 있으나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대식 재료를 사용하여 가옥의 내부 공간구조 및 외부 마감 등이 변형되어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주변 개발 또는 방치로 인한 영향) 1992년 도로 공사로 인하여 하동집과 주거지 환경과의 맥락이 변형되어 근대기 주거유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및 기법 등 가치보유 여부) 유지
 - (형태와 디자인유지 여부) 건립 당시 통영 하동집은 4채 건물로 형성된 口자형 근대시 한옥이었지만 현재 사랑채만 남아 있어 동시기 근대기 한옥주거가 갖는 공간구성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함.
 - (재료와 물질유지 여부) 현존하고 있는 사랑채의 경우 2015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간이 변형되었으며 현대식 재료를 사용하여 내, 외부를 개보수하여 원재료의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용도와 기능유지 여부) 통영 하동집(한옥주거)의 주 출입구 및 진입공간은 주변도로개설로 인하여 변형되어 동 시기 주거건축이 갖는 공간형식과 기능을 소실하였음.

9) 종합의견

- 통영 하동집의 경우 근대기 한옥이 갖는 공간구성 및 유산의 완전성과 가치 입증 여부가 어려운 상태이며, 현존하고 있는 사랑채의 경우 2015년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유산의 진정성 및 재질 및 기법 등 가치보유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낮은 것으로 사료 됨.



사랑채 평면



하동집 진입부



사랑채 마당



사랑채 바깥마당



개보수 공사후 사랑채 입면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통영 하동집은 1914년에 지어진 주택의 사랑채로서 본래 위채와 아래채, 빈소채를 합쳐 4동의 건축물이 '口'자 형태로 배치되어 일곽을 형성하고 있었음. 따라서 조사 대상 건축물은 통영 하동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음.
- 근대기 통영의 3대 부자 중 하나인 밀양박씨 집안의 주택으로서 통영의 근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음.
- 필지가 분할되어 사랑채와 마당 일부만이 남아있고, 사랑채는 2015년 리모델링 이후 현재 휴게음식점으로 활용되고 있음.
- 통영 하동집의 아래채로 추정되는 한옥이 서쪽편에 위치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된 4동의 건축물이 일곽을 형성했던 통영 하동집의 원형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
- 1970년대에 촬영된 것이라고 알려진 사진을 보면 마당을 중심으로 '一'자 형태의 팔작 기와지붕 건물 4동이 배치되어 있어, 4동 모두 전통적인 한옥 건축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 마주보며 배치된 위채와 사랑채를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된 아래채와 빈소채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위채가 가장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추정됨.

- 안채 역할을 했던 위채는 남동향하여 지어졌고 맞은 편이 사랑채는 서쪽의 대문 칸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방과 대청, 사랑방이 연결된 4칸 규모의 구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구는 5량가 규모임.
- 현재는 건축물의 중앙 부분은 주방 및 휴게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좌우를 작은 실로 구획하여 상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와 같은 휴게음식점으로 리모델링되기 이전에는 서쪽으로부터 주방 및 식당, 화장실이 배치되고 복도를 따라 방이 연속된 구성이었음. 리모델링되기 이전의 내부 공간 구성 역시 변형된 것으로 판단됨.
- 기둥 위쪽의 지붕 목구조는 부분적으로 수리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인 구조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둥과 벽체 등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대부분 변형된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주변이 일반적인 주택가로서 급격한 대규모 개발 수요가 예상되지 않으나 소규모의 신축 또는 증축의 가능성은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의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민간 소유의 건축물로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되었고, 현재는 휴게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어 별도의 구체적인 보존관리 계획은 불명확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민간 소유의 상업건축물로서 현재와 같은 용도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국가등록문화재로서 근대 한옥이 다수 등록되어 있음.
- 조사 대상 건축물은 전체적인 일곽 중 사랑채 만이 현존하고 있어 건립 당시의 전체적인 원형을 확인하기 어렵고,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 구성 등이 변형되어 동일 유형의 등록문화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통영 하동집은 현재 사랑채 만이 현존하고 있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붕 구조 이하의 부분이 대부분 변형되어 국가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가치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한다면 명칭은 '구 통영 하동집 사랑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9. 「구산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하남시 소재 「구산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7.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2.3.24.)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구산성당
 -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1
 - 소유자 :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56년 준공, ※ 2016년 이축
 - 구조 및 규모 : 벽돌 조적조, 지상 1층, '一'자형 성당, 건축면적 131.48㎡, 연면적 131.47㎡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7.9.)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경기도 → 문화재청)
 - ('22.3.24.)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원 모습을 유지한 채 이축한 구산성당은 도시개발로 인한 훼손 및 철거 위기에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이축이 되면서 구산성당이 가지고 있는 성지의 지리적 가치, 언덕지형의 상징성, 주변 공간과의 관계 등이 소실된 점을 감안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 ○ ○ ○ ○ ○ ('22.3.24.)

- 구산성당은 20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신앙공동체인 구산마을에서 1956년 지금의 모습을 갖춘 성당을 짓게 되었고, 신도들이 직접 한강에서 채취한 모래와 자갈을 시멘트로 비벼 벽을 세우고, 노기남 대주교가 보내준 명동성당을 짓고 남았던 목재로 만든 성당이다. 교회는 장식이 없어 소박하고 돌과 모래를 나른 마을 사람들의 신심이 묻어나는 성당이다. 구산성당은 지역 마을과 교회를 넘어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역사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당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구산성당의 원형 이전은 비목조건축으로는 첫 시도로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 속 근대유산의 보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근대유산은 가치형성 중인 유산이고, 가치 형성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보존하지만 향유주체는 후손이라는 점에서, 근대건축물의 보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목조건축 문화재와 구별되는 특징과 역할이 있는데, 원 모습을 유지한 채 이축된 구산성당은 이러한 근대건축 유산의 특징과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구산성당의 경우 건물 자체의 중요도에도 의미가 있지만 공소시절부터뿐 아니라 건물의 건축부터 원형이동까지의 역사성, 또한 조적조 근대 건축물로서의 첫 원형이동,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모범적 사례로서의 문화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 ('22.3.24.)

- 도시개발로 인한 훼손 및 철거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한 사례로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보호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지역의 천주교사적 측면에서 구산성당이 차지하는 위상과 더불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기술에 대한 모범적 사례로서 대내·외적으로 적극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폭 넓게 활용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다만, 문화유산적 관점에서 현재의 구산성당이 갖는 진정성, 완전성 등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건축사적으로 기존 사례들과 견줄만한 건축적 특징 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등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을 위한 당위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보임.
- 이에,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존에 이축하여 등록한 사례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시도등록문화재를 포함한 다양한 보존방안을 논의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2.3.24.)

- 이축이 되면서 기존의 맥락과 구산성지와 멀어졌으며, 이축 시 건축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노력한 점은 높이 살 수 있으나, 원래 위치에서 갖고 있던 언덕 지형의 입지적 특색이나 주변 공간과의 관계가 손실되었음. 구산성당의 경우 건축물 자체의 가치보다 한강변 높은 지대에 위치한 성지의 지리적 가치, 언덕지형의 상징성 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잃어버린 점이 아쉬움.

바. 의결사항

○ 부결

-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10명 / 부결 5명, 원안가결 2명, 보류 2명, 제척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구산성당 (구) 구산성당
2. 용 도 : (현) 종교시설 (원) 종교시설
3.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1
4. 소유자 :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조적조(벽체), 목조트러스(지붕)
 - 준공일 : 1956년 ※2016년 이축(移築)
 - 수량 및 면적 : 1동 / 지상1층, 건축면적(131.48㎡)

6. 조사자 의견('22.3.24.)

<○○○○○ ○○○>

1) 개요

- 구산성당은 올해로 공소 186주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천주교회 역사의 현장으로, 구산성당이 위치했던 구산마을은 한국 최초의 서양인 신부인 모방(Maubant) 신부가 은거하며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세 소년을 마카오 신학교에 보내 오늘의 천주교회를 만든 곳이다.
- 박해(1839)에도 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6·25 전쟁 당시 신부와 신학생을 지켜낸 곳이며, 1830년대 순교 성인 김성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공동체를 현재까지 원 모습대로 간직한 교회와 순교의 열이 살아있는 곳이기도하다.
- 박해와 도시화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왔던 구산마을이 LH(토지주택공사)의 미사강변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주민들은 아파트로 가득 찬 신도시와 주변으로 흩어졌고, 성당의 철거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2016년 원래의 위치에서 원형이 해체되지 않고 이축되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고딕건축양식을 모델로 지어진 지역의 작은 성당이다. 1.0B의 조적조 벽체로 지어진 까닭에 창호는 세로로 긴 창호로 구성되었으며, 구조적으로 취약할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부축벽(buttress)이 설치되었다.
- 주출입구 중앙에 종탑이 설치되고 좌우에는 부출입구가 설치되었다. 지붕은 목재트러스로 구성되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구산성당은 무근콘크리트 줄기초위에 시멘트벽돌 1.0B쌓기로 지어진 건축이며, 벽체에는 부축기둥(buttress)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구조는 이축과정에 그대로 보존되었다.

- 구산성당은 이축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의 보강이 행해졌다.
 - 기초부분 : 철근을 보강하여 이동시 발생하는 진동에 견딜 수 있는 강성의 기초부 단면적 확보.
 - 시멘트벽돌벽체 : 내벽에 철근콘크리트 옹벽보강하여 보강된 기초부와 연결(시멘트벽돌벽체와 접착력강화를 위한 캐미칼양카 연결)
 - 내부보강 : 기둥의 종단부분에 철재기둥 및 보를 가설하고, 횡방향으로 보강하여 이동시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함.
 - 보강된 기초가 이동시 찌그러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바닥을 수평으로 가새 설치.
- 이동건물 하부에는 철재형강 하부에 이동용 로라를 설치하고, 미리 가설된 철재 레일을 따라 유압자키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동시켰다.
- 상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구산성당은 원 모습이 진정성있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전 뒤 이루어진 뒤 행해진 내부 마감공사에서 예산의 문제로 인해 일부 원 모습대로 복원되지 않았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신청 건물은 예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변의 개발이 완료되어 주변 환경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하남시 신앙공동체의 중심인 현 구산성당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지하겠다는 구산성당의 계획은 구산성당을 보존하려는 진정성이 보존 노력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어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보존 관리 계획은 이미 상당 부분 실현되었으며, 현재 사용중인 내부 공간에서 원 모습과 다른 부분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상 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유사한 규모의 성당은 지역에 많이 존재하나, 자신들의 신앙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신도들만의 십시일반으로 성당을 보존하고 이전하여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한 사례는 국내에서 첫 사례여서 적절한 대상이 없다.
- 이축된 사례로 익산의 삼산의원의 사례가 있으나, 삼산의원은 부분 절단을 통한 해체후 이축한 사례이며, 이외에도 건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여 이축된 사례가 있으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며 이축된 사례로는 구산성당이 유일하다.
- 구산성당을 통해 근대유산의 보존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노하우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구산성당은 20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신앙공동체인 구산마을에서 1956년 지금의 모습을 갖춘 성당을 짓게 되었고, 신도들이 직접 한강에서 채취한 모래와 자갈을 시멘트로 비벼 벽을 세우고, 노기남 대주교가 보내준 명동성당을 짓고 남았던 목재로 만든 성당이다.

- 교회는 장식이 없어 소박하고 돌과 모래를 나른 마을 사람들의 신심이 묻어나는 성당이다. 구산성당은 지역 마을과 교회를 넘어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역사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당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구산성당의 원형 이전은 비목조건축으로는 첫 시도로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 속 근대유산의 보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근대유산은 가치형성 중인 유산이고, 가치 형성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보존하지만 향유주체는 후손이라는 점에서, 근대건축물의 보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목조건축 문화재와 구별되는 특징과 역할이 있는데, 원 모습을 유지한 채 이축된 구산성당은 이러한 근대건축 유산의 특징과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구산성당의 경우 건물 자체의 중요도에도 의미가 있지만 공소시절부터뿐 아니라 건물의 건축부터 원형이동까지의 역사성, 또한 조적조 근대 건축물로서의 첫 원형이동,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모범적 사례로서의 문화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구산성당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등록신청 대상은 오늘날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에 위치한 (재)천주교수원 교구유지재단 소유의 구산성당 예배당 건물로 과거 조선시대에는 이 일대를 ‘구산(龜山)’이라는 지명으로 불러 왔다고 함.
- 여기에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시기는 1836년쯤으로 이곳에서 나고 자란 ‘성인 김성우’가 살던 집에서 최초 공소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해방 및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의 역사 속에서 ‘구산성지’ 및 ‘구산성당’ 등 여러 유형의 관련 시설들이 남아 있음.
- 하지만, 지난 2010년 이 일대가 ‘미사 택지지구’ 지정됨에 따라 도시개발로 인해 구산성당을 비롯하여 인근에 위치한 구산성지 등 천주교 관련 시설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다행히 구산성지는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어 보존이 결정된 반면, 구산성당은 철거가 불가피하였으나 지난 2016년 본래의 위치에서 약 200m 옮겨와 현재의 위치에 이축, 보존하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예배당으로 사용 중에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현존 예배당 건물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6년 건립되었으며 당시 신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고 인근 한강변에서 구해 온 자갈 등을 건축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건물은 단변을 정면으로 하는 종장방향의 一자형 평면을 구성하고 정면 중앙에는 종탑이 있는 높은 첨탑을 설치하는 등 소위, 강당형 예배당 건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첨탑은 종탑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2층 높이로 구획하였으며, 2층 세 면에는 루버창을 포함한 수직 창호 2개와 장미창 형태의 원형 창호 1개씩을 설치하여 의장의 다양성을 주었음. 지상부에서도 첨탑 세 면에 출입구를 내고 상부에는 반원 형태의 삼원 아치로 장식하였음.

- 침탑 뒤편으로는 중앙에 주출입구를 두었고 그 양쪽으로 포치 형태의 별도 지붕이 가설된 부출입구를 각 1개소씩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본래의 것이 아닌 1980년대에 새롭게 달아낸 것이라고 함.
- 내부는 하나의 넓은 통칸으로 구성하였고 출입구 안쪽 상부에는 중2층 형식의 성가대석을 설치하였으며 회중대는 종방향으로 2열의 장의자를 놓고 그 앞쪽에 제대를 설치하였으나 제의실, 엠스 등의 공간은 별도로 두지 않았음. 제대 우측편으로 외여단이 철제문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에 투명에폭시 처리를 하였는데 증언에 의하면 본래는 장마루가 깔려 있었다고 함
- 정면과 배면 및 좌·우측 벽면에는 모두 스테인드글라스의 수직창호를 설치하였는데 본래의 것이 아닌 것으로 후에 교체된 것이라고 함. 좌·우측 벽면에서 머트레스를 각 3개소씩 설치하였으며 지붕과 벽체가 만나는 곳에는 수평띠 모양의 코니스 장식을 3단으로 처리하였음.
- 외부벽체는 콘크리트로 줄기초 위에 벽돌을 쌓고 그 위에 모르타르 뽀칠을 한 후, 수성페인트로 마감한 것으로 보이며 상부 지붕가구는 목조트러스를 짜고 그 위에 나무개판을 깔았음. 현재는 지붕가구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나 본래는 목재로 된 천정 반자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임. 지붕면은 동판으로 마감하였으나, 최초에서 골합석이었다고 하며 경사지붕 양쪽에 각 2개씩의 도머창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나, 내부에서는 개판에 막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동 예배당 건물은 신축 이후 현재까지 크게 3차례 현상이 변경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축 이전(1956년~2016), 두 번째는 이축 과정(2016.9.~2017.2.), 세 번째는 이축 이후 원형회복 과정(2019.3.~2019.7.)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성당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위해 마감재 및 창호 교체 등 일상적인 변경이외에, 좌·우 출입구 지붕 포치 증축과 함께 내부 바닥 교체(마루에서 콘크리트로)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다만, 이축공사 과정에서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등 문화유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의지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당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노후화 상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내부 성가대 난간 미설치 등 여전히 부분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소유로 현재도 성당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도시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놓인 것을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축, 보존한 상황으로 보면 향후에도 훼손 및 멸실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인근에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구산성지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주변 환경적 측면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 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 전례의 상황을 알려주는 역사적 장소라는 사실과 함께 문화유산의 원형 이전 보존 사례라는 측면에서 소유자와 관할지자체측에서는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며 보존·관리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인근에 위치한 ‘구산성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천주교 역사를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설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한국전쟁 이후, 건립된 천주교 예배당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앙의 긴 종탑을 중심으로 一자형의 종장방향 평면을 구성하고 목조트러스로 지붕가구를 구축하고 있는 측면에서 소위, 강당형 예배당이라고 일컫는 건축적 보편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훼손 및 철거 위기에 처한 건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축한 것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축 후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로는 ‘대전 대흥동 일·양절충식 가옥’과 ‘인천세관 구창고’에서도 볼 수 있음.
- 다만, 구산성당의 경우에는 이축 과정에서 원형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가 아닌 레일을 깔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을 시도한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존 사례들과는 차별화된 것이라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도시개발로 인한 훼손 및 철거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한 사례로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보호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지역의 천주교사적 측면에서 구산성당이 차지하는 위상과 더불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기술에 대한 모범적 사례로서 대내·외적으로 적극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폭 넓게 활용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다만, 문화유산적 관점에서 현재의 구산성당이 갖는 진정성, 완전성 등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건축사적으로 기존 사례들과 견줄만한 건축적 특징 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등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을 위한 당위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보임.
- 이에,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기존에 이축하여 등록한 사례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시도등록문화재를 포함한 다양한 보존방안을 논의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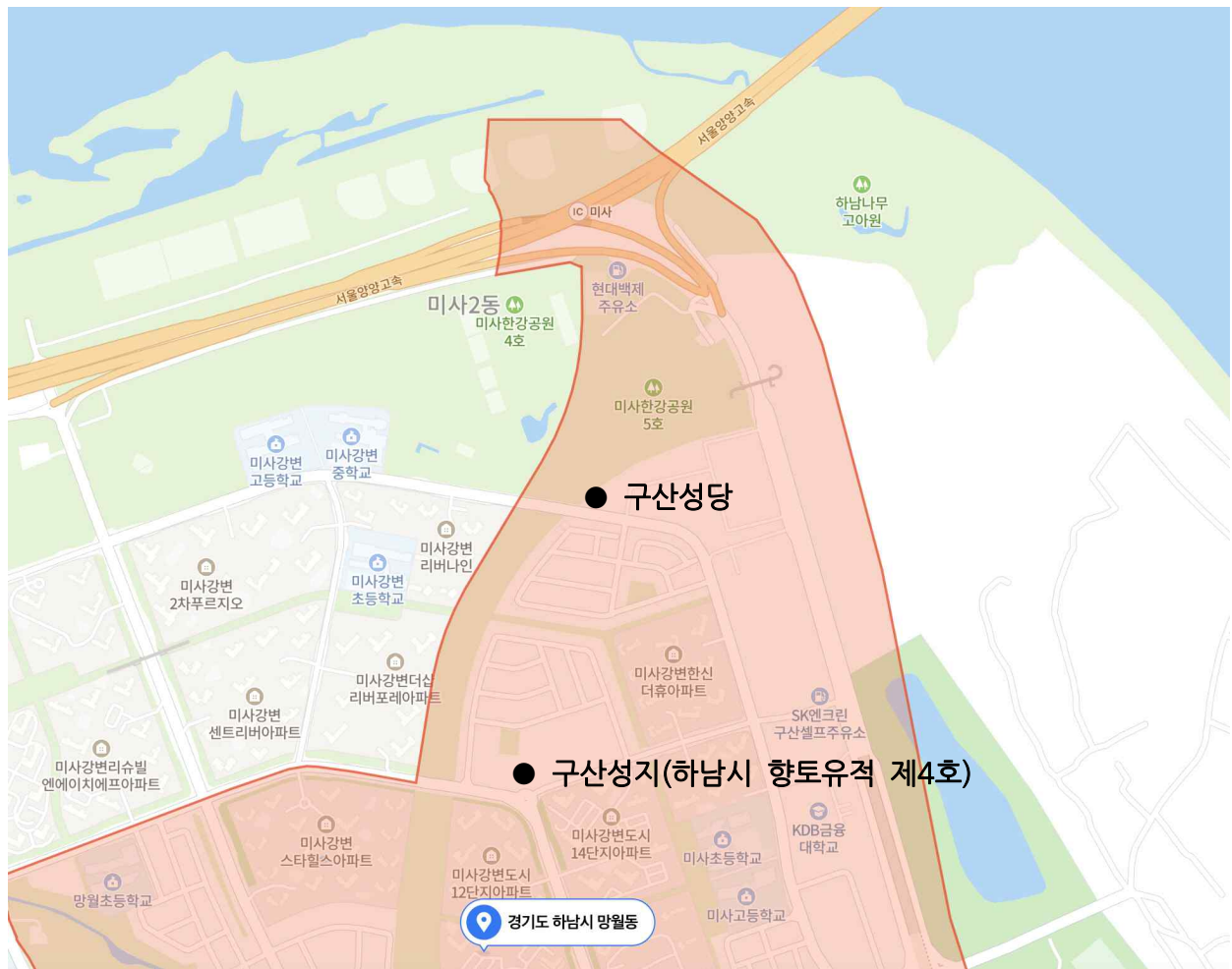
- 등록 시 명칭은 「하남 구산성당」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구산성당은 1956년 건립된 벽돌 조적조 성당임. 6.25 전쟁 직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자들의 노력으로 완공되었으며, 한강변에서 신자들이 직접 자갈을 날랐다는 일화가 전해짐. 성당이 위치한 구산마을은 김성우 성인 등 여러 순교자들의 출생지이자, 박해기인 1830년대부터 교우촌이 있었던 한국 기독교 사에서 중요한 장소였음.

- 구산성당은 지금은 신도시 개발지역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에 위치함. 이는 원래 망월동 358-3번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건물을,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2016년 200m 정도 떨어진 망월동 833번지 현 위치로 이축한 것임.
- 구산성당에서 남쪽으로 350m 떨어진 곳에는 김성우 신부 등 순교자들의 묘역이 있는 천주교 구산성지(망월동 387-10)가 보존되어 있으며, 하남시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어 있음
- 미사지구 택지개발 추진 시 구산성지는 2001년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보존될 수 있었으나, 구산성당 부지는 개발지에 포함되어 성당 건물이 철거 위기에 처하였음. 신자들과 기업,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이축하여 보존될 수 있었음. 이축 시 해체하지 않고, 레일을 설치하여 통째로 이동하여 보존하였음.



[구산성당의 위치 및 주변 현황]

2) 건축물의 이력 및 이축 현황

- 구산공소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 남아있는 구산성당 건물은 1956년 건립되어 2016년 현재 위치로 이축된 것임. 건물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 레일을 깔아 수평 이동 하여 원형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음.
- 이축 후 2019년 상반기 복원공사가 있었음. 이축 후 내부 천장 마감을 하지 않는 인테리어로 변경되면서 현재 노출되어 있는 지붕부의 트러스 부분이 수리하는 등 내부공사가 있었으며, 외벽의 재도색도 이루어짐.

<주요 연혁>

- 1836년 김성우 성인의 생가에 구산공소 설립
- 1946년 초가 건물을 공소로 마련 (망월리 322-14)
- 1955년 신축부지 502평 매입 (망월리 358-3)
- 1956년 구산공소(현 구산성당) 준공
- 1979년 구산본당으로 승격
- 2016년 현 자리로 이축

3)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일자형 성당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며, 장방형 평면이지만 내부 구획이나 아일(aisle)이 없는 단순한 구조임.
- 정면 가운데에 사각 종탑이 있는 대칭형 입면이며, 종탑부 1층 입구에는 정면과 양측면 모두 아치형 개구부가 있음. 1층 정면입구 아치에 키스톤을 강조하여 장식한 것은 후대의 변형으로 보임. 창문은 모두 상하로 긴 직사각형인데, 종탑 상부의 정면과 측면 창위에는 직사각형 창 위에 원형창이 하나 더 나있음.
- 구조적으로는 벽돌 조적조이며, 시멘트 벽돌을 사용하였음. 기초부는 콘크리트 줄기초(강자갈 사용 콘크리트로 추정)로 되어있으며, 건물의 몸체는 시멘트 벽돌 조적조 위에 시멘트몰탈 뽐칠 후 페인트로 도색하였음.

4)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하남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마감재의 교체 이외에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는 없었다고 하지만, 60년 이상 계속해서 성당으로 사용해온 건물이므로 건축물의 변천에 대한 상세한 이력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2016년 성당 이축 시 보존문제에 대한 갈등 과정에서 첨탑이 철거되고 일부 지붕과 벽체가 손상되기도 하였음. 이축 과정에서도 실내외 마감재와 지붕부 트러스 등이 수리되었음. 2019년 성당의 내외부 복원공사를 하였음. 이축 시 건축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노력한 점은 높이 살 수 있으나, 원래 위치에서 갖고 있던 입지적 특색이나 주변 공간과의 관계가 손실된 점이 아쉬움.
- 외관상 두드러지게 파악되는 것은 전면 입구의 양측면에 날개형 지붕이 부가된 것인데, 이는 1980년대의 변화라고 하며, 다른 변화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대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원래 골이 있는 함석지붕이었으나, 동판으로 교체되었음. (동판 교체시기는 모름.) 원래 마루바닥이 철거되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바뀌었음. 창문을 교체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되었음.

<수리이력(1956~2016)> *하남시 제출 자료

구분	내 용
이축 전 수리이력 (1956~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 양측면 출입부 지붕증축(1980년대) - 내부 마루 바닥 콘크리트 바닥으로 교체수리 - 지붕 골함석에서 동판으로 교체 - 출입문 및 창문 교체와 스테인드글라스 설치 - 내부 성가대 확장 및 계단위치 변경 / 벽 및 천정 마감재 교체
6)	<p>※ 마감재료의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가 있었으며, 구조적 결함에 의한 수리이력은 없음</p>

5)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이축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회 및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은 건물이므로 보존관리 여건은 매우 좋음. 2019년 현대식 건물을 본당으로 새로 지으면서 본 건물의 내 외부를 복원하였음.
- 주변은 미사 신도시로 개발이 완료되어 성당을 둘러싼 여유있는 대지나 녹지공간 없이 도로에 가깝게 위치한 점은 단점으로 생각됨.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개발압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6)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1956년 준공부터 2016년 이축 전까지 60년 동안 미사가 열리는 성당 본당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성당 건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활용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임. 홍보를 통해 주변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신도시 지역에서 보기드문 역사적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임.

7)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1950년대 건축된 다른 성당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두드러지는 건축적 특색은 없음.

8) 등록가치의견

- 이축이 되면서 기존의 맥락과 구산성지와 멀어졌으며, 이축 시 건축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노력한 점은 높이 살 수 있으나, 원래 위치에서 갖고 있던 언덕 지형의 입지적 특색이나 주변 공간과의 관계가 손실되었음. 구산성당의 경우 건축물 자체의 가치보다 한강변 높은 지대에 위치한 성지의 지리적 가치, 언덕지형의 상징성 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잃어버린 점이 아쉬움
- 건축물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원형과 보수 이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혹은 자료 제출이 필요함
- 조적조 건물의 원형 이축에 있어 국내 최초의 사례이고, 보존 및 이축 과정에서 신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 등이 참여한 점은 국내 문화재 보존에 귀감이 될 수 있음. 다만, 보존 위기에서 철거와 보존 의견을 교인들 스스로 조율해 나가고,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건축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의 등록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최근 신설된 시도등록문화재의 대표 사례로 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

10.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주정기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주정기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2년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22.4.26.) 보류된 건으로서, 목포시에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목포시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주정기지)
 - 소재지 : 목포시 고하도 일대
 - 소유자 : 고하주식회사 외
 - 수량 : 16개소 ※4개소 소유자 미동의
 - 건립시기 : 1940년대(추정)
 - 구조 및 규모 : 암반, 폭360~640cm, 너비 160~400cm, 길이830~1,300cm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4) 추진경과
 - ('18.9.3.)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목포시 → 문화재청)
 - ('21.3.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1.3.29.)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목포시, 소유자 동의서, 구체적 활용계획)
 - ('21.6.8.) : 보완자료 제출(목포시 → 문화재청)
 - ('22.4.26.) : '22년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보류'
 - 동굴 조성 경위 및 목적에 대한 전문자료 보완 필요
 - ('22.5.4.) : '22년 제4차 근대문화재 분과위원회 결과 통보 및 보완자료 요청 (문화재청 → 목포시)
 - ('22.6.16.) : 보완자료 제출(목포시 → 문화재청)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태평양 전쟁 및 강제동원 관련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이나, 이미 유사 성격의 해안동굴이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과 신청범위 해안동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완료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2년 제4차 근대문화재 분과위원회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 대상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한 등록 재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3.26.)

- 현재와 같이 조성 당시에 형성된 해안동굴의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3.26.)

- 현재와 같이 조성 당시에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3.26.)

- 이미 동굴진지라는 동일 유형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이번 신청 건인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을 포함한 대부분이 보편적 내용들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지역적 측면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역사적 흔적으로서 보존·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을 권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10명 / 부결 9명, 보류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주정기지) (구) -
2. 용 도 : (현) - (원) 군사시설
3.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 일대(목포시 달동 산210-1 외)
4. 소유자 : 고하주식회사 외
5. 시설물 개요
 - 구조 : 목포 고하도 해안가에 위치한 자연 암반층을 활용한 인공 동굴
 - 제작년도 : 1940년(추정)
 - 수량 및 면적 : 12기(소유자 미동의 4기 제외)
 - 층수(높이) : 폭 3.6~6.4m 내외, 높이 1.6~4.0m 내외, 길이 약 6~13m
6. 조사자 의견('21.3.26.)

<문화재위원 ○○○>

1) 개요

- 고하도는 목포항의 남서쪽 약 1.3km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태평양전쟁 시 군사요충지로 사용되었다. 고하도의 해안 동굴은 섬의 북동쪽 해안에서부터 서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총 16기의 인공 동굴로 이중 12기에 대하여 소유자가 등록문화재 등록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
- 이 고하도 해안 동굴은 일제강점기 후반 태평양 전쟁기에 조성된 일본 해군의 군사시설이다. 일본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서해 항로의 군사요충지 거점 방어시설로서 연합군 군함에 대하여 자살을 통한 공격을 위한 매복시설이다. 이의 조성을 위해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였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고하도의 북동쪽 해안에서 서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총 16기의 해안동굴이 확인된다. 그 중 12기의 문화재 등록에 대하여 소유자 동의가 확인되었다.
- 고하도 해안의 경사지 자연암반층을 이용하여 해안동굴을 조성하였다. 강제 징용에 의해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지형적 조건에 따라 높이 1.6~4.0m 내외, 폭 3.6~6.4m 내외, 길이 약 6~18m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동굴이 나타나고 있다.
- 일부 해안동굴은 어민들이 어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조성한 바닥과 칸막이 벽 등이 일부 남아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해안동굴을 조성했던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다.
- 일부 해안동굴에서 어민들이 어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멘트로 마감된 바닥과 시멘트 블록으로 조성된 칸막이벽이 남아있다. 내부에는 일부 어업 관련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몇몇 해안동굴은 상부가 붕괴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청소와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지면 원형의 회복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해안동굴 주변에 방공호 2기가 있다. 이 방공호가 해안동굴과 연계되면 태평양 전쟁 관련 시설로서 그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 충무공이 고하도에 머물 때 설치했던 고하도 진성이 있는 자리에 이충무공 유적지와 모충각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방공호에서 약 300 m 떨어진 거리에는 고하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냈던 장소인 탕건 바위가 남아 있다.
- 서쪽에는 최근에 개장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북서쪽으로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승강장이 있다. 목포가 KTX, SRT 등으로 인해 편리해짐으로서 고하도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인 강제 징용과 태평양 전쟁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해안동굴의 원형을 잘 보존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사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일본의 강제 징용과 태평양전쟁과 관련된 시설물로서 20세기 전반기 한국 근대사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 해안동굴 내부 조명 및 안내, 안전시설확보, 동선 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방공호 등 인근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이 필요하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포시가 진행하는 고하도 역사공원에 해안동굴을 포함하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제주도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함.
- 소유자 동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6기 해안동굴 전체를 등록되는 것이 효과적임.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현재와 같이 조성 당시에 형성된 해안동굴의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고하도는 개항기에 조성되기 시작한 목포항의 남서쪽 약 1.3km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은 섬의 북동쪽 해안과 서쪽 해안에 조성된 총 16기의 인공 석굴이다. 이중 12기에 대한 소유자 동의가 확인되었다.
- 일제강점기 후반 태평양 전쟁기에 조성된 일본 해군의 진지와 군사시설로서 서해항로의 군사요충지 거점 방어와 연합군 군함에 대한 자살 특공정 매복을 목적으로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고하도의 북동쪽 해안과 서쪽 해안으로 총 16기의 해안동굴이 확인되며 그 중 소유자 동의가 확인된 12기로서 해안에 산재해 있음.
- 고하도 해안을 형성하고 있는 경사지 자연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해안동굴을 조성하였음. 해안동굴 안쪽 공간의 측면이나 천장 모두 해안동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 해안동굴은 그 규모가 지형적 조건에 따라 높이 1.6~4.0m 내외, 폭 3.6~6.4m 내외, 길이 약 6~18m 등으로 다양함.
- 일부 해안동굴은 어민들이 어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조성한 바닥과 칸막이 벽 등이 남아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해안동굴에서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내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감의 흔적이나 인공적인 구조물 조성의 흔적이 거의 없음.
- 조성 당시에 형성된 자연암반이 별 다른 변형 없이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부 해안동굴에서 시멘트로 마감된 바닥과 시멘트 블록으로 조성된 칸막이벽이 남아있음. 내부에 어업 관련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몇몇 해안동굴은 상부가 붕괴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고하도 남쪽으로는 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쪽으로 최근에 개장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북서쪽으로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
- 고하도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개발 압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해안동굴의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역사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접 시설과 연계하여 방문객의 관람이 가능하도록 보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태평양전쟁과 관련된 시설물로서 20세기 전반기 한국 근대사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보다 구체적인 활용을 위한 인접 시설과의 연계, 해안동굴 내부 조명 및 안내, 동선 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포시가 고하도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활용계획은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제주도에 조성된 일본군 동굴진지가 등록되어 있음. 제주도의 일본군 동굴진지는 고하도의 해안동굴에 비해 절대적인 숫자가 월등히 많고 개별적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가 많아 직접적인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음.
- 제주도 이외의 사례로서 태평양에 가까운 한반도 남해안의 전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며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등록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유자 동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6기 해안동굴 전체를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현재와 같이 조성 당시에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동 시설은 일제가 1940년대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 해안가에 만든 인공 동굴로서 태평양전쟁 막바지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시설(주정기지)로 추정하나, 정확한 축조시기와 구체적인 용도·기능은 확인되지 않음.(다만, 군사학적으로는 자살 특공정을 매복시켰던 장소로 보고 있음).
- 현재 고하도 주변에는 모두 16개소의 동굴시설이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소유자 동의를 거쳐 총 11개소가 등록 신청되었으며 대부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해안가에 집중 배치되어 있음.
-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동 시설의 조성 공사에는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되었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가 패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즉, 강제 동원된 생존 인물의 증언 중에는 고하도에서 굴을 파다가 해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동 시설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당시 자살공격용 소형선박을 정박하기 위한 주정기지로서 동굴 형태로 구축한 군사시설로 추정되고 있음.
- 동굴은 자연암반층을 뚫어 구축하였고 형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규모는 폭 5m, 높이 3m 정도이나 길이는 조금씩 다른데 가장 긴 곳이 18m 이고 짧은 곳은 6.8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동굴 기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또는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내부 공간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음. 이는 실제로 준공되기 이전 일본의 패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동 시설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가 패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모습을 원형으로 간주하는데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동굴 내부에는 바닷물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퇴적되어 있고 동굴 암벽이 침식되는 등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며, 일부 동굴은 입구를 시멘트로 막은 후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기도 하였음. 또한, 동굴 상부가 붕괴되어 무너져 내려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관할지자체인 목포시에서는 고하도 주변 일대를 해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해상관광코스를 개발 중에 있고 현재 해안 일부 구간에 관광용 데크를 설치하여 활용 중에 있어 이와 연계한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목포시에서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고하도 섬 자체는 ‘북항대교’를 통해 육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굴 시설은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어 선박으로만 이동할 수밖에 없어 활용과정에서의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가 태평양전쟁 당시 해안가에 조성한 동굴 형태의 군사시설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15개소)’ 등의 사례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 동남연해의 여러 지역에 해안선을 따라 다수의 시설이 밀집 분포되어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동일 유형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또한 이번 등록 신청한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을 포함한 대부분이 보편적인 내용들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지역적 측면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의 역사적 흔적으로서 보존, 관리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을 권고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목포 고하도 해안 일제 동굴진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11. 「목포 고하도 방공호 및 막사건축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목포 고하도 방공호 및 막사건축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2년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22.4.26.) 보류된 건으로서, 목포시에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재검토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목포시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목포 고하도 방공호 및 막사건축물
 - 소재지 : 목포시 고하도 일대(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산214-5 외)
 - 소유자 : 고태주식회사 외
 - 수량 : 3개소 ※2개소 소유자 미동의
 - 건립시기 : 1940년대(추정)
 - 구조 및 규모 : 자연암석, 높이 3.4m 내외, 폭 2.2m 내외, 길이 약 17m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4) 추진경과
 - ('18.9.3.)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목포시 → 문화재청)
 - ('21.3.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1.3.29.)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목포시 / 소유자 동의서, 구체적 활용계획)
 - ('21.6.8.) : 보완자료 제출(목포시 → 문화재청)
 - ('22.4.26.) : '22년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보류'
 - 동굴 조성 경위 및 목적에 대한 전문자료 보완 필요
 - ('22.5.4.) : '22년 제4차 근대문화재 분과위원회 결과 통보 및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목포시)
 - ('22.6.16.) : 보완자료 제출(목포시 → 문화재청)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함께 등록 신청된 고하도 해안동굴과 마찬가지로 태평양 전쟁 및 강제동원 관련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이나, 일제강점기 해안 군사시설 문화재가 이미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과 소유자들의 동의가 완료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2년 제4차 근대문화재 분과위원회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 대상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한 등록 재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3.26.)

- 조성 당시에 형성된 현재 상태의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3.26.)

- 현재와 같이 조성 당시에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3.26.)

- 이미 동굴진지라는 동일 유형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이번 신청 건인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을 포함한 대부분이 보편적 내용들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지역적 측면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역사적 흔적으로서 보존·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을 권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10명 / 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목포 고하도 방공호 및 막사건축물 (구) -
2. 용 도 : (현) - (원) 군사시설
3.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 일대(목포시 달동 산214-5 외)
4. 소유자 : 고하도주식회사 외
5. 시설물 개요
 - 구조 : 자연암반 인공동굴
 - 제작년도 : 1940년대(추정)
 - 수량 및 규모 : 1개소 / 약 3.4×2×17m(높이×폭×높이)
6. 조사자 의견('21.3.26.)

<문화재위원 ○○○>

1) 개요

- 고하도는 목포항의 남서쪽 약 1.3km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태평양전쟁시 군사요충지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고하도에 방공호가 설치되었다. 섬 중심의 구릉지 동쪽 사면의 자연 암반층에 조성된 방공호는 높이 3.4m 내외, 폭 2.2m 내외, 길이 약 17m 규모의 동굴이다.
- 이 방공호는 일제강점기 후반 태평양 전쟁기에 군수물자의 보관과 공중 폭격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서 한국인을 강제 징용하여 조성한 것이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시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유적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고하도 섬의 중심에서 구릉지 동쪽 사면을 따라 설치된 2개의 방공호가 확인된다. 고하도의 해안동굴과 더불어 일제 강점기 목포를 중심으로 하여 전남 서남해안을 군사요충지로 활용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이 두 개의 방공호는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다. 두 개의 방공호 중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그리스도교 교회 기도원 건물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암반층을 이용하여 방공호를 조성하였다. 출입구는 1m 정도 크기로 사람이 머리를 숙여야 출입이 가능하다. 동굴의 위치를 은폐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방공호 조성과정에서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노출된 동굴 내부의 측면이나 천장을 통해 강제 징용에 따른 노역의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다.

- 1m 크기의 입구를 지나 10m 정도 들어가면 우측으로 급회전해서 들어가게 된다. 이것 역시 내부가 한꺼번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방공호의 안쪽은 높이 3.4m 내외, 폭 2.2m 내외로 전체 길이는 17m 정도이다. 입구에 비해 넓어지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크지 않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내부 공간은 원래의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인공적인 구조물 조성의 흔적이 거의 없다. 다만 입구 바닥에 시멘트를 바른 흔적이 남아 있는 정도가 확인된다.
-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조성된 인공 동굴이 초기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방공호 2기는 목포권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방공호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역사적으로도 이 충무공이 고하도에 머물 때 설치했던 고하도 진성이 있는 자리에 이충무공유적지와 모충각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방공호에서 약 300 m 떨어진 거리에는 고하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냈던 장소인 탕건 바위가 남아 있다.
- 서쪽에는 최근에 개장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북서쪽으로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승강장이 있다. 목포가 KTX, SRT 등으로 편리해짐으로서 고하도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인 강제 징용과 태평양 전쟁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방공호의 원형을 잘 보존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사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일본의 강제 징용과 태평양전쟁과 관련된 시설물로서 20세기 전반기 한국 근대사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 방공호 내부 조명 및 안내, 안전시설확보, 동선 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인근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이 필요하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포시가 진행하는 고하도 역사공원에 방공호를 포함하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제주도의 일본군 동굴진지는 고하도의 방공호에 비해 절대적인 숫자가 월등히 많고 개별적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가 많이 있지만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방공호 중에서는 비교적 그 크기와 규모에 있어서 비중이 있다.
- 제주도 이외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함.
- 인접한 달동 770-1번지의 방공호와 함께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함. (소유주의 설득이 필요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조성 당시에 형성된 현재 상태의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은 ‘목포 고하도 방공호’가 적합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고하도는 개항기에 조성되기 시작한 목포항의 남서쪽 약 1.3km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목포 고하도 방공호는 섬 중심의 구릉지 동쪽 사면에 조성된 높이 3.4m 내외, 폭 2.2m 내외, 길이 약 17m 규모의 인공 석굴이다.
- 일제강점기 후반 태평양 전쟁기에 군수물자의 보관과 공중 폭격에 대비한 방공호로서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고하도 섬 중심의 구릉지 동쪽 사면으로 2개의 방공호가 확인되며 그 중 남쪽에 있는 방공호로서 과거 기도원으로 사용되었던 건축물의 배면 방향에 인접하여 있음.
-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방공호를 조성하였음. 방공호 안쪽 공간의 측면이나 천장 모두 방공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 방공호의 입구는 1m 이내의 높이로 내부에 비해 입구가 좁게 형성되어 있음. 방공호의 안쪽은 높이 3.4m 내외, 폭 2.2m 내외로 입구에 비해 넓어지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크지 않음.
- 방공호 전체 길이는 17m 정도이고 중간 부분에서 우측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입구 바닥에 시멘트를 바른 흔적이 남아있는 정도가 확인되나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내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감의 흔적이거나 인공적인 구조물 조성의 흔적이 거의 없음.
- 조성 당시에 형성된 자연암반이 별 다른 변형 없이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방공호의 남쪽으로는 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쪽으로 최근에 개장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북서쪽으로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
- 고하도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개발 압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방공호의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역사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접 시설과 연계하여 방문객의 관람이 가능하도록 보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태평양전쟁과 관련된 시설물로서 20세기 전반기 한국 근대사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보다 구체적인 활용을 위한 인접 시설과의 연계, 방공호 내부 조명 및 안내, 동선 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포시가 고하도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활용계획은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제주도에 조성된 일본군 동굴진지가 등록되어 있음. 제주도의 일본군 동굴진지는 고하도의 방공호에 비해 절대적인 숫자가 월등히 많고 개별적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가 많아 직접적인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음.
- 제주도 이외의 사례로서 태평양에 가까운 한반도 남해안의 전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며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등록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접한 달동 770-1번지 방공호와 함께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현재와 같이 조성 당시에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목포 고하도 방공호'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동 시설은 일제가 1940년대 고하도 내에 만든 인공 동굴로서 당시 공습에 대피하기 위하여 만든 방공호 시설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방공호 조성 공사에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동 시설에서 약 200m 이격된 곳에 또 다른 방공호 1곳과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1동이 남아 있으나, 이들 시설은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해 이 번 등록 신청에서는 제외된 상태임. 다만,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동 건축물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서 건립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방공호는 고하도 뒷도랑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수물자를 보관 하거나, 전시에 지휘본부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그 앞으로는 기능이 폐쇄된 기도원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관계로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음.
- 규모는 높이 340cm, 넓이 220cm, 길이 17m 정도이며, 입구에서 10m 정도 진입한 후 우측으로 급하게 꺾여 들어가 있어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의 평면을 구성하였으며 입구는 높이가 비교적 낮아(1m 내외) 진입하는데 다소 불편한 상태임.
- 전체적으로 자연암반층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바닥에는 시멘트를 바른 흔적이 남아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방공호의 조성시기 및 용도, 기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또한 최초 준공 당시의 모습 역시 파악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원형보존 및 변형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음.
- 또한, 구조자체가 자연암반동굴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구조적 안정 및 암반의 노후화 상태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관할지자체인 목포시에서는 고하도 주변 일대를 해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해상관광코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활용할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일제강점기 침탈의 현장을 보여주는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최근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고하도 해안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역사, 교육체험의 장소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성한 동굴 형태의 군사 시설은 제주지역을 비롯해 우리나라 동남 및 서남해안 지역에 다수의 사례가 남아 있으며, 일부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보존, 관리 되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이번 등록 신청한 ‘목포 고하도 방공호’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구조물의 형태와 기능, 목적 등에서도 보편적인 내용들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기 등록된 사례들에서와 같이 지역사적 측면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의 역사적 흔적으로서 기억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지역 차원에서 보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명칭은 ‘목포 고하도 일제 동굴진지’가 적당할 것으로 보임

12. 「흑산 사리공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흑산 사리공소」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4.23.)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5.8.)를 실시하여 '19년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5.28.)에서 보류된 건임. 추가 현지조사('22.5.30.)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광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흑산 사리공소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서당길 26
 - 소유자 : (재)광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58년
 -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78.3㎡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4) 추진경과
 - ('18.4.23.)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신안군 → 문화재청)
 - ('19.5.8.)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19.5.28.) : '19년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보류'
 - 지역 내 다른 공소의 추가적인 조사 및 자료 검토를 통한 재검토 필요
 - ('22.5.30.) : 문화재 등록 검토 추가 현장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흑산도 천주교 전파 역사를 보여주는 유구이기는 하나, 이미 건축적·종교적 성격이 유사한 흑산성당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사리공소를 등록할 당위성·필요성을 고려한 등록 검토가 필요함.

마. 추가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22.5.30.)

- 본 흑산도권역의 천주교 공소건축 조사는 2019년 5월 8일 현지조사 내용에 기반 하여 이번 2022년 5월 30일 '사리공소'와 주변 '다촌공소'를 현장조사 하면서, '흑산 사리공소'는 19년 5월에 조사한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다촌공소'는 건립연대가 1963년 10월이며 규모와 구조, 내부공간이 유사한 상태임을 확인함.
- 이 지역의 성당과 공소 건물의 특징은 육지의 천주교 건축에서 익숙히 보아 온 고딕양식이 아니라 그리스를 비롯한 정교회 건축문화에서 사용되던 긴 말발굽형의 종탑과 직사각형의 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외벽의 몽돌 장식은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고딕양식이 아닌 종탑 형태의 유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음.
- 현재 남아 있는 흑산도 지역의 천주교 건물은 한국전쟁 후 아일랜드 계통의 콜롬반(Columban) 외방선교회의 선교사들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하지만 콜롬반 선교회가 20세기 초에 중국선교를 목표로 설립되면서 아시아를 선교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포교한 내력, 흑산도와 연결되는 과정, 이에 따른 건축적 연결성 등이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음.
- 아울러 조선 후기 천주교의 전래와 대표적 신자로 알려진 바 있는 정약전의 유배지였던 흑산도와 현재의 흑산도 천주교 공동체와 관련성 등 흑산도 지역의 천주교 역사, 신앙행태, 건축변천사, 건축기술 유입 등 학술적으로 밝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이 유구들은 우선 전라남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현지의 행정력으로 보존·유지·관리 하면서 활용하도록 하고,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하여 심층적 보완조사 및 확인을 거쳐 국내외 천주교 역사와 건축사적 가치,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이 확립된 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이러한 결론은 최근 전국적으로 천주교 유구들의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공소 건축의 신청 빈도도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경향과 상황 파악을 토대로 비교 평가하여 전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음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2.5.30.)

- 지난 2019년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추가 자료 검토' 및 '지역 내 다른 공소의 추가 조사'를 사유로 보류되었음.
- '흑산 사리공소' 건립(1958년) 당시 흑산도 본섬을 포함해 다물도, 장도 등 인근에 위치한 크고 작은 섬에 모두 8개의 공소가 세워졌으나, 사리공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 건물은 증·개축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사리공소는 흑산성당을 본당으로 하는 공소로서 현재까지도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건물의 모습도 과거에 비해 큰 변화 없이 현상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최초 등록조사 과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당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흑산성당 본당과 종교적·건축적 맥락을 함께하고 있어 등록을 위한 당위성 확보 등에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임.
- 반면, 인근에 천주교 신유박해 당시 정약전이 유배생활을 하던 장소를 재현한 '복성재(사촌서당)'가 위치하고 있어 이들 시설과 연계한 활용적 측면에서는 시도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2.5.30.)

- '흑산 사리공소'는 흑산도 지역에 남아있는 유적 중 신해박해(辛亥迫害)로 유배된 정약전과 공간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천주교 전파와 교우촌 형성, 건축 재료에 사용 등 지역적 특징이 공소건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흑산 사리공소'는 지역적으로 볼 때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나, 국가등록문화재로서 기 등록된 흑산성당과 비교하여 건축적 가치에 차별성, 천주교 전파 과정과 토착화에 대한 역사적 특징과 가치 판단은 향후 관련 고증자료 확보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지역적인 차원에 역사적·건축적 가치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전라남도 차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을 권고함.

바.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19.5.8.)

- 사리공소는 1958년 흑산도에서 건축된 소규모 공소로 동근 돌 마감 외벽, 정면 종답과 구성과 장식, 지붕 구성과 내부 천장 형태 등 주요 건축형식이 동시기에 건축된 흑산성당과 유사함.

- 기본적인 건축형식이 흑산성당과 유사하고 기 등록된 공소와 비교하여 특성과 가치가 두드러지지 않고 현재 내외부 일부가 변형되어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않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19.5.8.)

- '흑산 사리공소'는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건립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건축유산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흑산도 내 현존하는 천주교 관련 기타 공소 시설과 함께 역사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번에 함께 등록 신청한 '흑산성당'과 종교(역사)적·건축적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그 가치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19.5.8.)

- 천주교 시설로서 공소건축물은 대개 한옥 공소 등의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사리공소는 50년대 말에 지어진 비교적 역사가 짧은 공소로서 주변의 다른 역사유산과 잘 조화가 되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등록문화재 돌담마을 내의 종교건축물로서 사리 마을의 한 구성체로 역할이 큼.
- 손암 정약전의 유배공간이자 서당을 열었던 사촌서당과 인접하여 종교적 공통성을 가지며 상호 조화로운 경관으로 보존가치가 있음.

사. 의결사항

○ 부결

-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10명 / 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흑산 사리공소 (구) 흑산 사리공소
2. 용 도 : (현) 종교시설(공소) (원) 종교시설(공소)
3.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서당길 26
4. 소유자 : 재단법인 광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천주교광주대교구청)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일 : 1958년
 - 수량 및 면적 : 1동(78.3㎡)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19.5.8.)

<문화재위원 ○○○>

1) 개요

- 흑산도는 1951년 목포 산정동 성당으로부터 선교사가 파견되어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 1952년 죽항리 공소, 1956년 심리 공소, 1958년 사리 공소가 설립되었으며, 신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자 1958년 본당으로서 흑산성당을 설립.
- 서남해 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고 뱃길이 험하다는 지리적 여건상 조선시대까지 제주도, 거제도, 진도와 함께 대표적 유배지로 역할을 하였으며, 손암 정약전(1758~1816년), 면암 최익현(1833~1907년)이 흑산도로 유배되었던 대표적 인물.
- 사리는 흑산도에서 동남쪽 바닷가에 위치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1801년 신유박해 당시 흑산도로 유배되었던 정약전이 1816년 죽을 때까지 16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던 장소.
- 정약전은 흑산도 사리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사촌서당(沙村書堂)이라고 불리는 복성재(復性齋)라는 서재를 설립하고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흑산도 근해의 어패류와 해산물을 채집, 조사, 집대성한 자산어보(茲山魚譜)를 저술.
- 현재 사리에는 사촌서당, 복성재 등 과거 정약전의 유배지가 재현되어 신안군 향토유적 제26로 관리되고 있으며, 경사지에서 굽어진 마을 안길을 따라 약 4,000m 길이로 조성된 돌 담장은 등록문화재 제282호 신안 흑산도 사리마을 옛 담장으로 등록된 상태.
- 사리공소는 사리마을 안쪽 경사지형에서 사촌서당과 복성재의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소 진입로와 주변에는 등록문화재 사리마을 옛 담장이 길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사리공소는 1951년 목포 산정동 성당으로부터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래된 후 점차 신도가 증가하면서 1950년대 흑산도와 장도, 흥도 등 주변 섬에 소규모 공소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건축.
- 건축물대장에 1958년 12월 1일 착공 후 동년 12월 30일 사용승인 되었고 구조는 석구조, 지붕은 슬레이트 마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이고 외벽은 구조체 위에 등근 돌로 마감한 것으로 추정됨.
- 전체적으로 대칭형 구성이지만 좌측 외벽 중앙부에서 고해실이 외부로 돌출되었으며, 내부는 기둥이 없는 통칸(通間) 형식으로 목조마루 바닥과 곡면 형태 천정에 의해 구성.
- 박공형 지붕과 등근 돌 마감 외벽으로 전체적 외관을 구성하였으며 하부에서 돌출된 아치형 주출입구와 십자가가 새겨진 반원형 벽체, 개구부에 설치된 종 등으로 구성된 상부 종탑에 의해 정면 강조.
- 박공지붕과 외벽의 등근 돌 마감, 정면 종탑부의 구성과 장식, 내부 천장의 곡면 형태 등 사리공소의 전체적 건축형식은 1958년 동시기에 흑산도 본당 성당으로 건축된 흑산성당과 유사.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58년 신축 이후 현재까지 공소로 지속적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지만, 1998년 지붕 마감재가 슬레이트에서 골형 강판으로 교체되는 등 내외부 일부가 원형에서 변형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사리공소의 소유주 재단법인 광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관리자 흑산성당 모두 공소의 역사적, 지역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사리공소 주변에 위치한 사촌서당, 복성재, 사리마을 옛 담장 등이 문화유산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사리공소의 소유주와 관리자 모두 현재처럼 공소로 지속적으로 활용, 관리, 보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문화재 활용계획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공소의 등록문화재 사례는 진안성당 어은공소(제28호), 원주 흥업성당 대안리공소(제140호), 장수성당 수분공소(제189호), 서산 동문동성당 상흥리공소(제338호), 용인 고초골공소(제708호), 통영 황리공소(제734호)이며 이들은 대부분 한옥형식 공소라는 특징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사리공소는 1958년 흑산도에서 건축된 소규모 공소로 등근 돌 마감 외벽, 정면 종탑과 구성과 장식, 지붕 구성과 내부 천장 형태 등 주요 건축형식이 동시기에 건축된 흑산성당과 유사.

- 기본적 건축형식이 흑산성당과 유사하고 기 등록된 공소와 비교하여 특성과 가치가 두드러지지 않고 현재 내외부 일부가 변형되어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않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시 명칭은 신안 흑산성당 사리공소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천주교 광주대교구 흑산 사리공소’는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1958년 현재의 위치에 건립된 공소로서 당시 흑산도 및 인근 섬에는 장도 공소(1954년), 심리 공소(1956년) 등 크고 작은 공소 시설 8곳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음.
- 이들 공소는 당시 목포 산정동 성당에서 흑산도 지역을 담당하였던 진요한 신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건립되었음.
- 현재 공소 인근에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의 주요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이 신유박해 당시 흑산도로 유배 왔을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인 ‘사촌서당’이 복원되어 위치하고 있음.
- 또한, 공소와 사촌서당 주변으로는 등록문화재 제282호인 ‘신안 흑산도 사리마을 옛 담장’이 자리 잡고 있음.

2) 건축 양식 주요 특징

- 사리공소의 건축형태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함께 등록 신청한 흑산성당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음. 즉, 바실리카식의 장방형 평면에 내부 공간은 별도의 영역구분 없이 하나의 통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남쪽 단변에는 반원아치로 장식한 포치 형태의 출입구를 돌출시켜 설치하였음. 다만, 제단 뒤편으로는 별도의 제의실을 두지 않았고, 좌측 외벽면에 면해서만 고해실 1개소를 설치하였음.
- 또한, 정면 출입구 상부에는 2층으로 수평 분할된 침탑이 설치되어 있으나, 당초 매달았던 종은 소실된 상태임.
- 창호는 정면의 아치형 포치 좌·우측에 각 1개씩의 반원 아치 형태의 창호를 설치하였고, 좌우측 외벽면에는 4분할된 창호를 배치하였으나 원형의 모습은 알 수 없음.
- 건축구조는 육안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외벽면에는 몽돌을 쌓아 마감한 것으로 보임. 침탑 역시 몽돌로 마감 처리하였음.
- 지붕가구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목재로 지붕틀을 짜고 그 아래에는 합판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이며, 지붕면은 칼라 강판으로 마감되어 있으나 원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내부 바닥에는 원형의 것으로 보이는 장마루가 깔려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창호 등 일부 마감재의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침탑을 포함한 건축물의 구조체 및 외벽 형태 등은 전체적으로 건립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어 보임.
- 또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공소의 기능으로 사용함에 따라 건물의 전체적인 노후화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공소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본당인 흑산성당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인 보존, 활용 의지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본당인 흑산성당과 함께 전라남도 도서지역을 대표하는 천주교 유산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천주교 공소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전통 한옥을 활용한 소위, 한옥성당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들 사례와 차별화되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흑산 사리공소’는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건립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건축유산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흑산도 내 현존하는 천주교 관련 기타 공소 시설과 함께 역사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번에 함께 등록 신청한 ‘흑산성당’과 종교(역사)적·건축적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그 가치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흑산 사리공소는 등록문화재 제282호(2006.12.04 등록) ‘사리돌담마을’ 안에 위치하며 순암 정약전(1758~1816)이 유배생활을 한 ‘사촌서당’(사촌서실(沙村書室))의 바로 앞에 인접해 있음.
- 1950년대 후반에 지역에서 산출되는 자재를 많이 사용하여 건축하였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사리공소는 인근 장도에서 가져온 몽돌을 사용한 콘크리트조 건물로 전면부는 종탑을 겸한 입면 파사드가 있으나 종은 따로 있음.
- 평면은 ‘一’자형으로 측면에 고해성사실이 돌출되었음.
- 지붕은 목구조로 추정되며 지붕재는 골함석으로 이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벽은 변형이 없으나 모든 창호는 당초 목재 오르내림 창이었다고 전하나 사시창으로 바뀌었음.

- 실내는 바닥이 목재마루널로 교체는 했으나 마루널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노후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사리공소는 등록문화재 돌담마을 안에 있으며, 손암 정약전이 유배되어 거쳐했고 서당을 열었던 사촌서원의 바로 앞에 인접하여 역사적, 종교적 공통점을 가진 유적과 좋은 경관을 이루고 있음.
- 역사적, 마을공동체 안의 작은 종교공간으로서 보존여건이 양호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지속적인 종교공간으로서 사용되고 인접 정약전의 사촌서당과 종교적 연관성을 가지며 천주교광주교구 유지재단이 관리하는데 부합한다고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근래에 들어서 섬지방 인구가 줄어들어 종교시설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흑산 지역에도 몇 개의 공소가 이미 폐지된 바 있음) 따라서 사리공소도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 이 경우 인접한 사촌서당과 함께 등록문화재 사촌돌담 마을 안의 공공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큼.

다. 기타사항

- 건축적 변화가 심하지 않지만 기 변화과정 및 향후 변화 사항의 기록이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천주교 시설로써 공소건축물은 대개는 한옥 공소 등의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사리공소는 50년대말에 지어진, 비교적 역사가 짧은 공소로서 주변의 다른 역사유산과 잘 조화가 되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등록문화재 돌담마을 내의 종교건축물로서 사리 마을의 한 구성체로 역할이 큼.
- 손암 정약전의 유배공간이자 서당을 열었던 사촌서당과 인접하여 종교적 공통성을 가지며 상호 조화로운 경관으로 보존가치가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후 명칭은 본래의 명칭을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3. 「구 흑산성모중학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구 흑산성모중학교」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0.12.1.)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2.5.30.)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광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구 흑산성모중학교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34, 산 79-8번지
 - 소유자 : (재)광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수량 및 면적 : 2동 (A동: 280.9㎡ B동: 171.9㎡)
 - 건립시기 : 1958년
 - 구조 : 석조(몽돌)+시멘트몰탈 벽체 / 목조트러스 지붕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0.12.1.)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신안군 → 문화재청)
 - ('22.5.30.)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흑산 성모중학교는 흑산도 내 천주교 전파와 함께 지역의 근대 교육시설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현재 활용계획으로 인해 건물 내부가 해체·철거되어 과거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2.5.30.)

- 본 성모중학교 교사를 문화재로서 보호하려는 동기와 목적은 낙도까지 중등교육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1960년대에 종교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체계적 교육을 하고, 학생복지에도 신경 쓴 흔적이 남아 있는 유구였기 때문임.
- 하지만, 이번 현장 조사시점('22.5.30.)에서는 낙후, 훼손이 삼하다는 사유로 마루널, 하부구조, 교실 사이의 벽, 천정 등을 모두 해체하고 철거하여 원래의 모습과 재료가 제거된 상태임.
- 문화재로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할 부분과 건축적 요소 및 재료 등 유구의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많은 부분이 제거되었기에 국가등록문화재로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판단함.

○ 문화재전문위원 ○○○('22.5.30.)

- 건물 내부시설 대부분이 철거되어 버린 현시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비롯하여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지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데 있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 다만, 흑산성당 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천주교 신유박해와 관련하여 '정약전' 및 '자산어보' 등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장소로의 활용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회 ○○○('22.5.30.)

- 흑산 성모 중학교는 흑산도 지역에 근대적인 교육시설로 시작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건립이후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등 용도가 전용되면서 원형에 훼손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외형에 있어서 건축적 특징이 유지되고 있으며 계획적 변형이 아닌 상당부분 향후 활용계획에 따른 변경이 진행되고 있기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지역사회 공헌과 장소성이 유지되고 있고 주변 흑산성당과 더불어 종교사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기에 전라남도예 시도문화재 등록을 권고 해볼 만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10명 / 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구 흑산 성모중학교 (구) 구 흑산 성모중학교
2. 용 도 : (현) - (원) 교육시설
3.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34
4. 소유자 : 재단법인 광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5. 시설물 개요
 - 구조 : 석조(몽돌)+시멘트몰탈 벽체 / 목조트러스 지붕
 - 제작년도 : 1958년
 - 수량 및 면적 : 2동 (A동: 280.9㎡ B동: 171.9㎡)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2.5.30.)

<문화재위원 ○○○>

1) 개요

- 1958년 흑산도성당 본당 건립 후에 교세가 확장되면서 도서지역의 중등교육을 위하여 실베르텔 쿠린 주임신부에 의해 1961년 3월 23일 문교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성모중학교가 설립되었다.
- 학교의 건물은 1961년 11월 11일 준공되었으며 여기에서 공부한 학생들 58명이 1963년 2월 21일 제1회 졸업생으로 배출되었다.
- 1973년 2월 15일, 문교부의 중등교육 평준화와 공립화 정책에 따라 폐교하였다. 그 사이 11회에 걸쳐, 894명이 졸업하였다.
- 폐교 이후, 이 건물은 업무시설로 사용되다 숙박시설, 성당의 휴양시설, 창고 등으로 활용되었다.
-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으며, 최근 흑산도의 천주교 및 성모중학교의 역사관,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훼손된 부위의 부재들을 해체·철거한 상태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대지의 경사에 따라 위쪽(A동)과 아래쪽(B동)에 같은 모양의 건물이 단 차이를 두고 이어져 있다.
- 지형상 좁은 대지에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교실을 연결하는 복도를 실내에 두지 못하고 외부에서 교실로 바로 들어가도록 교실마다 한 개의 출입문만을 교실 뒤편에 둔 것이 특징이다.

- 단순한 장방형 건물에 목조 트러스(맞배지붕) 위 석면 슬레이트를 덮은 건물로, A동은 교실 4개, B동은 교무실과 교실 2개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폐교 후, 업무 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사용하면서 내부 공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벽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의 교실 구획, 바닥마감(마루), 천정, 벽체의 내부마감재 등은 제거되어 원형을 찾을 수 없다.
- 출입문과 창문은, 훼손되고 노후화한 것이 다수 있기는 하나 새로운 부재로 교체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원형보존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이루고 있는 외벽체와 지붕 트러스 구조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여겨진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내부의 공간구성 변형과 건축재료의 부분 제거로 인해 학교로서의 특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나, 같은 경내에 있는 흑산성당과 더불어 이 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교우들의 신앙생활, 지역기여도에 대한 실증 사료로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학교 기능의 폐쇄와 연이은 용도변경으로 원형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신안군과 천주교 기관에서 ‘흑산성당 성지화 사업’을 수립하고 구체적 계획을 작성 중이므로 이에 부응하는 프로그램들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행정기관과 천주교 기관의 협력 하에 수립된 계획은 충분히 실현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초·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이미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재 건축물로는 옥천 구 죽향 초등학교, 소록도 구 녹산초등학교 교사, 소록도 구 성실중고등학교 교사, 전남 구례 구 방광초등학교 등이 있다. 이 건물들은 학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요소, 즉 교실, 교무실, 교실 간의 연결 복도와 당시의 창호, 내·외부 마감재료가 원형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 상태대로 관리되고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본 성모중학교 교사를 문화재로서 보호하려는 동기와 목적은, 낙도까지 중등교육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1960년대에 종교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체계적 교육을 하였으며 학생복지에도 신경 쓴 흔적이 남아 있는 유구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폐교 이후 여러 차례 용도가 바뀌면서 원형으로부터 변형된 부분이 있었으나(예: 숙박시설 당시 객실 칸막이 벽 설치, 중복도 개설, 천정 신설 등), 2019년(인근의 흑산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당시)까지 원래 학교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유구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 하지만, 이번의 현장 조사시점(2022년 5월 30일)에서는 낙후, 훼손이 심하다는 사유로 마루널과 하부구조(동바리, 토대 등), 교실 사이의 벽, 천정 등을 모두 해체하고 철거해 버려 원래의 모습과 재료가 제거된 상태이다.
- 본 건물은 박물관과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 중이다. 현재 유구의 상태는, 전시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과정 중이라고 볼 수 있다.
- 문화재로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할 부위와 건축적 요소 및 재료 등, 유구의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많은 부분이 제거되었기에 아쉽기는 하지만 국가등록문화재로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판단한다.
-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유구를 변형한 상태에서 문화재 등록여부를 묻는 것은, 유구의 가치와 진정성을 가늠하고 앞으로 유구를 해석하는 데에 심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 이렇게 활용을 염두에 둔 채 변형, 훼손이 이루어진 유구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등록문화재로서 등록을 권고할 당시의 원형보존 상태에서 지금은 많은 부분 변형과 훼손이 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나 2021년부터 시도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전라남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전라남도의 문화재조사 보고서에는 성모중학교 교사와 직각 방향으로 발전시설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낙도의 작은 공동체에서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었던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 현장조사의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향후 지방 등록문화재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이 유구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등록신청 대상은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흑산도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인 ‘구) 흑산 성모중학교’의 교사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흑산성당’ 본당이 있음.
- 최초 ‘흑산성당’에서 1960년 4월부터 중학교 미취학자들을 대상으로 중등교육과정을 무상으로 가르치는 ‘학술연구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그 다음해인 1961년 3월 23일 당시 문교부로부터 정식 설립 인가를 받아 중학교를 설립하였음.
- 개교 초기에는 수녀님 교사가 파견되었고 그 후에는 성심여대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교사를 지원받았다고 함. 1963년 제1회 졸업생 58명을 시작으로 1973년 제11회까지 총 894명의 학생이 졸업하였으나, 그 해 그해 2월 15일 문교부의 중등교육 평준화와 공립화 정책에 따라 폐교되었음.
- 1978년~1986(추정)년까지 숙박시설인 ‘남해여관’으로 임대하였으며, 1988년~1990년까지는 다시 흑산성당에서 휴양의 집으로 사용하였고 1991년부터는 회합실 등으로 이용해 왔음. 이후 창고 등으로 사용되면서 한동안 방치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며, 현존하는 과거 학교시설로는 2동의 교사건물 이외에 기능이 멈춘 발전기 설비가 남아 있음.

- 최근, 신안군에서는 전라남도 등의 지원을 받아 ‘흑산성당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번 등록 신청한 ‘구 흑산 성모중학교’ 교사 건물 2동을 ‘성모미술관’과 ‘흑산성당 역사관’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현재 리모델링 관련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지붕가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부시설이 철거된 상태로 외부에서만 과거의 흔적이 확인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학교 부지가 바다와 인접한 비교적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비교적 넓은 평지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교사 건물은 지형의 단차를 이용해 상단과 하단에 각 1동씩을 배치하고 지붕 높이를 서로 달리하여 2동의 건물을 횡으로 길게 연결시켰음. 2동 모두 교실로 사용하였으나, 아래쪽에 위치한 건물에는 교직원을 위한 교무실 공간이 있었다고 함.
- 2동의 교사는 규모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 평면 등은 대동소이한데 위쪽 건물(A동)은 가로(37.7m)×세로(7.45m)×높이(5.3m)이며, 아래쪽 건물(B동)은 가로(23.07m)×세로(7.45m)×높이(5.3m)임.
- 평면은 일반적인 학교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一자형의 장방형 평면을 취하고 있으나 실내에 별도의 복도를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서 직접 각 교실로 출입할 수 있게 한 것은 차이가 있음.
- 외부 벽체는 무근콘크리트의 줄기초 위에 시멘트몰탈을 이용해 석재를 쌓아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언에 따르면 여기에 사용된 석재는 인근 섬지역인 장도에서 가져온 몽돌이라고 함. 실제로 흑산도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천주교 공소 및 성당 건물의 경우 대부분 외벽에 몽돌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 소위, ‘몽돌건축’이라 불릴 만한 지역건축으로서의 중요한 건축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내부 칸막이벽이 모두 철거되어 본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나 주변 민가에서 조개껍질 등을 혼합하여 만든 독특한 형태의 시멘트 블록을 쉽게 볼 수 있어 아마도 이것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몽돌과 함께 지역의 건축 재료로서 오랜 시간 동안 폭 넓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임.
- 지붕 가구는 왕대공 목조트러스로 짠 박공지붕 틀 위에 개판을 깔고 석면슬레이트를 씌었으며 지붕 처마 아래쪽은 처마돌림판으로 마감하였음. 종도리 하부에는 1961년에 입주상량이 있었음을 알리는 상량문이 육안으로 확인되는데, 그 모습으로 보아 아마도 최근에 새로 기록한 것으로 보임.
- 내부공간은 대부분이 철거된 상태이므로 본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천정에는 경사진 목재 반자들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바닥은 외벽 하부에 환기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마루가 깔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외벽의 창호를 기준으로 하면, 교실은 창호 3개와 출입문 1개가 1Bay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며, 창호는 상·하 2단으로 나뉜 목재 미서기창으로 모두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창틀 위, 아래에는 인조석 물씻기로 마감한 창대석과 인방석을 두었음. 출입문 역시 창호와 유사한 패턴의 목재 쌍미단이문을 설치하였으며 상부에는 캔틸레버로 캐노피를 달아내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동의 건물 모두 외부 형태로서는 어느 정도 과거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지만, 내부공간은 상부 목조트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조물이 철거되어 원형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여러 흔적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임.
- 또한, 향후 ‘성모미술관’ 및 ‘흑산성당 역사관’등의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추가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 예측됨 (실제로 신안군에서 제출한 리모델링 실시도면에 담긴 내용에 의하면, 외벽 철거 후 창호 재설치 및 마루환기구 폐쇄, 지붕 칼라강판 교체, 기존 바닥 콘크리트 포장 후 예폭시 마감 등이 진행될 예정임)
- 한동안 줄곧 방치되어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으나 향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노후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는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자와 관할지자체측에서는 ‘흑산성당 관광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향후, 난개발 등으로 훼손 및 멸실의 위험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인근에 국가등록문화재인 ‘흑산성당’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 여건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 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성모미술관’ 및 ‘흑산성당 역사관’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 발굴과 함께 전시, 교육의 장소로 폭 넓게 활용하고자 하며, 보존·관리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다만,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시설 대부분이 철거되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 이미 훼손된 만큼 향후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현상이 변경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성심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심여자고등학교(서울 용산) 교정 안에 위치한 ‘용산신학교와 신학교성당’이 사적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하여 천주교와 관련된 일종의 교육시설들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전국에 걸쳐 여러 사례가 있음. 다만, ‘구 흑산 성모중학교’의 경우 교육 환경이 열악하였던 도서지역에 건립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에 비해 희소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내부시설 대부분이 철거되어 버린 현시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비롯하여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지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데 있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 다만, ‘흑산성당 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천주교 신유박해와 관련하여 ‘정약전’ 및 ‘자산어보’ 등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장소로의 활용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시 문화재 명칭은 ‘구 흑산 성모중학교 교사’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흑산성모중학교 교사는 1958년 흑산성당 본당이 건립된 이후 지역에 교육적 어려움을 받던 청소년들을 위해 실베스텔 쿠란(Silvester Curran) 주임신부에 의해 건립된 교육시설임.
- 한국전쟁 이후 가난과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흑산도 주민들을 위해 1960년 성모중학교로 건립되었으며, 1961년 당시 문교부로부터 정식 교육시설 인가를 받고 1973년 폐교까지 교육과 선교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
- 폐교 후 1978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남해여관으로 사용되어다가 1988년 흑산성당 휴양의 집으로 사용됨.
- 1990년 흑산성당 본당의 회합실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흑산중학교는 흑산성당과 유사한 동서방향을 장축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경사지형에 따른 2개동이 레벨 차이를 두고 연속적으로 연벽하여 위치함.
- 흑산중학교는 흑산성당과 마찬가지로 주요구조는 벽식구조로 콘크리트 기초위에 시멘트몰탈과 몽돌을 사용하여 건축됨.
- 건축에 사용된 재료는 지역적 특징이 반영된 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쌓았으며, 학교 건립에 사용된 몽돌은 흑산도 내에서 확보·운반하여 사용된 것으로 알려짐.
- 규모는 전체 2개동으로 연벽에 따른 연속성이 있으나 단차에 의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 연벽한 교사 중 서쪽에 위치하는 교사는 교실로 사용되었으며, 동쪽에 배치된 교사는 주방 및 숙직실, 교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는 내부공간이 모두 철거된 상태로 외벽구조부와 지붕트러스 및 슬레이트만 남아있는 상태임.
- 현재 남아있는 외부 구조체를 통해서 건축적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외벽에 남아있는 출입문과 창문은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붕에 설치된 목조트러스에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중앙부에 상량문이 확인되어 건립시기를 특정할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활용을 위해 외부 구조와 형태만을 유지한 채 내부가 모두 철거된 상태이며, 교육시설에서 숙박시설 등으로 전용되면서 바닥의 구조와 마감, 벽체 등 내부 공간 구성 및 재료에 변형 등으로 원형의 건축적 특징과 공간구성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교육시설로서 흔적이거나 특징이 남아 있지 않음.
- 1973년 이후 학교에서 숙박시설, 공동체 모임장소 등으로 변형되거나, 미사용 상태로 남게 되면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지자체와 천주교 측에서 흑산성모중학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 하고자 하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흑산성당이 인접하고 있고, 문화재 보존을 저해할 만한 요소가 없어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흑산중학교는 재단법인 광주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흑산성당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보존·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또한 흑산성당을 중심으로 성지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문화재 보존 및 활용계획이 수립된다면 보존·관리 계획과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구체적인 보존 및 활용계획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흑산성당과 함께 구 성모중학교 보존에 따른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 기타사항

- 성모중학교와 관련된 역사적·건축적 가치판단과 진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연구가 요구되며, 계획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보수에 적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2007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괴산중학교 구 본관(제345호)은 1949년 건립된 괴산중학교 구 본관은 1946년에 개교한 괴산중학교의 본관으로 사용되었음.
- 광복 직후 우리나라 건축기술에 의해 건축된 충북 내 유일의 석조교사 건물임.
- 평면 길이가 77m에 이르며, 괴산군에서 채석한 화강석으로 외벽을 마감하고 지붕은 목조트러스 위 기와로 마감하는 등 절충식 건축양식에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방이후 소규모 도시에 건립된 교육시설로서 지역사적·건축적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음.
- 기 등록문화재가 갖고 있는 역사적·건축적 가치 평가와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는 진정성 확보 노력과 고증 및 보존·활용을 위한 선행 연구가 필요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흑산성모중학교는 흑산도 지역에 근대적인 교육시설로 시작하여 많은 공헌을 함.
- 그러나 건립이후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등 용도가 전용되면서 원형에 훼손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외형에 있어서 건축적 특징이 유지되고 있으며 계획적 변형이 아닌 상당부분 향후 활용계획에 따른 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지역사회 공헌과 장소성이 유지되고 있고, 주변에 흑산성당과 더불어 종교사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며, 이에따른 전라남도 차원에 등록문화재 등록을 권고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시 문화재 명칭은 '구 흑산 성모중학교'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14. 「이영춘 농촌위생 및 진료 기록물」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재 「이영춘 농촌위생 및 진료 기록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1년도 「근현대문화유산 위생·보건 분야 목록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영춘 농촌위생 및 진료 기록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2.4.12.)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이영춘 농촌위생 및 진료 기록물	1건 25점*	25.6×18.1cm 등	1936~ 1954	군산근대역사 박물관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0

* 세부목록(붙임1): 자혜진료소 일보와 일지 18권, 개정중앙병원 일지 2권, 농촌위생연구소 일지 5권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1.3~11월) : 근현대문화유산 위생·보건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결과, 「이영춘 농촌위생 및 진료 기록물」 A등급 분류
- ('22.4.12.)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건은 일제강점기 전북 군산 구마모토 농장에 설립된 자혜진료소(35년), 개정중앙병원(47년), 농촌위생연구소(48년) 등 3개 기관을 운영한 이영춘 박사가 직접 기록한 진료 등 관련 기록물임. 1930~1950년대 자혜진료소, 농촌위생연구소의 구체적인 활동 상황을 통해 전라북도 농민들의 건강과 농촌의 보건위생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한국 근대의료사적 측면에서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다만, 국가등록문화재 명칭부여지침 제4조제2항제3호 나목에 의거 「쌍천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로 부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문화재위원 ○○○('22.4.12.)

- 일제강점기 전북은 한반도 미곡 수탈의 거점이었음. 이로 인해 농민의 삶은 피폐했고 건강과 의료 여건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었음. 이영춘은 비록 일본인이 경영하는 농장에 고용된 의사였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 소작인들과 주변 지역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 진료 및 보건위생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쳤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건강과 농촌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임. 광복 이후엔 농민 개인에 대한 진료를 넘어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보건위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헌신했음. 이는 한국의 보건 의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이영춘 진료일지는 1936~1954년의 기록임. 이 시기는 이영춘의 진료 및 보건위생 활동의 여정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헌신적인 기간이었음. 그런 기록이기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함

○ 문화재전문위원 ○○○('22.4.12.)

- 1930~40년대까지 한국 농민에 대한 진료상황이나 한국 농민의 건강상태를 일정한 시기 동안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 나아가 진료 당사자가 직접 기록한 자료는 없었음. 한국 근대 의료사의 관점을 넘어 한국 근대사라는 일반 역사학의 관점에서든 의미가 깊은 자료로 사료됨.
-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기록이라는 점, 진료 상황을 기록한 희소한 자료라는 점, 1930-40년대 자혜진료소와 농촌위생연구소의 활동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봄

○ ○○○○○○ ○○ ○○○ ('22.4.12.)

- 이영춘이 활동한 일제강점기 후반부터 해방 후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가 정비되는 시기에는 대다수의 의사가 서울이나 지방의 도시부에 분포하였음. 이와 다르게 이영춘은 전라북도(농촌) 지역에서 활동하였다는 특징이 있어 다른 의사들이 남긴 기록과 차별성이 있으며, 자료를 통해 전라북도의 농촌위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자혜진료소의 구체적인 역할 및 활동, 이영춘 이외의 한국인 의사들의 존재와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음
- 아울러, 이영춘은 한국의 보건위생사업이 아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개인적으로 농촌위생연구소를 발족시켜 농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농촌의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는 실제 해당 지역의 보건위생문제 해결에도 직결되었음.

- 193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정부생산문서 조차도 상당히 소실되어 보건위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단편적으로만 남아있거나, 일부 자료만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연속성의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갖는 자료가 거의 없음. 이영춘이 상당기간 농촌위생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상당히 희소하며, 해방 이후 한국의 보건위생 발전상 및 당시 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의 실상을 확인하기에 적합하고 중요한 자료이므로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간부가결

- 명칭은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로 추진
- 출석 10명 / 부결 10명

<붙임1>

조사대상 세부목록

	유물 명칭	이미지	제작연월일	사이즈(cm)	유물번호
1	자혜진료소 일지		1936.7.1.~12.31. (쇼와11)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13)
2	자혜진료소 일보(1)		1938.7.25.~10.6. (쇼와13)	세로27.0 가로19.4	군1141 (22-11)
3	자혜진료소 일보(2)		1938.10.7.~12.22. (쇼와13)	세로27.0 가로19.4	군1141 (22-2)
4	자혜진료소 일보(3)		1938.12.23.~1939.3.8. (쇼와13~14)	세로27.0 가로19.4	군1141 (22-6)
5	자혜진료소 일보(4)		1939.3.9.~6.3. (쇼와14)	세로27.0 가로19.4	군1141 (22-7)
6	자혜진료소 일지		1939.8.15.~1940.1.29. (쇼와14~15)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17)
7			1941.6.20.~11.21. (쇼와16)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20)
8			1941.11.22.~1942.2.22. (쇼와16~17)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16)
9			1942.2.23.~5.28. (쇼와17)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21)
10			1942.5.29.~8.26. (쇼와17)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18)
11			1942.8.27.~11.19. (쇼와17)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19)
12			1942.11.20.~1943.2.20 (쇼와17~18)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22)
13			1943.4.11.~10.10. (쇼와18)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10)
14			1943.10.11.~1944.4.18. (쇼와18~19)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4)
15			1944.4.19.~10.30. (쇼와19)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3)
16			1944.10.31.~1945.5.17. (쇼와19~20)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8)
17			1945.5.18.~1945.12.2. (쇼와20)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5)
18			1947.1.1.~1948.3.14.	세로25.6 가로18.1	군1141 (22-9)
19		개정농림중앙병원 일지		1948.3.15.~12.22.	세로26.0 가로18.4
20	개정중앙병원 일지		1948.12.23.~1949.10.15. (단기4281~4282)	세로26.0 가로18.4	군1141 (22-15)
21	일지 (농촌위생연구소 용지)		1950.6.25.~1952.12.31.	세로18.7 가로25.7	군1141 (22-12)
22			1953.3.12.~9.24.	세로18.8 가로26.3	군1053 (4-2)
23			1953.9.30.~1954.4.12.	세로18.8 가로26.3	군1053 (4-1)
24			1954.4.13.~7.17.	세로18.8 가로26.3	군1053 (4-3)
25			1954.7.19.~10.4.	세로18.8 가로26.3	군1053 (4-4)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이영춘 농촌위생 및 진료 기록물」
2.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0
3. 소유자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4. 조사자 의견('22.4.12.)

<문화재위원 ○○○>

1) 개요

<이영춘과 구마모토농장 자혜진료소>

- 이영춘(李永春, 1903~1980)은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해 1929년 졸업했음. 졸업 후 세브란스 의전의 생리학교실 조수, 개업의(황해도 해주)와 공의(황해도 평산온천)를 거쳐 1935년 4월 전라북도의 대지주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1880~1968)가 운영하는 구마모토(熊本) 농장(본장인 開井농장)의 慈惠진료소장으로 부임함. 열악한 환경에 처한 소작인들을 위해 무료진료를 펼치겠다는 취지였음.
- 구마모토 농장(주식회사)은 1902년 한국에 들어와 농장을 운영하던 구마모토 리헤이가 일본 재계의 투자를 받아 전북지역의 토지를 대거 매입해 1935년 조성한 대규모 농장이었음. 당시 구마모토 농장은 전북 김제, 부안, 옥구, 정읍, 완주에 걸쳐 開井본장(옥구), 地境지장(옥구), 禾湖지장(정읍), 大野지장(옥구), 上關지장(완주) 등 5개 사업장을 운영했음. 농장 규모는 3,000정보를 넘었고 직원은 50여명. 전북지역의 미곡을 일본으로 약탈하는데 거점 역할을 한 농장이었음. 구마모토는 1935년 4월 이 농장의 본장에 자혜진료소를 설립했음.
- 자혜진료소는 구마모토 농장의 본장과 지장에서 일하는 소작인 3000가구 약 2만명의 진료를 담당함. 이영춘이 부임한 뒤 이 지역의 많은 농민들과 주민들이 자혜진료소에서 무료 진료를 받았음. 이영춘은 개정 본장에서만 진료를 한 것이 아니라 지장에 소속된 소작인들을 위해서도 무료 진료를 다녔으며 직접 환자의 집을 찾아 왕진을 하기도 했음.
- 홀로 진료소를 운영하던 이영춘은 환자 수가 줄지 않자 1939년 농장주의 승인을 얻어 개정본장, 지경지장, 화호지장에 별도의 진료소를 설립하고 의사 2명과 보조요원을 채용했음. 이와 함께 농촌위생은 물론 학교위생, 모자보건 사업 등으로 진료의 영역을 넓혀나갔음. 1941년엔 의사 김성환이, 1942년엔 의사 김경식이 부임했음. 1942년부터 이영춘은 조선농촌위생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당시 구마모토농장의 여건이 여의치 않았고 전시체제로 접어든 상황이어서 뜻을 이루지는 못함.
- 광복과 함께 구마모토 농장의 소유권은 미군정이 설립한 신한공사로 넘어감. 이영춘은 좀 더 큰 포부를 실천하고자 1947년 신한공사의 지원으로 자혜진료소를 확장해 개정중앙병원을 설립함.

- 이어 1948년엔 화호중앙병원과 농촌위생연구소 설립함. 농민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진료와 연구조사(유유아위생, 모성위생, 학교위생, 사회위생, 농민건강, 역학통계 등)로 영역을 확장했으며 전북지역 곳곳으로 진료소를 확산시킴. 동시에 개정간호고등기술학교(군산간호대학의 전신)을 설립해 보건의료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았음.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운영비의 부족,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됨.

<이영춘의 업적과 그 흔적>

- 이영춘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전북지역의 농촌 진료와 보건위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함. 일제강점기 농민 진료에서 시작한 그는 특히 광복 이후 체계적인 농촌 보건위생과 예방의학 영역으로 확대 발전시켰음. 그가 1948년 설립한 농촌위생연구소는 국내 최초의 농촌 농민 보건위생 전문 기관임. 농촌의 위생과 보건상태를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촌 지역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이영춘의 의료 철학을 구현한 구체적 결과물임.
- 군산에는 현재 이영춘 가옥(전라북도 유형문화재)이 있으며 그의 유품과 관련 자료들이 다수 남아 있음. 구마모토가 1920년경 농장 관리를 위해 지은 별장 주택으로, 이영춘이 광복 후 타계할 때까지 생활했음.
- 이영춘의 유족은 유품과 관련 자료 대부분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기증했음. 그 가운데 1936~1954년 이영춘이 직접 작성한 진료 일지 25권이 이번 등록 신청 대상임. 1936~1954년은 이영춘의 철학과 내면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지는 모두 그런 시기의 자필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자료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주요 내용>

- 등록 신청 대상은 이영춘의 진료 일지 25권으로, △자혜진료소 일보와 자혜진료소 일지(총 18권, 1936.7.1~1948.3.14) △개정중앙병원 일지 (총2권, 1948.3.15~1949.10.15) △농촌위생연구소 일지(총5권, 1950.6.25~1954.10.4)으로 이뤄져 있음.
- ① 자혜진료소 일보와 일지 (총18권, 1936.7.1~1948.3.14)
 - 기본적으로 이영춘과 동료의사, 보조인력들이 매일매일 수행한 진료의 일정과 동선, 진료 인원 등을 기록함. 이영춘의 진료 관련 기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개정 本場에서의 진료와 支場 出診, 왕진 등으로 나누어 진료 건수, 진료 인원을 기록함. 진료 시작 시간, 출장 및 귀환 시간 등도 기록함.
 - 간혹 외부인이 방문했거나 특정 개인을 진료했다는 내용, 진료 외의 활동(예: “개정소학교 학생 32명 적혈구 검사” 등), 직원들의 동정 등도 기록되어 있음.
 - 제7권 1941년의 기록부터 제17권의 광복 직전까지의 일지에선 진료 의사들의 이름을 창씨 개명한 이름으로 표기했음. 이영춘의 경우, 李에서 三和로 바꾸어 기록함. 동료 의사와 보조 인력의 경우, 木村, 今村, 金岡 등으로 적혀 있음. 그러나 광복 다음 날부터는 다시 한국 이름과 한국 姓으로 표기함.
 - ② 개정중앙병원 일지(총2권, 1948.3.15~1949.10.15)
 - 광복 이후 이영춘이 자혜진료소를 개정중앙병원으로 확장한 이후에 기록한 진료 일지임.
 - 자혜진료소 일보, 자혜진료소 일지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음.

③ 농촌위생연구소 일지 (총5권, 1950.6.25.~1954.10.4)

- 진료일지라기보다는 농촌위생연구소 기관 운영하던 이영춘의 개인 일기라고 할 수 있음.
- 농촌위생연구소 일지는 6.25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6월 25일자 일지부터 묶여 있음.
- 진료 일정이나 동선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농촌위생연구소의 일반적인 활동, 예산 확보 문제(예산안 국회 통과 등), 주변 병원계의 이모저모, 병원과 연구소 직원들의 동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룸.
- 후반부터는 영어로 일지를 작성함. 작성자도 '이영춘'이 아니라 'Dr. Y C Lee'로 표기함.

<특징과 의미>

- 총 25권의 진료 기록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록된 내용이 매우 자세한 것은 아님. 진료 환자의 구체적인 진료기록부가 아니라 이영춘과 동료 의사들의 하루하루 진료 일정과 동선을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
- 그러나 이영춘의 농촌 진료와 위생보건 활동의 흐름, 관련 정황 등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됨. 아울러 엄혹했던 시절, 농촌 진료와 보건위생의 외길을 걸었던 이영춘의 활동 과정과 그 내면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됨.
- 이영춘이 이끌었던 구마모토농장 소작인 진료와 광복 이후 농촌위생사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임. 소작인 진료와 농촌위생 사업의 전모를 모두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영춘이 1936년부터 1954년까지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자혜진료소 일보와 자혜진료소 일지(총 18권, 1936.7.1~1948.3.14)의 경우, 자혜진료소에서 이뤄진 매일 진료 현황과 의료진의 동선을 생생하게 담고 있음. 1936년부터 1948년까지 의료진 인력의 현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알 수 있음. 이런 점에서 자혜진료소 일보와 일지는 그 가치가 두드러짐.
- 1930년대 후반은 이영춘 혼자 매일 100~150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했던 힘든 상황이었음. 진료 동선과 진료 인원 등에 대한 기록에서도 이런 정황이 잘 나타남. 그렇기에 이영춘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기록임. 아울러 당시 전북지역 농촌의 열악한 위생환경 여건을 추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인위적으로 훼손된 흔적도 없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이영춘의 조카인 이주민(군산 거주, 이주민치과의원 원장)는 이영춘의 일지와 유품 등 관련 자료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기증.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자료들의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편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고 군산에 이영춘 가옥이 있어 다양한 연구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영춘의 정신을 선양해온 조카 이주민 원장이 군산에 거주하고 있어 이영춘 연구와 이영춘 자료 활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다만, 단순한 자료 전시 차원을 넘어 좀 더 창의적이고 확장성이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전문가의 영역을 뛰어넘어 대중들과 함께 하는 활용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군산과 전북 지역의 근대기를 이해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함. 군산 정읍 완주 등 관련 자치단체와 함께 활용하는 기획도 필요해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이 자료는 1930년대 이후 전북의 농촌 지역에서 전개된 의료 및 보건위생 활동을 이끌었던 이영춘의 진료일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함. 이 일지들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기증받은 이영춘 관련 자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생동감 넘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음. 여타 기증 자료 가운데 자혜진료소와 농촌위생연구소의 요람이나 수입지출 자료, 조사표 양식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영춘의 자필일지가 이들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함.
-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도 이영춘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자혜진료소와 농촌위생연구소 등 이영춘이 이끌었던 기관의 규정이나 사업개요, 기부행위 규정, 손익계산서 등의 공적 자료와 자필 교우록임.
- 연세대 소장 자료에 비해 이번 등록 신청 대상은 이영춘의 구체적인 활동, 내면과 열정 등을 보여주는 매우 희귀한 자료임. 따라서 연세대 소장 자료보다 그 가치가 월등하다고 판단함.
- 당시 이영춘과 함께 했던 의료인력(의사 김성환, 의사 김경식, 간호원 최신은 등)의 자료도 있지만 이영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북지역 농촌 진료 활동과 보건위생 프로젝트를 맨 앞에서 이끌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영춘 관련 기록에 더 주목해야 함. 이들의 관련 자료도 추가적으로 조사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영춘 관련 자료가 더욱 두드러진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함.

7) 등록가치의견

- 일제강점기 전북은 한반도 미곡 수탈의 거점이었음. 이로 인해 농민의 삶은 피폐했고 건강과 의료 여건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었음. 이영춘은 비록 일본인이 경영하는 농장에 고용된 의사였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 소작인들과 주변 지역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 진료 및 보건위생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쳤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건강과 농촌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임. 광복 이후엔 농민 개인에 대한 진료를 넘어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보건위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헌신했음. 이는 한국의 보건의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이영춘 진료일지는 1936~1954년의 기록임. 이 시기는 이영춘의 진료 및 보건위생 활동의 여정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헌신적인 기간이었음. 그런 기록이기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함.
- 참고: 자혜진료소 일보와 자혜진료소 일지(총 18권, 1936.7.1~1948.3.14.) 가운데 제7권~제17권에는 이영춘과 동료 의료 인력들의 이름이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음. 이것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창씨개명 표기가 이영춘이 실천했던 농촌 진료의 의미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시에 이영춘 진료일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요약하면 창씨개명 표기에도 불구하고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봄.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1903년 10월 16일 생. 부친 이종현(李宗鉉)이 낳은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남. 평양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23년 사범과를 졸업. 졸업 후 평안남도 성천군 별창(別倉)학교, 경상북도 대구보통학교의 교원생활을 거쳐 1925년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시험을 치러 합격. 1925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29년 졸업. 졸업 후 생리학교실의 조수로 임용됨. 개업을 원하는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해주에서 3개월 정도의 짧은 개업을 함. 이후 황해도 평산온천(平山溫泉)의 공의(公醫)로 부임. 1933년 다시 모교 병리학교실로 돌아옴. 윤일선의 지도 아래 1935년 6월 교토(京都)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 1935년 4월 전라북도 개정에 있던 일본인 농장인 구마모토 농장에 전임 의사로 부임. 1930년 여름부터 3년간 황해도 평산(平山)에서 공의(公醫)로 근무하며 “빈곤과 무지와 질병에서 신음하는 농촌 주민의 실상을 목격”한 바 있었기 때문. 진료는 개정, 화호(禾湖), 대야(大野), 지경(地境)의 농장사무소를 순회하며 이루어짐. 본장(本場)이 있는 개정에서 10일, 나머지 지장(支場)에서는 9일, 5일, 3일 정도씩 진료ja 이루어짐. 거의 휴일이 없는 진료였고, “하루 종일 환자에게 시달려서 녹초”가 되는 나날이었음. 본장인 개정과 주요 지장인 지경(地境), 화호(禾湖)에 자혜진료소가 설치되고 전임 의사들에 의한 진료가 시작된 시기는 1939년 11월. 김성환(金聲煥)과 김경식(金庚湜)이 진료진에 합류한 시기는 1941년 4월, 1942년 10월. 1937년 동양 농촌위생국제회의 참가. 1942년 10월이었다. 농장주인 구마모토에게 농촌위생연구소 설치안을 제출. 단순한 진료소를 넘어 연구소, 병원, 요양소가 합쳐진 종합기관을 만들자는 제안. 열악한 농촌위생상황을 극복하고 농촌과 농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서가 주목한 조치는 예방.
- 1947년 농촌위생연구소(農村衛生研究所) 설립. 1951년 연구소와 부속진료기관을 통괄하는 농촌위생원(農村衛生院) 설립. 개정과 화호에 각각 1개의 중앙병원, 그 외 각 지역에 진료소를 둬. 중앙병원은 일반 환자뿐 아니라 중환자, 수술환자의 입원 치료가 가능. 진료소는 구급환자와 일반환자를 취급. 진료소에서 취급하기 힘든 수술환자와 중환자는 중앙병원에 이송하여 치료케 함. 의료전달체계가 수립되었던 것.
- 이외에 총무부, 연구부, 지도부, 교육부를 둬. 총무부는 서무와 회계를 담당. 지도부는 위생강연회, 전람회 등 위생계몽활동을 목적으로 하였음. 교육부는 장차 설립될 부속 농촌위생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동시에 단기 강습회를 지도. 연구부는 연구 조사계와 실험을 주로 담당하는 실험실로 구성되어 있었음. 연구조사계는 유유아(乳幼兒) 및 모성위생, 학교위생, 사회위생, 농민 심리, 역학, 통계 등을 담당. 1951년 군산간호대학교의 전신에 해당하는 개정고등위생기술원양성소(開井高等衛生技術員養成所) 설립. 간호사 및 조사원을 양성하는 간호과와 보건원을 양성하는 보건과를 두었는데 수업연한은 각각 3년, 6개월. 농촌위생연구소는 치료와 보건 양(兩) 중심제도(Medical and Health Center System) 운영으로 신발족을 하게 된 것. 1951년 『농촌위생』 첫 호 발간.
- 1980년 11월 25일 78세의 나이로 영면(永眠).
- 이영춘의 농촌위생연구소는 농촌과 농민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진료소를 넘어 연구소, 병원, 요양소가 합쳐진 종합의료원을 만든다는 구상을 실현한 것.

- 그 구상은 질병의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따라서 농민의 위생상황 조사와 연구, 예방의학의 실천 지도를 담당하는 연구소 설립을 우선시하고 있었음. 종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의원, 그리고 새로이 설립될 결핵요양소는 연구소 부속 기관으로 구상되어 있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농촌위생연구소 일지(총 5권, 1950.6.25~1954.10.4.)**
 - 일본어, 영어, 한글을 혼용하여 기록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
- **자혜진료소 일보와 일지(총 18권, 1938. 7. 1.~ 1948. 3. 14.)**
 - 표지에는 주식회사 웅본농장본장 자혜진료소라고 고무인이 찍혀 있지만, 속지에는 ‘농장일지’, ‘주식회사 웅본농장본장’, 일시, 요일, 기후, 기온, 우설(雨雪)량, 검인이 인쇄된 용지에 기록한 진료일지.
 - 제1권의 경우 1936년부터 시작됨. 환자의 질환 등을 일본어로 간단히 기록함.
 - 제3권의 경우 표지에 ‘진료소일보(이)’는 붓글씨로 써졌고, ‘주식회사 웅본농장본장 자혜진료소’은 고무인으로 찍혀 있음. 내지는 ‘농장일보’임. 시기는 1938년 10월 7일부터 1938년 12월 22일. 이영춘과 정인희의 진료 내용이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음.
 - 제4권의 경우 표지에 ‘진료소일보(삼)’은 붓글씨로 써졌고, ‘주식회사 웅본농장본장 자혜진료소’은 고무인으로 찍혀 있음. 내지는 ‘농장일보’임. 시기는 1938년 12월 23일부터 1939년 3월 8일. 이영춘과 정인희의 진료 내용이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음.
 - 제5권의 경우 표지에 ‘진료소일보(사)’는 붓글씨로 써졌고, ‘주식회사 웅본농장본장 자혜진료소’은 고무인으로 찍혀 있음. 내지는 ‘농장일보’임. 시기는 1939년 3월 9일부터 1939년 6월 3일. 이영춘과 정인희의 진료 내용이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음.
 - 제6권의 경우 1939년 8월 15일부터 1940년 1월 29일. 이(李)와 정(鄭)이 실시한 진료 내용이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음. 이는 이영춘, 정은 1938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정인희(鄭仁熙)로 사료됨. 정인희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졸업 후 자혜진료소에서 근무하다 서울로 귀환했음. 진료 내용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농업상황, 조선의학회 참석 등 연구활동, 의약품의 도착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음
 - 제7권의 경우 시기는 1941년 6월 20일부터 1941년 11월 21일. 삼화(三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영춘의 창씨명임. 1940년 창씨개명 이후 진료의사의 창씨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진료 내용이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음.
 - 제8권의 경우 1941년 11월 22일부터 1942년 2월 22일.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음.
 - 제12권의 경우 1942년 11월 20일부터 1943년 2월 20일. 진료 내용이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음. 진료의사가 5인으로 증원됨.
 - 제17권의 경우 1945년 5월 18일부터 1945년 12월 2일. 진료 내용이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음. 1945년 12월 2일 진료일지부터 다시 삼화(三和)에서 이영(李永)으로 다시 한국 이름으로 고쳐 씀.
 - 제18권의 경우 표지에 ‘진료소일지’ ‘주식회사 웅본농장본장 자혜진료소’가 인쇄되어 있음. 시기는 1947년 1월 1일부터 1948년 3월 14일. 진료 내용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음. 의료진은 이(李), 즉 이영춘만 있음.
- **개정중앙병원 일지(총2권, 1948. 3. 15.~1949. 10. 15)**
 - 제19권의 경우 표지에 ‘개정농촌중앙병원일지’라고 수기로 써 있음. 시기는 1948년 3월 15일부터 1948년 12월 22일. 속지는 ‘주식회사 웅본농장본장 농장일보’. 진료 내용이 국한문 혼용으로 써져 있음.

- ‘일지’는 수기로 쓰여졌고, ‘농촌위생연구소 개정중앙병원’이라고 고무인으로 찍혀 있음. 속지는 ‘주식회사 웅본농장본장 농장일보’. 진료 내용이 국한문 혼용으로 쓰여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자료의 보존 상태는 현재까지는 양호함. 다만 시기가 지나면서 종이가 부스러질 우려가 있음. 두꺼운 표지를 앞뒤에 붙여놓은 관계로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좋음. 다만, 개정중앙병원 일지의 경우 글씨가 다음 장에 배어나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독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장처에 원형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혹은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현재 1930-50년대 의료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음. 특히 한 지역을 특정해서 관련 자료가 모여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될 것 같음. 나아가 이영춘 자료는 의료를 넘어 당시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건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따라서 이영춘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일본어 필기체, 해방 이후라도 국한문 혼용 필기체로 쓰여짐에 따라 해독에 어려움이 있음. 일본인 혹은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을 통해 해독이 가능하게 타이핑이 되어 자료가 공급된다면, 한국 근대 의료사를 넘어 사회사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식민지시기 농민들의 건강상황, 치료현황에 대한 1차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음. 1936년 도쿄제국대학 의학부에 재학 중이던 최응석을 중심으로 의학부 학생 8명, 경제학부 학생 1명, 여자의학전문생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경상남도 울산 달리의 위생상황을 조사한 후 1940년 일본 岩波書店에서 『朝鮮の農村衛生』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지만, 그 책은 출판본임. 각종 통계가 수록되어 있지만, 가공을 거쳤다는 점에서 1차 자료가 주는 생생함이 적음.
- 반면, 이영춘 자료는 당시 농민에 대한 진료상황과 그들의 건강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진료에 사용된 약품, 구체적인 치료법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1930-40년대까지 한국의 의료와 건강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임.

7) 등록가치의견

- 1930-40년대까지 한국 농민에 대한 진료상황이나 한국 농민의 건강상태를 일정한 시기 동안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 나아가 진료 당사자가 직접 기록한 자료는 없었음. 한국 근대 의료사의 관점을 넘어 한국 근대사라는 일반 역사학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사료됨.
-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기록이라는 점, 진료 상황을 기록한 희소한 자료라는 점, 1930-40년대 자혜진료소와 농촌위생연구소의 활동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봄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으로는 자혜진료소와 개정중앙병원을 포괄하고 있고, 진료상황을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영춘 자혜진료소 및 개정중앙병원 진료 기록물’로 제안함

<○○○○○○ ○○ ○○○>

1) 개요

○ 이영춘의 이력과 구마모토농장에서의 활동

- 이영춘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이하 세브란스의전, 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평산온천(平山溫泉) 주재 공의(公醫)로 발령받아 3년 동안 근무함. 개업의로서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했으나, 농촌의 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비 청구가 어려워 다시 모교 병리학교실로 복귀함. 다만, 공의 시절, 빈곤과 무지, 질병에 시달리는 산간 농촌 주민의 실상을 목도하면서 농촌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1934년 평양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시절 담임이자 당시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 학생과장이었던 와타나베(渡邊洞雲) 교수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소작농을 위한 무료진료사업을 담당하는 의사를 찾고 있었고, 경성제대에는 지원자가 없었음. 교수로, 또한 개업의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농촌으로 내려가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변은 만류하였지만, 은사 윤일선, 김명선 박사는 농촌 보건문제는 미개척분야이므로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추천함. 이에 전북 개정의 구마모토농장(熊本農場)에서 농장전담의사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됨. 진료대상은 주로 농장의 소작인으로 일하는 조선인 농민이었음.
- 구마모토농장은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가 설립한 농장을 일컫는 용어로, 1903년 전라북도 옥구군 박면 내사리 및 내인군 화호리에 농장을 개설한 것이 그 시작임. 이후 러·일전쟁기에 일본 재계의 투자를 받아 본격적으로 토지매수 사업을 벌였고, 1931년에는 약 3,500정보를 소유한 대지주로 성장함. 1935년 2월 말에는 주식회사 구마모토농장을 설립함. 이는 당시 다발하던 소작쟁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했음. 1930년대 구마모토농장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옥구, 정읍, 전주 등 5개 군 26개 면에 걸쳐 개정본장, 지경지장, 대야지장, 화호지장, 전주분장의 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직원 50여 명을 배치하여 3천 정보가 넘는 농장을 관리하였음. 농장의 관리조직은 회계담당 경리부, 농업담당 사업부, 진료부의 3개로 구성되어 있었음. 그중 진료부는 소작쟁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취했던 시혜적인 성격의 조치로, 1935년 4월 자혜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 처음은 개정본장에 설치한 것임.
- 이영춘은 개정본장에 설치한 자혜진료소의 전담 의사로 채용되어 구마모토 농장의 소작인 3,000 가구 약 2만 명에 대하여 무료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함. 개정 외에도 각 지장에 소속된 소작농들에게도 무료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옥구, 개정의 본장과 4개소의 지장에도 최소한의 약품 기구 등 시설을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출장 진료를 시행하였음. 혼자서 힘으로는 많은 소작농의 진료를 감당할 수 없음을 인지한 이영춘은 농장주의 승인을 얻어 화호지장과 지경지장에도 추가로 진료소를 설치하여 의사와 보조요원을 확충하였음.
- 일제강점기에 의료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았음. 각 지방에서는 자혜의원(도립의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확인받고 무료진료권을 청구하여야 가능했음.

- 특히 전라도 지역은 농촌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구조적으로 병의원의 비율이 낮아 농민이 의료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음. 그러한 가운데 구마모토 농장이 일대의 토지를 관리·경영하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소작농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에 착수했고, 개정 자혜진료소를 비롯하여 화호 및 지경지장에도 진료소를 확대 설치한 것이 근교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일본인 거대지주에게도 영향을 미침. 완주군의 동산농장, 김제의 동진농사주식회사, 옥구의 불이농장 등에서도 촉탁의사를 고용하여 소작농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함. 즉, 이는 전북 일대의 농민의 건강문제가 농장 경영과 관리의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시작이 구마모토농장 개정 자혜진료소이고, 이영춘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농촌위생연구소의 설립과 활동

- 이영춘이 개정 자혜진료소에서 보여준 활동은 그의 농촌위생에 대한 구상에서 비롯된 것임. 이영춘은 개정 자혜진료소로 부임할 때 이미 농장주인 구마모토 리헤이에게 조선농촌위생연구소 설치안을 제출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농민의 치료와 예방사업을 비롯하여 결핵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이었음. 다만, 이영춘이 진료소에 부임하던 당시에는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구소 설치는 바로 추진되지는 못했고, 1944년 연구소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해방을 맞아 연구소 설립 계획은 소멸됨.
- 해방 후 이영춘은 세브란스의전 복귀, 개업의, 관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기존의 진료소를 실비진료소로 운영할 수 있게 되자 개정에 남아 농촌위생에 대한 실천을 지속해 나아감. 당장의 농촌위생연구소 설립은 쉽지 않았지만, 1946년 일본인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신한공사 총재 박용민의 도움으로 진료소 운영 보조금을 받게 됨. 또한 1947년 1천만 원을 지원받아 개정 자혜진료소의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6개과(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와 80병상 규모로 개정중앙병원을 설립하고, 1948년에는 화호에 1천 5백만 원을 지원받아 5개과(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와 40병상 규모의 화호중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일본인 농장 중 해방 이후 일본인 개업 촉탁의사가 철수하여 무의촌이 된 지역의 주민이 진료소 설치를 요청하자 1948년 신한공사의 동의를 얻어 3개의 진료소를 증설하여 총 6개의 진료시설을 갖추는 데에도 공헌하였음.
- 이영춘은 신한공사의 재정적 지원으로 진료소를 증설하여 운영하는 한편, 1948년 7월에 농민 치료와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방 전부터 추진하던 농촌위생연구소를 설립함. 그는 농촌의 발전이 민족 발전의 원천이라고 여기고, 연구소에서 건전한 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음. 농촌위생연구소는 부속진료기관인 병원과 진료소 외에 총무부, 연구부, 지도부, 교육부의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위생계몽활동, 농촌위생학교 교육, 연구조사를 담당하였음. 이영춘은 연구소 설립으로 현대의학을 바탕으로 농촌사회와 농민의 건강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안을 혁신하여 건전한 농민생활, 농촌문화 향상을 추구하여 농촌위생을 이루고자 했음. 이를 위해 의료시설을 보급하는 한편, 예방사업과 진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갔음. 연구소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는 연구부로, 연구부에서는 유아(乳幼兒) 및 모성위생, 학교위생, 사회위생, 농민심리, 역할, 통계 등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위생사업의 기초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였음.

- 아울러 해방 전 연구소 설립 제안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의료인력 양성도 연구소 사업에 포함시켜 1951년에는 개정간호전문대학의 전신인 고등위생기술원 양성소가 설립되었음. 이는 농민의 위생 상황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위생 지식을 전달하며, 예방의학을 실천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음.
- 한국전쟁기에도 서울에서 내려온 의료인력이 연구소에 모이면서 관련 사업은 단절 없이 강화되었고, 1951년 농림부로부터 농촌위생원으로 승인받음. 농촌위생연구 학술지인 『농촌위생』을 발간하여 농촌의 매독, 결핵, 기생충의 원인을 연구 발표하여 농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됨.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의료인력이 분산되고, 보조금 지급도 삭감됨. 연구소 운영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귀속농지관리 특별회계의 농촌관계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받아 지속되었으나, 1957년 특별회계가 소멸되면서 보조금은 삭감되었고, 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짐. 1959년 정부가 연구소의 보조금을 삭감하자 이영춘은 연구소 운영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운영의 길을 모색하였음.

○ 농촌위생연구소와 씨그레이브 병원과의 관계

- 1966년에는 버마에서 의료활동에 종사하던 씨그레이브(Gordon S. Seagrave)를 지원하던 미국 의료원은 그의 죽음으로 버마정부가 그가 운영하던 병원을 국유화하자 다른 지원기관을 찾게 되었고, 씨그레이브와 같이 저개발된 빈곤지역의 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평생을 마친 이영춘을 주목하면서 농촌위생연구소를 새로운 지원기관으로 지정함.
- 이에 이영춘은 연구소를 기반으로 하여 소외된 지역에 의료를 공급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농촌위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전문의료인력, 즉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만들고자 함. 한미재단을 통해 기금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그간의 연구소 운영을 위해 빌렸던 부채가 문제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1970년 8월에 신설된 중앙병원(씨그레이브병원)과 영아원은 연구소에서 분리되어 독립재단법인으로 설립됨. 이영춘은 농촌위생연구소가 별도 재단으로 분리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연구소장직에서 물러나게 됨. 이후 농촌위생연구소는 뇌병원, 간호학교, 영아원, 그리고 가족계획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을 담당하던 농촌보건원이 운영되다가 재정난으로 분리되어 현재 연구소의 흔적은 군산 개정에 남아있는 영아원이 유일함.

○ 한국 의료사 중 보건위생 측면에서의 이영춘의 기여 및 업적

- 이영춘은 한국 의료사의 역사에서 농촌의 보건위생을 추진한 선구적인 인물임. 이영춘이 전북지역에서 펼친 의료활동은 1935년 구마모토농장의 진료소에서 근무할 때로 거슬러 올라감. 그가 근무한 개정 자혜진료소의 개소가 지주제 농장 경영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측면은 고려해야 하나, 치료받을 곳이 없어 사망하는 조선인이 많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영춘이 개정, 화호, 지경 등 구마모토농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는 한편 농촌위생, 학교위생, 모자보건사업 등 현대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해 나아간 것은 충분히 평가대상이 되어야 함.

- 해방 후 그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개정에 남아 농촌예방의학에 헌신하였음. 농촌위생연구소를 개소하면서 농촌위생사업을 펼친 지역은 개정에서 전북지역 전반으로 확대되었음. 개정중앙병원과 화호중앙병원 외에 8개의 진료소를 운영하며 지역민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한편, 위생강화(衛生講話), 기생충 박멸사업, 결핵 및 성병 퇴치 등의 보건위생사업을 진행하고, 보건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펼치며 진료, 연구, 교육을 연계하는 종합의료기관을 탄생시킨 공적이 있음. 또한 한국 최초로 농촌지역의 의료보험 조합을 결성하기도 하였음.
-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공립병원, 보건소, 공의진료소로 연결되는 의료전달체계 수립이 시도된 것이 1962년임. 이영춘의 농촌위생연구소는 이보다 10여년 앞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였음.
- 이와 같은 그의 활동은 한국형 농촌보건사업 및 복지모델의 선구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한 개인이 특정 지역의 의료에 오랫동안 관여하고,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전반을 향상시킨 사례는 한국 의료사에서 전무후무함. 아울러 그 활동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사료로서 가치가 큼.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이영춘은 주식회사 구마모토농장 개정 자혜진료소에 근무했던 때부터 의료 일지를 작성하였음.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지는 총 25권으로, 1936년 7월 1일부터 1954년 10월 4일까지의 것임. 1938년 2월부터 6월 중순경에 해당하는 일지를 제외하고 해방 전부터 해방 이후, 그리고 농촌위생연구소가 설립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지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일지의 표지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일체강점기 구마모토 농장의 자혜진료소 일지(총18권), 농촌위생연구소 개정중앙병원 일지(총2권), 농촌위생연구소 일지(총5권)임.
- 일지의 작성자는 이영춘으로, 자혜진료소 시절의 일지는 일본어로 기술하였고, 해방 이후 1947년에는 한문과 한글을 혼용하는 형태로 기술하였음. 1953년의 일지부터는 한글과 한문, 일본어, 영어가 혼용되어 나타남. 시기별의 기록 언어의 특징에서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음. 각 일지의 작성 기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2년 6개월분의 일지가 한 권에 담겨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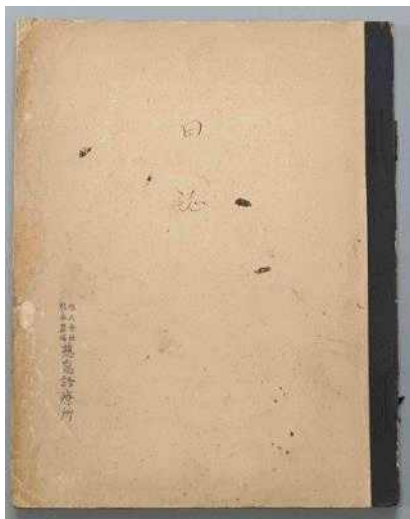


그림 1 자혜진료소 일지 표지(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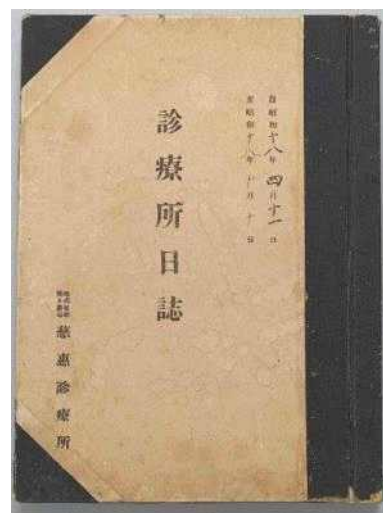


그림 2 자혜진료소 일지 표지(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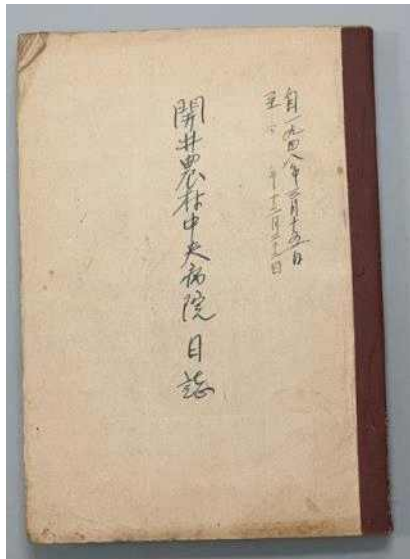


그림 3 개정농촌중앙병원 일지(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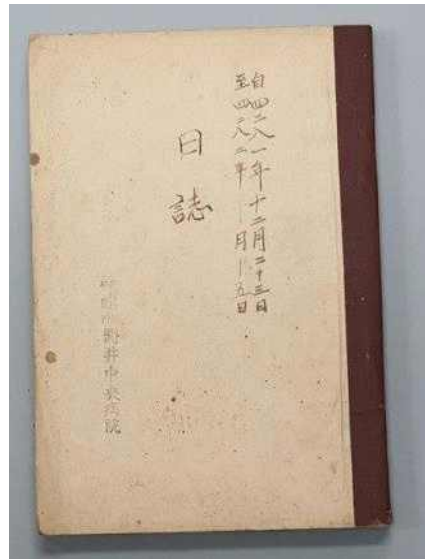


그림 4 개정중앙병원 일지(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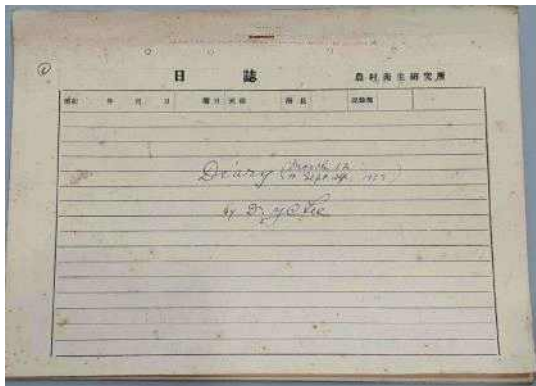


그림 5 농촌위생연구소 일지



그림 6 농촌위생연구소 일지

○ 일제강점기 구마모토 농장의 자혜진료소 일지(총18권)

- 1938년의 표지는 『일지』 또는 『진료소일보』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진료소일지』의 명칭으로 정착되었음. 인쇄된 형태의 『진료소일지』 표지가 등장하는 것은 1939년 8월 15일 이후 작성한 일지부터이며, 그 이전에 작성된 일지의 표지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아울러 속지는 구마모토농장본장의 농장일보(農場日報)에서 자혜진료소의 진료소일지로 변경되었음. 일부 『진료소일지』는 동일 날짜에 '진료소일보'와 '진료소일지'의 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먹지를 대고 필사한 것으로 보임. 보관이나 제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이영춘이 작성한 일지이나, 이영춘의 진료기록만 담긴 것은 아님. 자혜진료소 시절 작성된 일지의 내용에는 이영춘 및 자혜진료소에 근무한 의사가 각각 어느 자혜진료소에서 진료를 담당했는지, 몇 명의 환자를 진료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음.
- 구체적인 진료 내용은 일지의 내용분석이 필요함. 이영춘은 매달 일수를 나누어 개정본장, 화호·대야·지경·신리 지장을 직접 돌며 조선인 농민의 진료를 담당하여 각 지역의 조선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기록을 통해 당시의 전북 농촌의 의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지를 통해 의료인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음. 일지를 통해 시기별로 자혜진료소에 근무하던 의사의 이름과 의사 수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음. 한 예로, 1941년경에는 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의사 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고, 이후 최대 5명까지 증가한 것이 확인됨. 성(姓) 표기의 변화도 확인 가능함. 일지에 나타나는 의사의 성도 1941년에 이(李), 정(鄭)에서 미와(三和), 가네나가(金永), 기요카와(清川)로 변경되었음. 미와는 이영춘을 지칭함. 이후 기무라(木村), 이마무라(今村), 가네오카(金岡) 등의 의료인력이 충원되어 환자 진료를 담당했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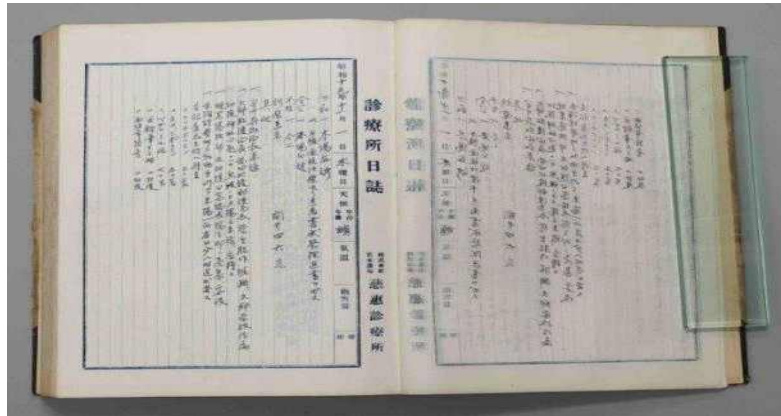


그림 7 자혜진료소 진료소일지. 앞장은 진료소일보, 현재장은 진료소일지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의사별 진료상황 및 진료소간 약품지급 현황도 확인 가능함.

○ 농촌위생연구소 개정중앙병원 일지(총2권)

- 1948년 3월 15일부터 1949년 10월 15일까지 작성함. 표지는 수기로 「개정농촌중앙병원일지」, 「일지」로 표기하였고, 「일지」로 표기한 경우 기관명인 '농촌위생연구소 개정중앙병원'의 도장이 찍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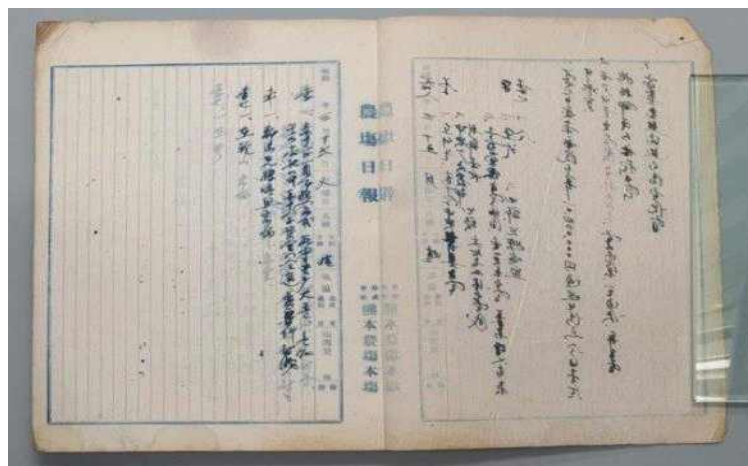


그림 8 개정중앙병원 일지. 초기 자혜진료소 일지에 활용하던 농장일보 용지를 활용하여 진료상황을 기록했다.

- 내지는 자혜진료소 일지를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구마모토농장본장 농장일보'를 활용함. 한문과 한글, 일본어를 병용하고 있음.
- 일지의 형식은 자혜진료소 일지와 마찬가지로 일지 내용 중에 이영춘 및 병원에 근무한 다른 의사의 활동, 진료내용을 각각 기록하고 있음.

○ 농촌위생연구소 일지(총5권)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4년 10월 4일까지 작성함. 별도의 표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함. 일지는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다가 영어로 기재함.
- 농촌위생연구소 일지는 주로 개인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있음.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인물을 방문한 기록이 중심임.
- 일지 내용을 통해 미군정기 및 한국전쟁 전후에 의료를 담당하던 인물과 보건위생조사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이영춘의 개인의 행적뿐만 아니라 당시 보건위생업무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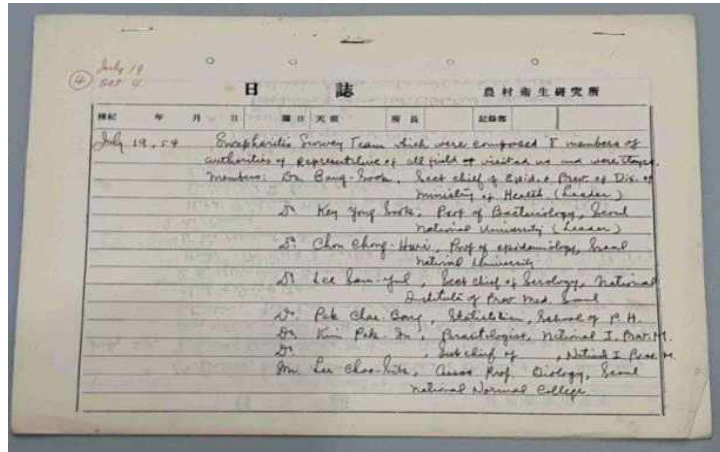


그림 9 농촌위생연구소 일지. 영문으로 작성. 1954년 뇌염조사팀의 명단. 당대 방역사업의 중심인물인 방숙, 기용숙, 전종휘, 이삼열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영춘이 작성한 자혜진료소부터 개정농촌중앙병원, 농촌위생연구소의 일지는 일지라는 형식상 연속선상에 있고, 내용은 진료일지와 당대 보건위생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이영춘의 보건위생사업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나 영상자료도 있으나, 일지는 그가 추구한 농촌보건위생의 큰 그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일지는 일정 분량씩 제철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자혜진료소 및 개정중앙병원 일지의 제철 및 보존상태는 좋으나 농촌위생연구소 일지는 별도의 표지 없이 수기로 기입한 종이를 스테이플러로 묶어 놓은 형태임. 단, 일지를 기록한 종이의 노후화 정도는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이영춘이 작성한 농촌위생 진료일지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음. 이외에도 박물관은 이영춘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계통화하여 보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박물관 시설이 양호하므로 보존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이영춘의 후손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이영춘의 방대한 자료를 기증하였음. 문헌류, 사진류, 실물자료, 영상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기증하였고, 그 중에는 보존 및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 그가 농촌의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생산한 다양한 자료 가운데, 일지류는 그의 의사로서, 교육가로서, 보건사업가로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음. 따라서 그를 다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판단됨. 또한 현재 군산을 대표하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므로, 다른 관련 소장품과 함께 전시하여 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 · 검토

- 기 등록문화재 중에 진료기록을 다룬 것은 청강 김영훈의 진료기록물을 꼽을 수 있음. 이것은 서울 종로 보춘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김영훈이 1914년부터 1974년까지 약 60년간 작성한 진료기록부, 처방전, 필사한 의학서 등임.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작성되어 근대 의료체계 형성기의 전통 의학의 이용실태 및 국민보건의료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장기간에 걸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으나,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높은 서울지역에서 작성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이에 비해 이영춘의 기록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의료실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희소성을 갖음. 즉, 의료접근성의 문제로 근대서양의학보다는 전통의학이나 약종상의 활동이 활발한 농촌지역에서 근대의학이 확산되는 모습과 이용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또한 진료소 및 연구소를 개소하여 체계적으로 농촌의료에 접근하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음. 진료, 보건위생사업, 생활개량사업, 보건인양성사업 등 농촌지역에서 전개된 보건위생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한 개인의 기록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기 등록문화재와의 차이점임.
- 동시기 이영춘 함께 자혜진료소, 농촌위생연구소에서 활동한 의사로 김성환을 꼽을 수 있음. 그는 이영춘과 마찬가지로 도시가 아닌 의료불모지인 농촌에서 화호진료소, 농촌위생연구소 산하 화호중앙병원 등을 운영하며 농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며 농촌보건 개선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인물임. 간호사 최신은 역시 화호진료소와 화호중앙병원에 내려와 병원 업무와 더불어 모자보건과 조산교육을 담당했던 인물임. 이영춘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들로 관련 기록이 일부 남아있으나, 이영춘과 같은 기관에서 일했던 인물들로서 이영춘의 기록물이 이들의 활동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음.
- 이영춘에 관한 기록은 모교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동은의학박물관에도 일부 소장되어 있음.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는 농촌위생연구소 설치를 위한 초안, 환자 진료기록, 자혜진료소 사업개요, 이영춘이 연구소와 병원 사업에서 물러난 이후 일간지에 게재한 나의 교우록 자필원고 등임.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 역시 이영춘의 농촌보건위생사업의 주요한 활동내역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나, 단편적으로 남아있어 이영춘을 대표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떨어짐. 일지류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 유일함.

7) 등록가치의견

- 이영춘이 활동한 일제강점기 후반부터 해방 후 한국의 보건의료체도가 정비되는 시기에는 대다수의 의사가 서울이나 지방의 도시부에 분포하였음. 이와 다르게 이영춘은 전라북도(농촌) 지역에서 활동하였다는 특징이 있어 다른 의사들이 남긴 기록과 차별성이 있으며, 자료를 통해 전라북도의 농촌위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자혜진료소의 구체적인 역할 및 활동, 이영춘 이외의 한국인 의사들의 존재와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음
- 아울러, 이영춘은 한국의 보건위생사업이 아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개인적으로 농촌위생연구소를 발족시켜 농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농촌의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는 실제 해당 지역의 보건위생문제 해결에도 직결되었음.

- 193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정부생산문서 조차도 상당히 소실되어 보건위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단편적으로만 남아있거나, 일부 자료만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연속성의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갖는 자료가 거의 없음. 이영춘이 상당기간 농촌위생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상당히 희소하며, 해방 전후 한국의 보건위생 발전상 및 당시 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촌 지역의 보건의료의 실상을 확인하기에 적합하고 중요한 자료이므로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 1)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일지
 - 2) 이영춘의 진료일지 및 농촌위생연구소 일지

15.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 주변에 연안구조정 전용 계류 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 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	전북 군산시	군산해양 경찰서	<p><연안구조정 계류시설 설치></p> <p>(1) 허가 받는 자 : 군산해양경찰서 ○ 대상위치 : 전북 군산시 내항2길 111 ○ 내 용 : 연안구조정 전용 계류시설 설치 - 진입도교 : 길이 약10m, 기초앵커 설치 - 진입부교 : 길이 약50m - 육전설비 등</p> <p>(3) 허가(수행)기간 : '22.5.24.~'23.5.23. (4) 현지조사 의견 <'22.4.29./문화재위원 ○○○> ○ 해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문화재(군산세관, 국가사적)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다음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 해수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해일피해 방지시설과 겹치는 구간이므로 본 계획 시설무로가 충돌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계획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항만시설 초기의 석축을 훼손하지 않으며 시설물 정착시키는 방안이 표현된 상세도면이 필요하다 ○ 60m길이의 부유시설물의 색상이, 구조활동 펼치는 데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 포함한 해안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색상을 고려할 필요 있다. <'22.5.23./문화재위원 ○○○ - 서면의견> ○ 제안된 설치안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은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대안이 있을 경우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p>	허가	'22.5.2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서울 구 서대문 형무소」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구청장	<p><2022 서대문 독립민주축제></p> <p>(1) 허가 받는 자 : 서대문구청장</p> <p>(2) 허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 내 용 : 2022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용 가설무대(엠프 등 포함) - 행사용 임시천막, 기타 방송시설 등 <p>(3) 허가(수행)기간 : '22.8.7.~ 8.21.</p> <p>(4) 조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내용은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저해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며, 특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행사 내용은 고증자료를 확보 후 사실에 근거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함 ○ 행사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행사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의 예방을 위하여 질서유지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함 ○ 행사 준비, 진행, 완료 단계까지 모든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위와 같은 사항의 불이행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사 중이라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불허처리가 될 수 있음 	조건부 허가	'22.5.26.
사적 「대한 성공회 강화 성당」	인천 강화군	강화군수	<p><화장실 상수관로 매설></p> <p>(1) 허가 받는 자 : 강화군수</p> <p>(2) 허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405-11, 421-1, 421, 420번지 ○ 내 용 : 화장실 상수관로 매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길이 70m, 수도관 15mm, 담장구간 기초 하부로 연결, 매설깊이 평균 1.2m <p>(3) 허가(수행)기간 : '22.5.18.~'23.5.17.</p> <p>(4) 현지조사 의견</p> <p><'22.6.16./문화재위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당 부속 외부 화장실의 겨울철 사용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상수관로 매설 공사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담장 주변 상수관로 지하 매설 공사시 담장에 영향 최소화할 필요 있음 ○ 지상에 노출되는 상수관로는 노출을 최소화하여 경관에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있으며, 	조건부 허가	'22.6.2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계량기 위치 및 뚜껑 디자인 등을 최대한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게 할 필요있음 ○ 상수관로 지상 및 지하구간, 계량기 위치 등이 정확히 표시된 도면의 추가 보완이 필요함 (5) 조건사항 ○ 보완제출된 배치도면대로 시행하되, 담장 주변 공사 시 담장에 영향이 없도록 시행 ○ 공사 시 가급적 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을 최소화하고 뚜껑 디자인 등을 최대한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게 추진토록 함																																					
국가등록 문화재 대한매일 신보 (2012-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보존처리> (1) 허가 받는 자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2) 허가 내용 ○ 내 용 : 대한매일신보 보존처리 ○ 수 량 : 665매 총4,914매=2,151(완료)+665(당해)+2,098(예정) (3) 허가(수행)기간 : '22.6.24.~12.20. (4) 추진경과 ○ 문화재 등록 '12.10.17. ○ 정기조사('18, '20) E(수리) 등급 ○ 보존처리 내역('17~'21/5년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차수</th> <th>신청일</th> <th>허가통지일</th> <th>보존처리기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1차</td> <td>'17.4.26.</td> <td>'17.5.31.</td> <td>'17.7.25.~12.15.</td> <td>298매</td> </tr> <tr> <td>2차</td> <td>'18.3.12.</td> <td>'18.5.9.</td> <td>'18.7.20.~12.19.</td> <td>301매</td> </tr> <tr> <td>3차</td> <td>'19.6.26.</td> <td>'19.7.26.</td> <td>'19.8.1. ~12.18.</td> <td>298매</td> </tr> <tr> <td>4차</td> <td>'20.5.25.</td> <td>'20.6.18.</td> <td>'20.7.1. ~12.15.</td> <td>644매</td> </tr> <tr> <td>5차</td> <td>'21.5.21.</td> <td>'21.5.28.</td> <td>'21.6.14 ~ 12.15.</td> <td>610매</td> </tr> <tr> <td colspan="4">합 계</td> <td>2151매</td> </tr> </tbody> </table> (5) 현지조사 의견 <'22.6.23./○○○○○ ○○○> ○ 본 문화재는 산성화가 빠른 당시의 신문용 지재질로 pH 측정 후 탈산 처리가 필요하며, 각 장의 뒷면에 부착된 한지와 접착제 제거, 가장자리 결손부 및 우측 펀치 구멍의 메움, 오염물질 제거 등 보존처리가 필요함 ※참고사항 ○ 2022년 국유문화재 위탁관리 협약(문화재청-서울대, '16.6.24) 대상사업으로 예산 지원	차수	신청일	허가통지일	보존처리기간	수량	1차	'17.4.26.	'17.5.31.	'17.7.25.~12.15.	298매	2차	'18.3.12.	'18.5.9.	'18.7.20.~12.19.	301매	3차	'19.6.26.	'19.7.26.	'19.8.1. ~12.18.	298매	4차	'20.5.25.	'20.6.18.	'20.7.1. ~12.15.	644매	5차	'21.5.21.	'21.5.28.	'21.6.14 ~ 12.15.	610매	합 계				2151매	허가	'22.6.24.
차수	신청일	허가통지일	보존처리기간	수량																																				
1차	'17.4.26.	'17.5.31.	'17.7.25.~12.15.	298매																																				
2차	'18.3.12.	'18.5.9.	'18.7.20.~12.19.	301매																																				
3차	'19.6.26.	'19.7.26.	'19.8.1. ~12.18.	298매																																				
4차	'20.5.25.	'20.6.18.	'20.7.1. ~12.15.	644매																																				
5차	'21.5.21.	'21.5.28.	'21.6.14 ~ 12.15.	610매																																				
합 계				2151매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